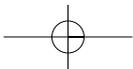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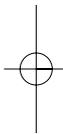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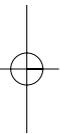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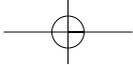


竹堂閒錄



 예산문화원



발간사



竹堂 田溶國 선생은 강직한 성품으로 평생을 닦은 학문을 몸소 바르게 실천하시며 충청의 올곧은 기상을 대변하시는 이시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한학자이자 선비이십니다.

우리지역 충청도가 기호유학의 본거지로서 조선조 500년을 지탱하여 온 국정철학의 토대가 되었듯이 이러한 학문의 맥이 충청도 예산에서 전용국 선생에 의해 우리지역에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음에 예산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전용국선생은 예산문화원에서 고문서나 비문의 번역등 금석학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편 20여년 넘게 동양고전을 강의하시면서 성리학적 가르침을 후세에 전달하시고 덕산향교의 전교로서 신양의 도산서원 원장으로서 현대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윤리와 사상을 일깨우는데 큰 노고와 함께 고전강학을 통해 도덕적 철학을 지역의 후학들에게 일깨우시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용국선생의 경륜에서 우리나라 평생을 지어 읊으신 한시 300여수를 모아 우리지역 예산의 서정의 고전문학을 선보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시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철학 이념을 바탕으로 평생을 통해 고전에서 얻은 진리와 함께하는 한시임에 향토사적 의미 또한 지대하니 우리지역 한문학의 수준을 알리고 교육적 사료로 삼는데 더없는 자료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된 삶의 정의를 후학들에게 일깨워 주실 죽당전용국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본 책이 간행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후학들의 모임인 탁마회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8월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琢學會 강의/ 예산문화원



竹堂 田溶國 선생님과 함께

序

世無常道하니 民稀常行이요 鄉無彝倫하니
人失禮廉이요 世末風靡하니 有士無言이로다
如此濁亂之日에 山水風月과 時事人情之間에
閒情吟哦之韻을 自蒐自序는 眞是可笑可責之事也로다
不知何許日에 禮山文化院講學之時에 講生三五子
請余而語曰 先生之平日所吟이 想必無數矣리니
蒐而集之면 必成一冊矣라하며 提視吾等하면
我等이 殫誠刊印하여 以資學詩하며 題冊爲名曰
竹堂先生詩選이 若何잇고 하여늘 余應之曰 否라
竹堂淺錄이라하니 二三子曰 以師視之면 猶爲可也
어니와 以弟視之면 於心難從이라하며 遂議閒錄
定名而刊印者也라 嗚呼라 夫日月之 万古長明은 常也요
雲雨之一時翳障은 變也라
故로 君子는 守其常而不惑乎變하나니라 雖然이나 知常知變然後에
可謂知道之士云甬라 此是淺見薄識之所出이나
與二三子로 共爲玩資則 可以發性情之雅趣而 勸懲之一助요
行遠昇高之一途而 明心濯垢之一鑑矣리라
二三子要余一言 警發故로 余以是應之하고 因以爲
序하노라

甲午 三月 十九日

序

세상에 뒤흔힌 도가 없으니 백성은 뒤흔힌 행실이 없고
시골에도 뒤흔힌 윤리가 없으니 사람마다 다 잘난 체하며
세상이 어지럽고
풍속이 문란하니 바른 선비는 말을 하지 못하는도다.
이와 같이 흐리고 어지러운 날에 산과 물 바람과 달과 시사와
인정사이에 청아한 심정으로 읊는 詩韻들을 스스로 모으고
스스로 서문도 쓰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가히 우습고 또 한심 가책
할 만한 일이다.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루는 예산문화원에서 강학 하던 때에
수강생 三 五인이 나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평소에 음영
한바 詩韻이 아마도 무수히 많을 터이니,

그간 제작하신 것들을 모으면 반드시 한 권의 책자가 될 것이니
저희들에게 제공해 보여주시면 우리들이 성심을 다해 간인하여
시를 배우는 자본으로 삼겠다” 하며

그 책에 이름을 죽당선생 시선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응하여 말하기를 아니다 하며 竹堂淺錄으로 하라 하니

二 三 제자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선생님 입장으로 보시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저희들의 입장으로 보면 마음에 따를 수 없다” 하며 드디어 서로
의논하여 ‘竹堂閒錄’ 이라 책명을 확정된 후 간인기로 하였다.
아~~ 무릇 해와 달은 만고에 길이 밝으니 그것은 常의 이치요

구름과 비는 잠시 하늘을 가리니 이것은 變의 이치인 것이다.
고로 군자는 그 常을 지키고 變에 미혹되지 않나니
그렇지만 常의 이치와 變의 이치도 알 수 있는 후에 가히 도를 아는
선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비록 淺見薄識에서 나온 것이지만
二 三子와 함께 玩賞之資로 삼는다면 아마도 性과 情의 청아한
취미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데 일조가 되고
行遠昇高의 한 길이요
마음을 밝히고 때를 씻어내는 하나의 거울이 될 것이다.
二 三子들이 나에게 한말로 警發할만한 것을 요청하므로
나는 이렇게 응답했노라.

2014 甲午 三月 十九日 씀

약력

- 1934년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에서
담양전씨 석천공 7대종손으로 출생
父, 柏庵 田基鎭. 母, 水原李氏
- 1943년 경남 방효준 선생님 사사
- 1945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로 이주
- 1947년 성암 구건희 선생님 사사
- 1949년 난운 박영준 선생님 사사
- 1951년 중재 전용옥 선생님 집지
- 1956년 육군 8사단 입대 59년 병장 전역
- 1957년 결혼 슬하에 2남 4녀
- 1985년 유도회 덕산 지부 회장 6년 역임
- 1988년 임성중 교사, 예산 여상교사, 공주대 산업대 교수에게
논어 맹자 등 강의
- 1989년 예산 문화원 이사 겸 부원장 20년 역임
- 1991년 덕산향교 전교 3년
- 1992년 예산 문화원 한학반 개설 및 강의
- 1993년 예산신양 도산서원 원장 6년 역임
- 2000년 대동보 감수
추사 서예 백일장 2회부터 24회까지
서예, 추사체, 사군자, 수묵화, 명제 출제
- 2014년 현 덕산향교 고문, 도산서원 고문
예산 문화원 자문위원 예산 문화원 한학 강의

獻辭

날로 가벼워져 가는 작금의 세상 한켠에서 때때로 허허로움과 배움의 갈증을 느끼던 우리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들에 용기를 내어 공부 모임 琢磨會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忠節과 藝鄉의 고장, 우리 예산의 마지막 선비로 살아오신 竹堂 전용국 선생님을 모시고 점점 잊혀져가는 孔孟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십여 년이 흘러 동몽선습, 명심보감, 대학, 중용, 논어에 이르기까지 克己復禮 中庸之道의 배움을 익혀 왔습니다.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라는 대학의 八條目에서 물적 완성이 성공의 기준으로만 보여지던 그간의 思考에 크나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표와 가치로서 人倫의 道를 보았습니다. 비록 勉學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날마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틈틈이 주옥 같은 古今 詩仙들의 詩文을 흑판에 쓰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詩想의 세계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평생 선생님의 삶 자체이기도 하셨던 自作詩를 통해 우리들을 감동케 하시었습니다.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이란 논어의 가르침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산의 마지막 선비로 살아오신 선생님의 興於詩를 기념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淸淨 詩界를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교실에서 수업 중 노트했던 선생님의 자작 詩文과 선생님덕에 방치되었던 詩篇들을 찾아내어 조금씩 정리해온 결과 오늘 이런 한편의 冊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편집 출판과정에 부족하고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슴 벅찬 보람과 기쁨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선 부족한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그동안 늘 그러셨듯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더욱더 선생님 가르치심에 열심히 배우고 익혀 琢磨 日日新하는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시운 예산문화원장님과 최승우 전 예산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내내 건강하십시오.

2014. 3. 琢磨會 제자 일동

竹堂詩集 序

竹堂者는田公溶國之雅號也요 其所謂竹堂詩集也者는
竹堂田公詩集之名也이라 然則詩者는 何也오 不云於經乎아
詩는 言志요 歌는 永言也云爾 則其所謂人生以靜은 天之性也요
感於物以動은 性之欲也니 夫既有欲矣 則不能無思요 既有思矣則不能
無言이요 既有言矣 則言之所不能盡 而發於咨嗟詠歎之餘者 必有自然
之音響節奏而不能已焉이니 此詩之所以作也云者는 晦庵先生序詩之言
也니라 此所謂竹堂詩集云者는 竹堂平素에 言之所不能盡 而發於咨嗟
詠歎之餘者를 其所以發顯於詩하여 而和合於自然之音響節奏而亦不能
已焉者也니 此則其所以吟乎草木禽獸山川之形像動靜하고 弄于江風海
月光雲影之氣候情趣하되 一不遺其韻致以作之者를 採以集之者也니
라 其詩又或當於花朝月夕하여 吟詠乎窓梅清楚暗香慙慙之趣하고 浩歌
乎園竹形影參差猗猗之雅하야 感發以成之者也니 其語和而不流하고 其
意寬而不疎하여 誦而詠之에 其可以使人口生香而自消心中之鄙吝者也
니라 公素好古而好學하여 雖於治圃監農之時라도 不舍詩想이라 接一
物行一事에 恒索興賦比之美句하여 賦以發現하니 其音其意가 眞實无
妄하여 自然協洽於風雅頌之律調也라 故로 師友諸賢이 愛之重之하고
又從以敬之하니 詩之所謂感發人之善心者也를 其因於公之詩에 可以眞
知也矣로다 公之平生에 且以師友로 許心相從者는 吾不知其幾也나 於
其中尤切者는 獨有金蘭之契也라 歲時伏臘에 必有相招以吟詠相和矣러
니 歲月已久而契勢亦隨衰落하여 契之初中盤期에 松梧梅雲菊等諸公은

不幸已逝而無語요 其或中間에 幸有有德君子入會以相從者多少有之矣
나 然이나 其亦因老衰病患而謝世者或有之일세 已今則纔有南松竹堂等
數三公而吾亦幸得齒焉矣라 故로 使其後死者로 固以爲有無限悲嘆矣라
噫라 生者之責은 無他라 其當爲之自強不息而乃成君子之事而已也일세
故로 竹堂公은 以其遵道而行하다가 恐或半途而廢之之心으로 勉強從
事하여 有會必吟하고 有迎必詠하며 動靜周旋과 左顧右眄에 凡有觸目
會心者면 皆無遺逸而無所不賦詩者也니라 公又不捨訓誨之業하니 好之
以從學者在處有之矣라 竊聞禮山文化院은 蓋公送老遊息之所而亦有悅
服以從學者어늘 其性本不厭教誨라 教之誘之者爲有年이라 故로 其所
以從學之徒愚者有知하고 懦者自立矣라 是以로 竹堂生平에 吟詠愛誦
之作을 寶藏篋笥之中하여 以待其時矣러니 至於今日하여 以其有三事
如一之二三子之請으로 將上劄劄氏之手云하니 事有其時를 吾始信之矣
로다 於是에 竹堂之錦章繡句가 一朝에 豁然出世以光輝하리니 其將蒙
澤於後生者當如何也哉며 又將有益於世道者亦當如何也哉아 余猥蒙公
之所囑하고 而不勝敬賀之心일세 却忘固陋하고 乃敢論公好學不厭倦之
萬一如右하여 以冠其篇云하고

歲次甲午二月下澣에 於漢陽北村中和齊에서 南里 李承昌 謹序하노라

竹堂詩集 序

죽당은 전공 용국의 아호이고 이른바 죽당 시집이라 함은 죽당 전공의 시집에 이름이다. 그렇다면 시란 무엇이고 그것을 經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시 는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요 노래는 말을 길게 함이라 하였고 또 이른바 사람이 나서 고요함은 본래의 천성이요 사물에 감동하여 움직임은 性的 욕심이라 하였으니 이미 욕심이 있으면 생각이 없을 수 없고 생각이 있으면 말이 없을 수 없고 말이 있으면 말로는 다하지 못하여 咨嗟하고 詠歎하는 나머지에 發하는 것이 반드시 자연스러운 음향과 가락이 있어 그칠 수 없으니 이것이 詩를 짓게 된 까닭이다’ 라고 말한 것은 회암 주자 선생께서 시경을 序하면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죽당시집이라 함은 죽당께서 평소에 말로는 능히 다하지 못한 것을 咨嗟 詠歎하고 남은 것을 시에 발현한바가 되어 자연의 음향절주에 화합하여 또한 그만 둘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시는 그 초목 금수 산천의 형상과 동정을 음영하였고 江風, 海月, 天光, 雲形과 기후 정취를 말함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운치가 넘쳐흐르는 시작들을 대부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시의 운이 혹 꽃핀 아침 달 뜬 저녁을 당하여 창가에 피어있는 매화의 청초한 암향의 은근한 정취를 음영하였고 園竹의 모양과 그림자가 들쭉날쭉하면서 야들야들한 청아함을 호탕하게 노래하여 정감이 발현하여 이루어졌으니 그 말은 화하면서도 흐르지 않

고 그 뜻은 너그러우면서 소홀하지 않으므로 그 시를 외우고 읊어보면 가히 사람들로 하여금 입에서 자연히 향내가 나면서 스스로 마음 속에 비루하고 인색함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공께서는 평소에 옛 것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治圃감 농하는 분주한 때라도 시상을 버리지 않은지라 一物을 접하고 一事를 행할 때에도 興賦比의 아름다운 詩句를 찾아서 글로 발현하니 그 음과 그 뜻이 진실 무망하여 자연이 風雅誦의 律調에 협흥하였다.

때문에 스승과 친구 모든 이들이 애지중지하고 또 따라서 존경하였다.

그리고 詩가 이른바 사람의 善心을 감발한다 하였으니 공의 시로 인하여 그것이 참임을 알게 되었도다. 공과 평생에 또한 師友로 許心相從한지 나는 그 얼마만의 세월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것은 금난계의 일원이었다. 금난계는 세시복납에는 서로 모여 음영 상화하였더니 세월이 오래되면서 계의 형세도 따라서 쇠락하게 되었다.

이계의 초 중반기에는 건재하던 송암 운곡 오은 매헌 매곡 국당 제공은 불행 서거하여 말이 없고 그리고 중간에 다행히 덕이 있는 군자들이 입회하여 여러분이 있었으나 그들도 또한 노쇠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 여럿이다. 지금에 와서는 겨우 남송 남리 죽헌 죽당 수삼공인데 나도 또한 다행이 그 중에 끼어있음이다.

故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참으로 무한한 비통이 있을 뿐이다.

아~~살아있는 사람의 책무는 무타라 마땅히 할 일을 자강불식하여 군자의 일을 해낼 뿐이다. 故로 竹堂공은 도를 따라 행하다가

혹시라도 반도에 폐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힘써 종사하여
會가 있으면 반드시 詩를 음영하고 만나고 맞이하면 반드시 글을 읊
어 동정 주선과 좌우 고면에 모든 촉목 회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
두 버리지 않고 詩로 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또 公은 훈회
의업을 버리지 않으니 공을 좋아하여 따라 배우려 하는 사람이 곳곳
마다 있었다. 저르기 들으니 예산문화원은 공께서 만년에 휴식하는
곳으로 또한 열복하며 종학하는 사람이 많았다.

공의 본성이 學不厭 教不倦하여 교지유지한지도 또한 여러 해가 되
었다. 故로 종학하는 문도는 우자 유지하고 나약한 자는 자립하게 되
었도다. 때문에 죽당 평생에 음영 애송하던 시작을 상자에 보관만하
고 그때를 기다리더니 금일에 이르러 生三事一의 정신을 가진 二 三
제자의 요청으로 印刊하게 되었다하니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을 내
처음 확신하게 되었도다.

이에 죽당공의 錦章繡句가 일조에 활연히 세상에 나와 빛을 발하
리니 그 장차 후생에게 혜택을 받을 자의 기쁨이 어떠하다 하겠으며
또 장차 世道에 유익함은 어떠할까. 내가 외람되게 공의 부탁을 받고
敬賀의 마음을 다하지 못할새 고루함을 망각하고 이에 감히 공의 好
學 不厭 不倦의 정신을 万分의 一을 論述하여 右와 같이하고 편수에
붙이노라.

세차 甲午二月 하한에 서울 북촌 중화재에서 남리 이승창 근서

目次

詩篇

德山 十景	21
鼎小鳥	26
元旦 偶吟	27
贈 禮山文化院長(李恒馥)	28
無題 一	29
萬世 保寧 造型物	30
德山鄉校 典校 就任 述懷	31
戲贈 松心 裴媛菩提樹茶室主人	33
松心 號記 贈	34
除夜謾吟	35
愛竹愛誦	36
城南 金蘭會	37
流頭日與儒林共賞綠陰	38
贈 荷塘 朴炳夏 號韻	39
春日思時	40
贈 粹月	41
金烏山	42
諸益 訪 青陽 一滴 劉永旭 築別業	44
主人	45
雪天講蘭	54
綠陰會	57
賀 鄭成謨 甲宴 贈韻	58
祝 忍軒翁 八旬	59
惜別	61

退任感吟	62
戲贈 松心	63
七旬 生朝 偶吟	64
贈 金川寺 主人	65
晦庵書院 創建 錄翻譯後次先正韻而 題簡尾	66
與文化院諸益航空機內觀天有感	67
勤學誦詩	68
農夫吟	69
無題 二	70
1994甲戌年 生朝述懷	71
祝 示範鄉校 選定 慶南 南海鄉校	73
讚 義岩 殉國精神	74
雪梅	75
追慕 李忠武舜臣	76
三隱 先祖 龜山祠 重建	77
祝 大耶文化祭	78
人性恢復	79
光陽地名 千七十一週年 紀念吟	80
讚 河東文物	81
祝 石亭 李殷斗 翁 八八 米壽	82
綠陰雅會	83
南北 頂上 共同聲明 紀念詩	84
方春和時 草木群生之物皆有以自樂	86
願 國泰民安	88
光顯堂	89
七月 百中 草邱雅集	93
先 祖考妣山所移葬後 述懷	96
梅城春眺	97
天下歸仁	98

聲討大聖侮辱 金經一	99
天安 五龍 秋色	101
金蘭 雅集	102
閒麗水道	104
七一年 四月 十五日 修德寺 觀光	105
七六年 九月 二十日 雪岳山 觀光	107
七七年 十月 十五日 濟州 觀光	108
新燕	109
三.一節	110
祝 鶴山齊 落成	111
鳥山 李起鳳先生의 白壽 晬日 慶祝	112
祝 在田 花族 在赫六一晬	113
原 韻 田在赫	114
丁巳 七月 既望 德崇山雅會	115
賀 土岩 金鍾文 典校 古稀宴	117
雲岡 李康年 先生 追慕	119
忠定公 芝峰 皇甫仁先生 堅碣 一	122
追慕 梅軒 尹義士	126
高峰 奇大升先生 道學 思想 擅揚	127
祝 廷圃 吳道泳 先生 米壽	128
態津懷古	129
洛城蘭亭(李承昌)雅會	130
祝 商務社宇 落成	132
乙丑大譜編修後 始祖祠宇創建	133
祝 主峰 稀壽	134
贈 서울菩提樹茶室女主人	135
祝 竹菴 晬韻 星州都聖燻先生	136
忠義救國	137

祝 雲谷 孟天述 教授 華甲	138
追慕 蘭阜 金笠(金炳淵)	140
前 朴勝萬 憲兵鑑 古稀筵	142
麥秋 甲戌 四月	143
願 國泰民安 甲戌 五月	144
漢陽遷都 六百年	145
德山鄉校 忠州湖 丹陽八景 觀光	148
論介貞烈	149
龍硯(栗谷先生 遺品)	151
文襄公不祧廟禮成	153
修德 六槐亭 金蘭雅會	154
梅軒 尹奉吉 忠義祠 重建	155
祝 南沙 田奉勳 八旬 紀念詩集 刊行	156
洪性烈 教授 甲筵	157
瀛州(濟州 吟 漢拏山景)	158
鏡浦湖	160
南里 李承昌 古稀	161
賀 清江 八旬	162
祝 蔡友南松 甲晬	164
重九有感	166
儒道振興	167
成均館 參拜	168
德山鄉校誌 刊行 自祝	169
祝 石亭庾東赫 回婚筵	173
頌 純齊任翁 回香	175
原韻 一	176
祝 鶴山齊 落成	177
原韻 後孫 金東賢	178

西峴祠 重建禮成	179
原韻 後孫 朴惠東	180
戲贈 梨花 女主人	181
祝 鶴峰 李秉翼 停年 退任	183
原韻 二	184
鎮南館 望海樓	185
村行	188
祝 安友泰 淳弧筵	189
金蘭雅會	191
無題 三	192
金蘭會 問候	194
偶題	195
追慕 梅軒 義舉六十周年紀念	196
沙平 古縣 秋色	197
祝 文民政府 出帆	200
忠義館落成	202
祝 天安發展	203
追慕 忠武公 誕辰	204
奇高峯先生 道學 擅揚	205
大興東軒舍 柱聯	206
祝 西野李寅燮翁 稀壽	207
儒林探勝	208
寒食	209
賀 石亭 李殷斗 稀壽	210
原韻 主人	211
清白吏 精神	213
夔嶺 次白居易先生 韻	214
讚 天安名物 巨峰 葡萄	215

德崇山 六槐亭會	216
南松傘壽 原韻	223
祝 南松傘壽	224
綠陰雅會	225
處世浮詩	228
金錢浮詩	229
南北同春	230
秋興	231
祝 菊軒 田興秀 金婚	232
德山溫泉 開發	233
鞦韆	234
城南雅會	235
祝 天安市 發展	238
追慕 王仁 先生	239
追慕 忠毅公 鄭起龍 將軍	240
祝 朴槿惠大統領 就任	241
白松 徐忠錫 美壽	242
忠義祠 創建 紀念	243
忠義館 落成	245
金蘭會 講信	247
梅軒成瑛濟壽筵	249
石亭	253
南北同春	254
梅軒 行跡	255
梅軒義舉 五十週年 紀念	257
禮德商務社 祠宇落成	259
忠義館 落成	261
寧城晚秋	269

鶴麓精舍	271
昭陽江 快龍船乘 述懷	273
綠陰會	274
鄉校 儒林 雪岳山 觀光	275
觀光 後日 和西野先生 原	276
洛江述懷	277
七旬 感懷	278
輓 丹山 族從 溶世	279
餞春	280
德山 八景	281
餞春會	282
春遊韻	287
卽日 落韻成詩	295
忠武公	303
祝 孝友之篤	305
贈 金蘭會	306
止岩 李公相泰 頌德	307
雪岳山 蓮花半開峯 頂上	308
春興	309
民俗 工藝品 展視會	311
忠義祠 前 覽物	313
秋分	314
憶 梅軒 丈夫 出家 生不還之句	316
輓 忍軒 李東翼 先生	321
輓 玉田 申公	328
輓 前 典校 延安金公玄基	332

文篇

山林進士 敬庵 方孝俊 先生 追慕碑銘	336
敬庵 方孝俊 先生 墓碑銘文	337
教學相長	338
烏山 李起鳳 先生 白壽 頌詩 辭	339
雲谷 孟天述先生 壽詞	341
廷圃 吳道泳先生 米壽 辭	343
寄別後菩提茶主人	345
事親	348
續金蘭契序	349
竹堂記	352
金蘭會 創立 趣旨書	354

德山 十景

1. 文廟絃誦 문묘현송

巍巍夫子廟 외외부자묘

聳出洞天中 용출동천중

萬世精禋地 만세정인지

繼開講誦風 계개강송풍

높고 높은 공자의 문묘여
우뚝하게 동천 중에 솟아 있도다.
영원토록 제사를 모시는 곳
강경하는 글소리 끊임이 없네.

2. 石門寒潭 석문한담

玉屏溪流潔 옥병계류결

石門潭水淸 석문담수청

先蹤雖未躡 선종수미섭

林壑遠關情 임학원관정

옥병계에 흐르는 깨끗한 물은
석문담의 솟는 샘 맑아서 일세.
선현의 학문을 따를 수 없어
멀리서 임학에만 관심을 두네.

3. 修德暮鍾 수덕모종

德崇山下寺 덕숭산하사

修德善名因 수덕선명인

塵念聞鍾拭 진념문종식

佛心警世人 불심경세인

덕숭산 아래 절이 있으니
수덕이란 그 이름 정말 좋아라.
세상시름 종소리에 모두 떨치니
불심이 모든 사람 깨우치누나.

4. 曉峰霽月 효봉제월

霽色澄天宇 제색징천우

一輪宛轉來 일륜완전래

捲簾無盡興 권렴무진흥

眞景眼前開 진경안전개

맑게 갠 고운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니
한 바퀴 둥근 달이 두둥실 떠 있구나.
발을 걷고 한없이 즐거운 흥은
진경이 내 눈 앞에 펼쳐 있도다.

5. 龍岫歸雲 용수귀운

草柳碧朦朧 초류벽몽롱

雲烟鎖遠空 운연쇄원공

飛來龍岫上 비래용수상

灑雨散輕風 쇤우산경풍

풀빛과 버들 빛이 푸르고 영롱한데
구름과 안개가 먼 하늘에 피어 오른다.
훨훨 날아 용봉산에 멈추어 있다가
비 뿌리며 실바람 타고 어디로 가나.

6. 溫井雲賓 온정운빈

天賜地球乳 천사지구유

廣恩德地開 광은덕지개

一來萬病治 일래만병치

輻輳雲賓回 량량운빈회

하늘이 지구 유를 내려 주시어
가히 없는 넓은 은혜 덕산 땅에 열려 있도다.
한 번만 왔다가도 모든 병 치유되니
줄을 이은 차량으로 구름같이 모여 오네.

7. 六槐淸風 육괴청풍

苦炎度日遲 고염도일지
槐蔭萬錢宜 괴음만전의
一陳淸風至 일진청풍지
三公不換時 삼공불환시

한여름 보내기 지루할 적에
육괴정 깊은 그늘 만금보다 중하여라.
맑은 바람 한줄기 불어 오면은
삼공이 부럽지 않은 상쾌한 기분.

8. 草堂看雪 초당간설

滿地雪華白 만지설화백
賞看坐草堂 상간좌초당
有誰同此樂 유수동차락
澗響接松長 간향접송장

온 누리 흰 눈이 덮여 있을 때
수덕사 초당에서 설경을 감상한다.
그 누가 이 즐거움을 함께 하려나
시냇물소리 솔바람과 어우러진다.

9. 玉溪漁火 옥계어화

烟波細雨天 연파세우천
達夜照燈船 달야조등선
浮世釣名客 부세조명객
簑衣空負肩 사의공부견

연기 낀 파도위에 가랑비 내리는데
밤을 새는 배 위에는 등불이 깜빡인다.
뜬 세상 명리만을 탐내는 객들
부질없는 도롱이가 양어깨에 걸쳐 있네.

10. 伽倻晚楓 가야만풍

霜楓紅紫秋 상풍홍자추
夕照被林流 석조피림류
坐愛眞風景 좌애진풍경
桃源不必求 도원불필구

울긋불긋 가을 단풍 곱기도 한데
그 위에 저녁 노을 덮여 흐르네.
앉아서 진풍경을 감상해보니
상상의 도원선경 동경할 필요가 없네.

鼎小鳥

憐伊鼎小鳥 연이정소조

夜夜近山人 야야근산인

不報年豐兆 불보년풍조

但憂鼎小隣 단우정소린

가연다 저 소쩍새여
밤마다 산사람만 가까이하네.
풍년들 조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소쩍은 이웃만 걱정하는가.

元旦 偶吟 己巳 新正

順天却忘貧 순천각망빈

知分心無貧 지분심무빈

風月於斯足 풍월어사족

豈爲取用貧 기위취용빈

자연에 순응하면 가난도 잊고
분수를 알아 가면 마음이 가난치 않아
풍월은 이속에 넉넉히 남아있으니
어이하여 취해 씬이 빈궁해질까

贈 禮山文化院長(李恒馥) 乙亥 二月

方山一老松 방산일노송

百歲養髯龍 백세양염용

霜雪冬天下 상설동천하

亭亭不改容 정정불개용

방산에 큰 한 늙은 소나무
백세토록 수염 긴 용을 길렀네.
눈서리 찬 겨울 하늘 아래에도
정정한 그 모양은 변하지 않네.

無題 一

人生作一念 인생작일념
天地悉皆知 천지실개지
善惡若無報 선악약무보
乾坤必有私 건곤필유사

인생이 한 생각을 지을 때마다
천지는 모두 다 알고 있겠지
만약에 선과 악의 보답이 없다면
하늘과 땅도 반드시 내가 있음이로다.

萬世 保寧 造型物 2010. 12. 23.

萬代榮華地 만대영화지

世新又世新 세신우세신

保民君子國 보민군자국

寧樂太平春 영락태평춘

만대의 영화를 누리는 고장
대로 새롭고 또 대로 새로워라.
온 백성들을 보호하는 군자의 나라
편안하고 즐거운 태평한 봄이로세.

德山郷校 典校 就任 述懷 戊寅~辛巳

만 3년간 취임

天降文宣王	천강문선왕
王恩萬世長	왕은만세장
長承洙泗教	장승수사교
教化魯鄒鄉	교화노추향
鄉禮嚴籩豆	향례엄변두
豆儀滿廟堂	두의만묘당
堂然堪校任	당연감교임
任使共儒場	임사공유장

하늘이 문선왕을 탄강하시니
문선왕의 은혜가 만세토록 장원해지기를
길이길이 수수와 사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노나라와 추나라의 고장으로 교화되기를
향교의 예의는 변과 두에 엄정하고
변두에 威儀는 廟堂 안에 충만하네.
당당하게 향교의 책무를 맡았으니
任과 使를 유림과 함께하는 장이로다.

- * 典校-향교의 책임자.
- * 文宣王-大成至聖文宣王 孔子를 지칭함.
- * 洙泗教-洙는 洙水이고 泗는 泗水인데 洙水 와 泗水가에서 孔子님이제자들에게 講學하였다하여 수사 교라 하는데 즉 儒學을 말함.
- * 魯鄒鄉-魯는 孔子님 出生地이고 鄒는 孟子님 出生地인데 孔孟之教를 말함.
- * 籩豆-祭器를 말하는데 籩은 대를 쪼개서 만든 그릇이고 豆는 나무를 파서 만든 제기이다. 문묘에서 쓰는 八變 八두를 말함.
- * 廟堂-향교 大成殿을 말함.
- * 任使-任賢使能의 줄인 말인데 임현은 현철한 분에게 책임을 맡기고 사능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사무를 맡기는 말.
- * 德山鄉校-충남 예산 덕산 사동에 위치한 향교.

戲贈 松心 襄媛菩提樹茶室主人 丙寅 一十一月

竹風松月下 죽풍송월하
賓主共歡深 빈주공환심
知己逢知己 지기봉지기
一心又一心 일심우일심
誼如師弟道 의여사제도
情亦水魚深 정역수어심
萍世偶緣重 평세우연중
丈夫快許心 장부쾌허심

대에 바람 솔에 뜬 달빛아래
빈과 주가 함께 하니 즐거움 깊어라.
지기가 지기를 만났으니
한마음 또 한마음일세.
정의는 사제 간에 도리와 같고
정 또한 물과 고기와 같네.
부평 같은 세상에 우연하게 인연이 중해
흔쾌하게 장부의 마음을 허락하노라.

松心 號記 贈

송심이라 호기를 지어줌

孔子 曰-歲寒然後에 知松柏之後凋라 하시니 此는
松有孤節하야 聖人이 取之시니
與子相言則 自有不染之氣像이라 故로 指松爲
號하여 稱松心이 不亦宜乎아
因作號而贈焉하노라

공자께서 말씀 하시기를 ‘해가 추운 연후에 송백이 뒤에 마른다’라고 하시었
으니 이는 송백은 고고한 절개가 있기 때문에 성인께서 취하신 것이다.
내 자네와 더불어 서로 담화를 나누어본즉 스스로 세태에 물들지 않은 기상
이 있는 자라 고로 송을 지목하여 호를 삼으려하니
松心이라 칭함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인하여 호사를 지어 주노라.

除夜謾吟 戊辰年 除夜

此夜感無窮	차야감무궁
又虛一歲同	우허일세동
自知耕讀樂	자지경독락
深造敬誠工	심조경성공
擠懣身將穩	제만신장은온
養神氣欲清	양신기욕청
檢看循環理	검간순환리
萬事在斯中	만사재사중

이날 밤 감회가 무궁하더니
또 한해를 헛되이 함께 하였네.
스스로 경·독의 즐거움을 알아
깊이깊이 경·성의 공부로 나아가리라.
번민을 몰아내니 내 몸도 편안하고
정신을 함양하니 기운도 맑아
순환의 진리를 검색해보니
모든 일이 이 속에 담겨 있구나.

愛竹愛誦

平生甚愛竹 평생심애죽
暑來獨自清 서래독자청
枝葉嘗無改 지엽상무개
特秀嚴霜中 특수엄상중
可醫士之俗 가의사지속
不與肉論功 불여육론공
昔人對此竹 석인대차죽
貞志自然生 정지자연생

평생 동안 깊이 대를 사랑해
더위가 와도 스스로 맑아있네.
가지와 잎은 일찍이 고침이 없고
특별하게 엄한 서리 속에도 빼어나도다.
가히 선비들의 비속함을 치료해 줄 수 있으니
통통하게 살찐 자와는 공을 논하지 않아
옛사람도 이 대를 상대하면
올 곧은 뜻이 자연히 생긴다 했지.

城南 金蘭會

湖客訪南城	호객방남성
燦然文會成	찬연문회성
氣長千岫色	기장천수색
胸活一江聲	흉활일강성
詩酒挑人興	시주도인흥
金蘭稀世情	금란희세정
德隣相結社	덕린상결사
學問托平生	학문탁평생

호향의 손님이 성남을 찾으니
찬란하게 문회를 이루었네.
기운은 천길 산 빛처럼 길고
가슴은 큰 강물 소리처럼 활발하네.
시와 술은 사람에 흥치를 돋게 하고
금난에 친우들은 세상에 드문 우정일세.
덕 있는 이웃으로 서로 두레를 맺고
학문으로 평생을 의탁하노라.

流頭日與儒林共賞綠陰 戊寅 六月

焚香聖廟後 분향성묘후
臨渚玉溪川 임저옥계천
節屆流頭日 절계류두일
時方盛夏天 시방성하천
詠詩綠樹下 영시녹수하
勸酒玄岩邊 권주현암변
遠近儒林會 원근유림회
歡情談笑筵 환정담소연

성묘에 분향한 뒤에
물가인 옥계천에 다들 모였네.
절후는 오늘이 유두일이요
때는 무더운 여름이구려.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시를 읊고요
거무레한 바위 가에 술도 권한다.
원근에 유림들이 다 모였으니
기쁘게 정 나누고 담소하는 넓은 자리라.

贈 荷塘 朴炳夏 號韻

荷出淤泥中	하출어이중
塘臨灑爽風	당임쇄상풍
朴溫皆得理	박온개득리
炳朗白兼紅	병랑백겸홍
夏日香清遠	하일향청원
雅懷可暢空	아회가창공
正然堪翫賞	정연감완상
號曰花之崧	호왈화지송

연꽃은 진흙에서 나오지만
연당에 임해보니 시원한 바람이 이네.
소박하고 온화하니 다 진리를 터득했고
빛이 나고 명랑하니 희기도 하고 붉기도 해라.
여름날 그 향기는 맑고도 멀리 나가니
청아한 회포를 하늘 향해 펴고 싶네.
올바르게 구경하고 즐기면서
꽃 중에 높은 격을 취해 號를 짓노라.

春日思時

百花開次第 백화개차제
春事未暫閒 춘사미잠한
好雨知時至 호우지시지
番風逐日還 번풍축일환
酒車揚子宅 주차양자택
蠟屐謝公山 납극사공산
不有尋芳去 불유심방거
何緣啓竹關 하연계죽관

온갖 꽃 차례로 피니
봄의 일 잠시도 틈나지 않네.
좋은 비는 제때를 맞추어오고
24번 풍은 날을 쫓아 돌아오네.
양자의 정원에는 술 실은 수래요
사공의 후원에는 밀 먹인 목신이라.
꽃다움 찾아가는 걸음 없다면
무슨 연이 대사립을 열게 하려나.

贈 粹月

篤工卯酉忙	독공묘유망
勤苦堪何忘	근고감하망
文欲前人逐	문욕전인축
名傳後日香	명전후일향
藝精山水畫	예정산수화
德慕師任堂	덕모사임당
粹月淸純號	수월청순호
平生做道方	평생주도방

공부에 돈독하여 동서로 바쁜 중에
주야로 근고함을 잊을까마는
문장은 옛사람을 따르려 하고
명성은 후일에도 향내를 남길까 하오.
재주는 산수화에 정진해보고
덕의는 사임당을 사모한다오.
수월이란 청순한 호를 지어서
평생 가야할 길 만들었다네.

金烏山

楓菊正佳天 풍국정가천

會同翰墨緣 회동한묵연

千金今日樂 천금금일락

詩酒詠歌筵 시주영가연

단풍과 국화꽃 정히 아름다운 때
한묵의 인연이 함께 모였네.
천금같이 오늘을 즐기면서
시와 술로 읊고 노래하는 자리일세.

又

白日快晴天 백일쾌청천

金鳥探景緣 금오탐경연

師友同心會 사우동심회

不知夕氣筵 불지석기연

백일이 쾌청한 하늘

금오산을 탐경하는 인연이라.

사우가 같은 마음으로 모였으니

해가 저무는 줄도 알지 못했네.

2012년 10월31일 師弟가 함께한 금오산에서

諸益 訪 青陽 一滴 劉永旭 築別業

尋子山程去	심자산정거
爽風步步生	상풍보보생
眼餘青岫色	안여청수색
耳慣詠詩聲	이관영시성
地僻人行少	지벽인행소
洞深鳥語清	동심조어청
偶然諸益友	우연제익우
藉草說閒情	자초설한정

그대 찾아 산길을 걸어가는데
상쾌한 바람이 걸음마다 생기는도다.
눈에는 푸른 산 빛이 담기어 있고
귀에는 영시하는 소리가 익숙하구나.
땅이 궁벽하니 사람들 오고 가는 것이 적고
동네가 깊숙하니 새소리가 맑게 들린다.
우연히 여러 벗들과 인연이 되어
풀 자리를 깔고 한가로운 정을 말하네.

主人

鵲鳴庭畔樹	작명정반수
喜報一山生	희보일산생
榻設榭權彩	탑설사롱채
賓來車馬聲	빈래차마성
松篁能助韻	송황능조운
林樾倍新淸	림월배신청
師友同歡席	사우동환석
論交深許情	논교심허정

까치가 뜰가 나무에서 울어대더니
희소식을 알리는 소리 온 산에 퍼져 나온다.
자리를 설치하니 한 집안이 채색이 나고
손님들 찾아오니 거마소리 울리네.
소나무에서 나오는 생황소리는 능히 시운을 도와주고
짙은 숲 푸른 그늘은 배나 더 청신하여라.
스승과 친우가 함께 즐기는 자리에
교분을 나누면서 깊은 정을 허락해본다.

主人 - 一滴 劉永旭

又

問君多意緒 문군다의서
朝出夕陽歸 조출석양귀
松籟風前急 송뇌풍전급
樹陰霧裡肥 수음무리비
看山靑入戶 간산청입호
坐石涼侵衣 좌석량침의
在在皆淸適 재재개청적
何論俗事非 하논속사비

문노니 그대는 생각이 많아
아침에 나갔다 저녁때 돌아오지.
소나무에 나는 소리 바람 앞에 급해지고
나무그늘 안개 속에 더욱 짙으네.
산을 보니 푸름이 문에 들고
돌에 앉았더니 시원함이 옷에 묻었네.
있을수록 모두 다 맑고 맞으니
어떻게 비속한일 논할 수 있나.

蕙汀 朴順道

又

學道賢希聖 학도현희성

工詩妙入神 공시묘입신

時來成志業 시래성지업

龍躍是雲津 용약시운진

도를 배우면 현희성을 바라보고
시를 공부하면 묘한 뜻이 신에 든다네.
때가 오면 뜻한 업을 이루게 되니
이곳이 용이 뜨는 雲津이라네.

一水 姜尤馨

又

日永山又靜 일영산우정
山家半夢中 산가반몽중
庭心雲白白 정심운자백
窓畔夕照紅 창반석조홍
胸闊千江水 흉활천강수
氣長八字風 기장팔우풍
座間無俗事 좌간무속사
仙境暗相通 선경암상통

해가 길고 산 또한 고요하니
깊은 산에 집은 반은 꿈속이로다.
뜨락 중심에는 구름이 저절로 희고
창가에 저녁 노을이 붉게 비추네.
가슴이 넓으니 천강에 물결 같고
기운이 장대하니 온 세상에 바람이로다.
이 좌중에 속세의 일 없으니
선경과 슬며시 통하는구나.

月齊 崔俊謨

又

鷺飛江意活 로비강의활

鶴立雪精神 학립설정신

迷路得吾駕 미로득오가

不須問苦津 불수문고진

갈매기 나니 강물에 뜻이 활발하고
학이 서 있으니 하얀 눈에 정신이로다.
희미한 길에서 나의 갈 길을 얻었으니
모름지기 괴로운 나루터를 묻지 않으리.

松原 柳玉順

又

歲華不我與 세화불아여
書裡費多冬 서리비다동
境邃村容古 경수촌용고
天蒸雨意重 천증우의중
向人琴調滑 향인금조골
閱世酒情濃 열세주정농
得句占雲水 득구점운수
時來利見龍 시래이견용

세월이 나에게 덤 주지 않아
책 속에서 많은 겨울 허송하였네.
지세가 깊숙하니 마을 모양이 옛스럽고
하늘이 찌는 듯하니 비의 뜻이 거듭 되누나.
사람을 향한 거문고는 그 곡조가 매끄럽고
세상을 열역한 술잔에는 그 맛이 짙도다.
시구를 얻어 구름과 물을 잡으면
때가 오면 이롭게 용을 보리라.

牧仁 白貞林

又

看書明月榻 간서명월탑

迎客綠陰隣 영객녹음린

詩作韻無俗 시작운무속

酒濃味不辛 주농미불신

서책을 달 밝은 책상에서 보고
손님들을 녹음 짙은 마을에서 맞이하리라.
시를 짓는데 운에는 아무런 속됨이 없고
술이 잘 익어가니 그 맛이 쓰지 않다.

蘭亭 李順雨

又

得得前程好 득득전정호
平生有若人 평생유약인
今年湖海士 금년호해사
明日聖朝臣 명일성조신
大讀三千卷 대독삼천권
纔過五十春 재과오십춘
天心知有意 천심지유의
事物並芳新 사물병방신

득득한 앞길이 좋고
평생에 이런 사람 또 있을까
금년에는 호해에 선비였는데
명일에는 중앙에 명인이라네.
3천권에 서책을 다 읽으니
아마도 50년이 지난 나이라.
하늘도 나의 뜻을 알고 계신지
사물들이 아울러 꽃답고 새로워진다.

硯汀 張吉玉

又

來益長文會 래익장문회

一生喜德隣 일생희덕린

相隨吾與子 상수오여자

同閱甘而辛 동열감이신

올수록 길게 글로 모여서
한평생을 덕 있는 이웃 기뻐했노라.
서로 서로 따르는 나와 또 그대
언제나 달고 씁을 함께 하리라.

蕙雲 方玉子

雪天 講蘭

有朋自遠尋 유봉자원심
出路柏森森 출로백삼삼
相逢迎倒屣 상봉영도사
對坐德流音 대좌덕류음
義合謀成事 의합모성사
情通每許心 정통매허심
又今詩酒樂 우금시주락
日暮惜分襟 일모석분금

멀리서 찾아오는 벗이 있어
나서는 길 뺨뺨한 잣나무 숲
신을 거꾸로 신고 맞이하여
마주 앉으니 덕담이 흐르네.
의를 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정을 통하면 또 마음도 통해진다오.
오늘 또 시와 술로 즐겨하는데
해가 저무니 작별하기 크게 아쉽네.

南里

又

雪程步步尋	설정보보심
蘭合已森森	난합이삼삼
香吐揚梅岳	향토양매악
鳥啼報好音	조제보호음
講修治鼠夢	강수치서몽
策在牧牛心	책재목우심
樽前空憶友	준전공억우
流淚共霑襟	류루공점금

눈길을 걷고 걸어 찾아왔는데
금란 친구 벌써부터 뻑뻑이 모여있네.
매화는 향기 토해 산위까지 드날리고
새들은 지저귀며 好音리라 알리는군.
임자년에 꿈들은 닦아 보내고
대책 있는 계축년은 좋은 해로다.
술잔 앞에 부질없이 친구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적시네.

南松

隔年詩酒徒勞夢 격년시주도노몽

今日蘭亭相吐心 금일란정상토심

격년한 시주는 한갓 꿈에서 수고롭더니
오늘 난초 정자위에서 서로들 진정을 토론 하는군.

雲 谷

綠陰會

君西我赴東 군서아부동
儒會檜林同 유희회림동
道在千秋月 도재천추월
仁爲万世風 인위만세풍
花看芳草裡 화간방초리
鶯聽綠陰中 앵청녹음중
詩酒相兼樂 시주상겸락
終時興不空 종시흥불공

그대는 서에서 나는 동에서 왔는데
선비 모임을 행단에서 가졌도다.
도는 천추에 달과 같이 존재하고
인은 만세에 바람과 같도다.
꽃을 꽃다운 풀 가운데서 보고
피꼬리 소리를 녹음 속에서 듣네.
시와 술을 겸하여 즐거워 하니
끝끝내 흥치가 비지 않도다.

賀 鄭成謨 甲宴 贈韻 丙子 仲秋

壽鄉楓菊天 수향풍국천
百福一門全 백복일문전
火棗懷中落 화조회중락
冰桃盤上圓 빙도반상원
左琴右瑟樂 좌금우슬락
子葉孫枝連 자엽손지연
耕讀修身士 경독수신사
自然善慶緣 자연선경연

수를 누리는 시골 단풍 국화도 아름다운데
온갖 복이 한 문중에 가득하도다.
불에 구운 대추알은 품속에 떨어지고
얼음 같은 복사열매 소반위에 담겨있네.
좌금우실 내외분은 즐거워하고
자엽손지 많은 자손 계속 이어있구려.
주경야독으로 수신한 선비였으니
자연한 선경이 연하여 오리.

祝 忍軒翁 八句

人生此世中 인생차세중
福履孰如公 복리숙여공
詩禮傳家業 시례전가업
康寧得壽翁 강녕득수옹
賓朋爭祝賀 빈봉쟁축하
和氣滿春風 화기만춘풍
寶樹庭前旭 보수정전욱
清香永不窮 청향영불궁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록이 그 누가 공과 같을까
시와 예로 가업을 전해왔고
강녕하며 장수 얻은翁이십니다.
빈봉들 많이 모여 다투어 축하하고
화한기운 봄바람이 집안 가득하네.
훌륭한 자손들은 뜰 앞에 빛나고
맑은 향기 영원토록 궁함 없으리.

其 二

如仙如佛八旬翁 여선여불팔순옹
八甲生朝設宴豊 팔갑생조설연풍
祝賀賓朋多會席 축하빈붕다회석
滿堂和氣動春風 만당화기동춘풍

신선 같고 부처 같은 팔순옹인데
팔순에 생일 아침상 풍성하도다.
축하하는 빈붕들 많이 모여서
만당한 화한 기운 봄바람이 움직이네.

惜別 癸酉 12월 田鎰珣副郡守 贈

田侯辭簪去 전후사잠거
天寒歲暮時 천한세모시
雁飛蒼海闊 안비창해활
江送一帆遲 강송일범지
把酒談淸德 파주담청덕
贈詩問後期 증시문후기
東峰如見月 동봉여견월
應有各相思 응유각상사

부군수 田侯께서 정년하고 떠나가니
하늘이 차가운 세모의 때이로다.
기러기 날라 간 푸른 바다 넓어 보이고
강 떠난 돛단배 느리고 더디구나.
술잔을 들고 그간의 淸德을 이야기하며
詩를 주고 훗날의 기약을 물어도 본다.
동봉에 만일 달이 뜨거든
아마도 각각 서로 생각남이 있으리로다.

退任感吟 郷校典校

月白風清近清秋 월백풍청근청추

飄然解任稔實秋 표연해임임실추

三年籠鳥思飛日 삼년롱조사비일

櫪上驂騮自放秋 력상화류자방추

달은 밝고 바람 맑은 초가을에서
표연히 떠나니 열매 익는 늦가을이라.
3년 동안 장롱에 갇힌 새가 날려하는 날이 되고
마판위에 매인 준마 자방하는 때이로다.

戲贈 松心

愛憐床畔傲霜菊 애련상반오상국
那爾晚秋自笑開 나이만추자소개
陶潛去後今無愛 도잠거후금무애
汝固何心我獨哀 여고하심아독애

상가에 핀 오상국을 사랑하노니
너는 어이하여 늦가을에 홀로 웃느냐.
도연명이 가신 후엔 지금까지 사랑하는 이 없었으니
너는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나 홀로 서러워하노라.

答

竹有淸風松有月 죽유청풍송유월
詩多雅韻言多情 시다아운언다정
莫言傍樹無恩義 막언방수무은의
夢竹一竿遠慰情 몽죽일간원위정

대에는 청풍 있고 솔에는 달 있는데
시에에는 청아한 운치 많고 말에는 정도 많네요.
옆 나무들 은의 없다 말하지 마오.
꿈속에 한 대님이 멀리서 나의 정을 위로하는 듯

七旬 生朝 偶吟

劬恩深重平生好 구은심중평생호

況是田園景自奇 황시전원경자기

滿架詩書梅竹下 만가시서매죽하

無愁我欲老於斯 무수아욕노어사

수고하신 그 은혜가 깊고 중하여 이 몸 평생토록 좋게 지내니
하물며 이 전원에 경개도 기이하다.

만가한 詩書에다 매화 대 아래

아무런 근심 없이 이런데서 늙고 싶은 나.

贈 金川寺 主人

白雲溪畔創仁寺 백운계반창인사
三十年來住此持 삼십년래주차지
笑指門前一條路 소지문전일조로
纔離山下有萬歧 재리산하유만기

백운 시냇가에 인사를 창립하니
30년 계속하여 이절에 주지 되었네.
웃으며 문 앞에 한길만 가르쳤는데
겨우 떠나 산 아래로 내려가니 천 갈래 만 갈래 길이 있네.

晦庵書院 創建 錄翻譯後次先正韻而題簡尾

회암서원창건록을 번역한 후 선정의 운을 차하여 간미에 부쳐씀

欲識晦庵舊洞天 욕식회암구동천

地名偶合武夷川 지명우합무이천

遺墟水沒人千古 유허수몰인천고

猶待羊存禮復年 유대양존례복년

회암 선생 구동천을 알고자 하니
지명이 우연하게 무이 천과 부합하네.
유허는 수몰되고 인물은 다 갔으니
그래도 羊이 있어야 禮가 회복되기를 기대해본다.

- * 晦菴書院-봉산면 봉림리에 있었는데 대원군 때 회철 되었음.
- * 晦庵-송나라 때 朱文公 朱子선생의 호이다.
- * 武夷川-옛날 南宋때 晦庵 朱子先生이 사시던 곳에 무이천이 있는데 봉산에도 주자가 살던 곳과 똑같은 곳이 많아서 숙종때 金鎭圭 判書가 봉산으로 귀양 왔을 때 이곳에다 회암서원을 창건하였다.
- * 羊存禮復-羊이라도 있어야 禮가 회복된다는 말인데 춘추시대 공자의 제자 자공이 餽羊을 없애려하니 공자께서 너는 양을 아끼는가? 나는 예를 아낀다는 뜻에서 나온 말.
- * 餽羊-매월 초하루에 태묘에 바치는 희양인데 그 양을 없애면 태묘에 올리는 예도 없어질 것이니 공자께서 훈계하시기를 양이라도 있어야 禮가 회복되지 않겠느냐하고 나무라신 古事.

與文化院諸益航空機內觀天有感 癸酉

1993.11.23. 오후 5시 10분

航空搭乘瞰長空 항공탑승감장공

下界雲波上界紅 하계운파상계홍

機內閒談新科學 기내한담신과학

不知身在碧穹中 부지신재벽궁중

항공기를 탑승하고 창공을 내려보니
하계는 운해인데 상계는 석양이 붉어
기내에서 과학의 새로움을 담화하면서
몸이 푸른 하늘 한가운데 떠있음을 모르고 있네.

勤學誦詩

泰岳雖尊是亦山 태악수존시역산
登登而已有何難 등등이이유하난
世人不作心身勞 세인불작심신노
只謂峰高不可攀 지위봉고불가반

태산이 비록 높다하나 또한 산이려니
오르고 또 오르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노력은 하지 않고
다만 산이 높아 오를 수 없다 말하는구나.

古詩

農夫吟

帶雨鋤禾伏畝中 대우서화복묘중
形容醜黑豈人容 형용추흑기인용
佳人才子休輕侮 가인재자휴경모
富貴豪奢出自農 부귀호사출자농

비 맞으며 논 매느라 두렁 사이 엎드리니
형용이 추흑하니 사람 같다 하겠는가
가인과 재자들아 너무 얕보지 마라
호사한 부귀라도 농사에서 나온다고.

古詩

無題 二

光明天地又神明 광명천지우신명
格物致知誠正中 격물치지성정중
心涵宇宙浩然氣 심함우주호연기
志包乾坤造化精 지포건곤조화정

광명한 천지에 또 신명도 밝아
격물·치지·성의·정심 함이라.
마음은 우주 호연한 기운에 젖었고
뜻은 건곤 조화의 정공에 쌓여 있노라.

1994甲戌年 生朝述懷

1934~1994 주갑 생일에 소감을 표하다

昔年弧日復昇東	석년호일부승동
百感交叉似夢中	백감교차사몽중
身被蓼詩恩罔極	신피요시은망극
恨餘風樹慕無窮	한여풍수모무궁
悔吾失學違親志	회오실학위친지
責自添羞不孝躬	책자첨수불효궁
幸有佳賓臨此席	행유가빈임차석
渾成和氣慰孤情	혼성화기위고정

옛날 생일에 해가 다시 동쪽 하늘에 떠오르니
백감이 교차하며 꿈속과 같네.
이몸은 蓼詩에 말한 망극한 부모의 은혜를 입었고
한은 風樹에 남아 사모함이 끝이 없도다.
나는 학문을 못하여 아버지의 뜻에 어긋남을 후회하고
부끄럼을 더하는 불효의 몸임을 자책하노라.
다행이도 가빈들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혼성한 화기가 나의 외로운 정을 위로해주네.

- * 弧日-생일의 별칭
- * 蓼詩-'시경 소아 옥아편 詩經 小雅 蓼莪篇'
 - 父兮生我(부혜생아)-아버지는 날 낳아 나를 있게 하셨고
 - 母兮鞠我(모혜국아)-어머니는 고생하며 키워 주셨지
 - 哀哀父母(애애부모)-애처롭다 우리 부모
 - 生我劬勞(생아구노)-생아구노 나를 낳아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다.
 - 欲報之德(욕보지덕)-크나큰 그 은덕 갚으려 해도
 - 昊天罔極(호천망극)-아버이의 은혜가 넓고 큰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다.
- * 風樹-송강 정철선생의 훈민가 中 일부
 -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나무는 고요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코져 하오나 아버이는 기다려 주지를 앓는구려
- * 佳賓-덕이 높고 학문이 넓은 손님

祝 示範鄉校 選定 慶南 南海鄉校

시범 향교로 선정된 경남 남해향교을 축하함

勝區南海自何年 승구남해자하년
山水清奇多哲賢 산수청기다철현
廟貌巍巍籩豆潔 묘모외외변두결
神明燁燁苾芬緣 신명엽엽필분연
淵源正學常時習 연원정학상시습
晦塞斯文復粲然 회새사문부찬연
更祝貴鄉示範選 경축귀향시범선
願儒風作万方傳 원유풍작만방전

승구의 남해가 어느 해부터인가
산과 물이 청기 하여 철인과 현인 많네.
聖廟의 모양이 높고 높아 제기가 깨끗하고
신명은 밝고 밝아 향불 연기 이어지네.
연원 깊은 바른 도학 언제나 익혀지니
어둡게 막혔던 사문이 다시 또 빛이 난다.
남해 향교가 시범향교로 선정됨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원하노니 儒風이 크게 일어 만방에 전하기를

- * 廟貌-남해향교 대성전의 모습
- * 籩豆-祭器인데 籩은 대를 엮어 만든 제기이고 豆는 나무를 파서 만든 제기이다.
- * 儒風-선비들의 풍모와 위의

讚 義岩 殉國精神 의암 논개님의 순국 정신을 찬양하다

投身殉國又成仁 투신순국우성인
 士婦猶難况妓人 사부유난황기인
 忍恥含盃傾半夜 인치함배경반야
 効忠決死警千隣 효충결사경천린
 堂堂毅魄年加旭 당당의백년가욱
 烈烈晶魂歲久新 열열정혼세구신
 萬古義娘論介字 만고의낭논개자
 流芳百世度長春 류방백세도장춘

투신하여 순국하고 또 살신성인하니
 사부 집 부인도 오히려 어려운 일 하물며 기생일까
 치욕을 참아가며 밤새워 술 마시며 술 따르고
 충심을 다 바치고 죽기를 결심하여 천만 이웃 경계하네.
 당당한 굳센 녀은 해가 더할수록 빛이 나고
 열렬한 맑은 혼은 세월이 오랠수록 새롭구나.
 만고에 의로운 낭자 논개라는 그 명자는
 꽃다움이 백세토록 흘러흘러 언제나 봄이로세.

- * 成仁-殺身成仁을 말함
- * 毅魄-굳세고 강한 녀
- * 晶魂-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영혼
- * 效忠-충성을 받침

雪梅 눈속에 핀 설중 매화

白蘂同開白雪辰 백예동개백설신
其姿其色勝於春 기자기색승어춘
瓊枝無月能生影 경지무월능생영
冰骨有香自襲人 빙골유향자습인
親對暫忘牽世態 친대잠망견세태
情看堪抑動詩神 정간감억동시신
四君子處今何歲 사군자처금하세
花譜千篇第一新 화보천편제일신

하얀 꽃술이 하얀 눈이 내릴 때 피어나니
그 자태와 그 빛깔이 봄보다 훨씬 낫네.
구슬가지는 달빛이 없어도 그림자를 형성하고
매화나무는 향기가 있어 스스로 사람에게 엄습하네.
친절하게 상대하니 잠시 세태에 이끌림을 잊겠구요
다정하게 감상하면 詩神이 요동함을 억제하네.
사군자로 자리한지 지금 몇 해나 됐나
꽃 족보 千篇中에 제일로 새로워라.

* 瓊枝-설매가 활짝 핀 매화가지의 별칭
* 世態-온 세상의 변태
* 花譜-각종 꽃들의 모양을 모은책

* 冰骨-매화나무 줄기의 별칭
* 四君子-梅 蘭 菊 竹

追慕 李忠武舜臣 이충무공 이순신장군을 추모함

文武全才卓我東 문무전재탁아동
古今戰史莫公同 고금전사막공동
夜深海閣照弓月 야심해각조궁월
雁叫霜天吹刃風 안규상천취인풍
榮落悲歡思惟國 영락비환사유국
死生節義計何功 사생절의계하공
陵雲千載扶陽脈 능운천재부양맥
長使臣民慕不窮 장사신민모불궁

문재와 무재가 우리 동방에 제일인데
고금의 전사를 다보아도 공과 같으니 없네.
밤이 깊은 해각에 활에 빛인 달빛이요
기러기 울고 가는 차가운 하늘아래 칼바람 불어온다.
榮, 落, 悲, 歡에 생각은 오직 나라뿐이요
死, 生, 節, 義일 뿐이니 무슨 공을 계산할까
높으신 뜻 천년에 陽脈을 붙잡았으니
길이 신하와 백성으로 하여금 추모함 끝이 없도다.

* 文武-文才와 武才

* 陵雲-세속 밖에 초연한 뜻

三隱 先祖 龜山祠 重建 埜隱, 耒隱, 耕隱

先蔭後誠集此鄉 선음후성집차향
舊墟重構一新堂 구허중구일신당
銀河精彩龜山耀 은하정채귀산요
潔地鮮明廟宇光 결지선명묘우광
敬學孝仁傳世篤 경학효인전세독
仰思忠義繼家長 앙사충의계가장
盈門花樹共絃誦 영문화수공현송
恩大如天無盡陽 은대여천무진양

선조님의 음덕과 후손들의 정성이 이 고장에 집중되어
옛터에 또다시 일신하게 사당을 지었도다.
은하에 맑은 채색 구산사에 비쳐있고
결성 땅이 선명하니 廟宇가 빛나네.
孝와 仁을 敬學하여 世를 전해 돈독하고
忠과 義를 받들어서 家를 이어 길이길이 전하리라.
문에 가득 후손들이 다 같이 강독하니
하늘같은 그 은혜가 무궁한 태양이라.

- * 銀河, 潔地-地名
- * 花樹-일가 후손을 말함
- * 絃誦-현악을 타면서 講讀함을 말함

祝 大耶文化祭 대야 문화제를 축하함

祝祭大耶文化東 축제대야문화동
官民讚賀一心同 관민찬하일심동
滿場舞蹈衆家樂 만장무도중가락
成市吟歌多士功 성시음가다사공
道德精神千世월 도덕정신천세월
綱常義理萬春風 강상의리만춘풍
吁斯物學誰能識 우사물학수능식
水水山山永不窮 수수산산영불궁

대야 문화제가 동방에 개최함을 축하하며
관과 민이 일심으로 찬양을 함께하네.
만장한 무도는 여러 집이 즐거워하고
장을 이뤄 읊고 노래하니 여러 사람 공이로다.
도덕에 정신은 천세에 달빛이요
강상과 의리는 만대의 봄바람이로다.
아~ 이러한 물 학은 누가 능히 기억할까
물은 물이 되고 산은 산이 되어 영원무궁하리라.

- * 大耶文化祭-경상도 합천지방의 문화제를 말함.
- * 水水 山山-經經 緯緯 君君 臣臣 父父 子子와 같은 의미.

人性恢復 인성회복

孝仁風起自明倫 효인풍기자명륜
彝性宣揚導萬民 이성선양도만민
道德精神須守發 도덕정신수수발
綱常義理必修新 강상의리필수신
衣冠濟濟皆生色 의관제제개생색
禮樂彬彬豈染塵 예악빈빈기염진
寄語政街尊座下 기어정가존좌하
願知本立末隨伸 원지본립말수신

효와 인의 풍토를 일으키면 인륜은 스스로 밝아지며
착한 본성 선양하여 만민을 인도하네.
도덕의 정신은 모름지기 지켜야 발양하고
강상과 의리는 반드시 닦아야 새로워지는 것
의관이 제제하면 모두다 빛이 나고
예악이 밝으면 어찌 세태에 오염될까
정가의 높은 분께 한 말씀 붙이오니
원하옵건데 근본이 바로 서면 끝은 따라서 퍼지네.

- * 濟濟-才德을 겸비하여 엄숙하고 신중한 모양
- * 禮樂-예도와 음악
- * 彬彬-文과 質이 함께 찬란한 모양

光陽地名千七十一週年 紀念吟

歲千七一地光明 세천칠일지광명
言實相符大幹長 언실상부대간장
山關湖南名勝域 산벽호남명승역
海開閒麗武陵場 해개한려무능장
鐵鋼富産民安業 철강부산민안업
文物更新德化章 문물경신덕화장
十五萬人增口日 십오만인증구일
滿衢烟月太平康 만구연월태평강

광명이란 지명을 얻은지 一천七十一년이 되었는데
말과 실재가 서로 부합하여 큰 줄거리가 길게 뻗어있네.
산세는 호남 명승지를 열어 놓았고
바다는 한려수도 무릉도원의 장을 펼쳐 놓은 듯
철강 산업 풍부하니 백성들 생업이 편안하고
문물이 경신하니 덕화의 장이 빛나도다.
15만 인구로 증가 되는 날
태평한 강구에 연월이 가득하네.

* 滿衢烟月-太平天地康衢烟月이란 말이 있는데 唐虞時代 王이 정치를 잘하
여 백성들이 太平한 천지강구의 연월 속에 평화롭게 잘살고 있
다는 것을 謳歌인 것이다.

讚 河東文物 하동 문물을 찬하 함

文物河東最嶺南 문물하동최령남
蒼松蔚蔚白沙潭 창송울울백사담
長江烟月新光接 장강연월신광접
百里溪山古跡探 백리계산고적탐
智理千尋凝夕霧 지리천심응석무
蟾津万頃散朝嵐 섬진만경산조남
多般景色盡收樂 다반경색진수락
舉酒論詩豪氣含 거주논시호기함

하동 문물은 영남에서 최고인데
푸르른 소나무 숲이 백사담에 무성하네.
긴 강에 구름과 달은 새 빛을 접해 있고
백리에 연한 시내와 산기슭에서 고적을 탐사하네.
지리산은 천길인데 저녁 안개 엉겨 있고
섬진강은 만경인데 아침 아지랑이 흩어진다.
다양한 경색들을 다 거두어 즐기면서
술잔 들고 詩를 論하니 호기가 담기었어라.

祝 石亭 李殷斗 翁 八八 米壽

석정 이은두 옹의 88미수를 축하함

鐵花爭發石亭東	철화쟁발석정동
疑是三清在此中	의시삼청재차중
自悅金蘭文以會	자열금란문이회
愛看松竹氣無窮	애간송죽기무궁
蓬桑初志德圓士	봉상초지덕원사
詩酒娛情豪放翁	시주오정호방옹
更祝仁人長壽席	경축인인장수석
超然一鶴任飛躬	초연일학임비궁

쇠 꽃이 다투어 피는 石亭 동쪽에
 의심 켜데 여기 三清宮이 이속에 있는 듯
 금란회가 글로써 모여짐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松竹의 기운이 무궁함을 어여뻐 살피어보네.
 어렸을 때에 初志를 이뤘으니 덕이 원만한 선비요
 詩와 酒로 뜻대로 즐겼으니 호방한 翁이로다.
 다시 한 번 축하하는 人仁의 장수 석에
 초연한 백학처럼 任飛하는 몸이로다.

- * 鐵花-鐵樹開花인데 쇠의 나무에 꽃이 핀다는 뜻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어
 려움을 비유하는 말인데 轉하여 어려운 일을 이루었다는 뜻
- * 三清宮-신선들이 모여 노는 집 * 金蘭會-의기투합한 모임의 명칭
- * 一鶴-고고한 학의 모습

綠陰雅會 녹음아회

萬樹軟濃是綠陰 만수연농시녹음
謀諸新釀豈無吟 모제신양기무음
鶯語斜陽芳草霽 연어사양방초제
鶯歌四月碧山深 앵가사월벽산심
岩花更看知梅蘂 암화경간지매예
野鶴非奇揔澗禽 야학비기홀간금
於我疎狂君莫笑 어아소광군막소
老年猶有少年心 노년유유소년심

온 나무 무르녹는 이때가 녹음인데
새로 빚은 술 있으니 어찌 詩 한수 없을소냐.
제비들 지저귀는 저녁때에는 방초가 질푸르고
피꼬리 노래하는 四月에는 푸른 산 그윽하네.
바위 꽃 다시 보니 매화의 떨기임을 알 수 있고
들판에 노는 학이 기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시내의 새로구나.
나의 소광함을 그대는 비웃지 마소
老年에도 오히려 少年心이 있는 것을

- * 雅會-清雅한 선비들의 모임
- * 岩花-바위 사이에 핀 꽃
- * 疎狂-言行이 너무 거칠어 常規에 맞지 않음

南北 頂上 共同聲明紀念詩 庚辰年 金大中, 金正日

남북정상 공동성명 기념시 경진년 김대중대통령과 북 김정일 국방 위원장

伸五十餘隔歲春 신오십여격세춘
春和無處不鮮新 춘화무처불선신
新開天地權花域 신개천지근화역
域罷封疆兵馬塵 역파봉강병마진
塵豈敢紛圓滿道 진기감분원만도
道能大作治平人 도능대작치평인
人安國泰生涯樂 인안국태생애락
樂土歌高氣自伸 락토가고기자신

50여년 막혔던 봄별이 다시 퍼지니
봄바람 화한기운 신선하지 않은 곳 없네.
새로움이 열린 천지 무궁화 동산이요
지역마다 경계선 깨뜨리면 군사의 전진도 없어지지.
전진이 어떻게 원만한 도덕을 어지럽힐 수 있으며
원만한 도덕만이 큰 천하를 다스리는 인물이 된다네.
인민이 편안하고 나라가 태평해야 생활이 즐거워져
락토에 노래 소리 높아지며 기운이 저절로 퍼지나니.

* 權花域-韓國全域을 지칭

* 封疆-국경의 경계선을 말함 즉 三八線을 지칭함

其 二

南山花木摠佳春 남산화목총가춘
北郭寒松保色新 북곽한송보색신
頂發榮時身發榮 정발찬시신발찬
上無塵日下無塵 상무진일하무진
共鳴道德爲仁國 공명도덕위인국
同感平和作善人 동감평화작성인
聲出高壇多喝采 성출고단다갈채
明明公約滿天伸 명명공약만천신

남산에 꽃과 나무들은 다 아름다운 봄날이요
북곽에 차가운 소나무는 색깔을 보전하며 서있네.
이마가 빛이 나면 온몸도 빛이 나고
위 사람이 먼지 없으면 아래 사람도 먼지 없다오.
도덕이 공명 할 때 仁國이 될 것이요
평화를 동감해야 착한 인민 되는 것을
성명서가 높은 단에서 방출하여 박수 갈채 많았으니
밝고 밝은 공약소리 하늘 가득 퍼져간다.

方春和時 草木群生之物皆有以自樂

바야흐로 봄빛 화창할 때 모든 초목이 다 스스로 즐긴다

淑氣方昇大陸天 속기방승대륙천
群生自樂鼻歌連 군생자락비가연
眼酣杏院玲瓏露 안감행원영롱로
袖濕柳溪淡泊煙 수습유계담박연
幾處江山懽酒後 기처강산환주후
一來歲月咏詩邊 일래세월영시변
誰知宇宙和成德 수지우주화성덕
無物不歸造化然 무물불귀조화연

맑은 기운 피어 오르는 대륙의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스스로 즐기느라 콧노래 그치지 않네.
눈은 살구꽃 원집 영롱한 이슬에 취해있고
옷소매는 버들시내 담박한 연기에 젖었구려.
몇 곳의 강과 산은 술 마신 후 즐거웠고
한 번 오는 세월은 시를 읊은 가이로다.
그 누가 우주의 화성하는 덕을 알 수 있을까
물건마다 조화의 자연에 돌아가지 않음이 없는 것을.

其 二

柳綠草青二月天 유록초청이월천
溪山物色摠芳連 계산물색홀방연
區區勝地多遊客 구구승지다유객
日日良辰好景煙 일일량진호경연
韶似聖恩均上下 소사성은균상하
陽無私照共中邊 양무사조공중변
我成春服誰同志 아성춘복수동지
欲訪雩沂樂自然 욕방우기락자연

버들도 푸르고 풀도 푸른 2월 하늘에
계산에 물색은 모두 다 꽃다움으로 연해졌네.
구석구석 승지이니 떠도는 사람 많고
날마다 좋은 때니 경치 따라 좋을시고
봄별은 성인의 은혜와 같아 상과 하를 균일하게 하고
태양은 私照가 없이 中과 邊을 함께하네.
나는 봄옷을 이루었는데 누가 뜻을 같이할까
무우와 기수를 찾아 자연을 즐기려 하네.

* 遊客-遊賞하는 사람들

* 雩沂-雩는 舞雩라는 곳이고 沂는 沂水라는 강인데 論語에 孔子님의 제자 曾點이 冠童 二 三人과 童子 六 七人으로 浴乎沂하고 風于舞雩란 말이 있음

願 國泰民安 1994 金泳三政府 當時 募詩

無門大道在廉清 무문대도재염청
禮義尊崇立性情 예의존송립성정
上不貪榮謀竊位 상불탐영모절위
下何奔利競虛名 하하분리경허명
頌騰日月開文治 송등일월개문치
喜動山河施政平 희동산하시정평
但願自茲多福慶 단원자자다복경
國家安泰樂民生 국가안태락민생

문이 없는 大道에도 청렴과 결백은 있어
예의를 존송하여 性과情 확립하소.
上이 영화를 탐하고 절위를 도모하지 않으면
下가 어찌 利에 분주하고 헛된 명예에 경쟁할까
기리는 소리 해와 달처럼 떠오르니 文治를 개방했고
기쁨이 산하를 움직이니 施政을 공평하게 한다네.
다만 원하는 것은 지금부터 복된 경사 많아져
국가는 안태하고 민생들은 즐거워지기를.

光顯堂 一 德山 島中島 梅軒 尹奉吉 義士 生家

川水四圍滾滾鳴 천수사위곤곤명
更看光顯故堂名 경간광현고당명
砌花場草自春色 체화장초자춘색
簷鷺門鶯空好聲 첨연문앵공호성
古里餘風依舊動 고리여풍의구동
聖墟遺跡感恩榮 성허유적감은영
忠魂凜凜如松柏 충혼눔눔여송백
取舍精神萬代生 취사정신만대생

냇물이 사방을 둘러 철철 울리는데
다시 광현당이란 의사의 생가 이름을 보았노라.
뜨락에 핀 꽃 마당에 풀들은 스스로 봄빛이요
처마에 제비 문밖의 피꼬리는 부질없이 좋은 소리를 내네.
古리에 남은 바람은 옛과 같이 움직이고
聖墟에 끼친 자취 은혜와 영광에 감읍하네.
충성된 혼영은 눔름하기 송백과 같아
취사의 정신이 만대에 생동하네.

* 光顯堂-島中島에 있는 尹義士 生家.

* 取舍-舍生取義 의 준말. 즉,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 다는 말.

其 二

伽岫蒼蒼沐水鳴 가수창창목수명
有堂光顯果其名 유당광현과기명
忠如日月千秋色 충여일월천추색
義似雷霆萬古聲 의사뇌정만고성
聖域雲烟長保佑 성역운연장보우
故園花鳥摠華榮 고원화조총화영
降於勝地殉於國 강어승지순어국
遺芳百代鑑來生 유방백대감래생

가야산은 푸르고 푸르고 목수는 활활 우는데
光顯이란 그 이름 과연 이름값을 하는구나.
충성은 해와 달 같으니 천추에 빛이 되고
정의는 우레와 같아 만고에 소리가 되네.
성역에 운연은 길이길이 보전하고
고원에 꽃과 새는 모두다 번영하리.
승지에 태어나서 나라 위해 순국하니
백대에 유방하고 후생에 귀감이라.

其 三

偉人華閥警鐘鳴 위인화벌경종명
百代開場遠有名 백대개장원유명
佳節春風看礪譜 가절춘풍간위보
繁陰夏日出鶯聲 번음하일출앵성
成功天地行忠義 성공천지행충의
垂勳江山滿寵榮 수훈강산만총영
一域占靈登事蹟 일역점령등사적
譽章不朽與同生 예장불오여동생

위인의 화벌로 경종을 울리니
백대에 개장한 저 멀리까지 이름이 있네
가절의 봄바람에 꽃 족보 펼쳐보고
번음 한 여름날엔 꾀꼬리 소리 난다.
성공한 천지에서 충과 의를 결행했고
훈공 세운 강산에는 총과 영이 가득하다.
일역을 점한 신령 사적에 올랐으니
기리는 글 씌지 않고 다 함께 살아난다.

其 四

水石勝區鸞鶴鳴	수석승구난학명
得其人後有其名	득기인후유기명
島中島裡長春色	도중도이장춘색
光顯光前萬歲聲	광현광전만세성
文物革新神域化	문물혁신신역화
英靈依舊少時榮	영령의구소시영
廣場芳草多情席	광장방초다정석
民族摠和自此生	민족총화자차생

수석이 좋은 곳엔 난새와 학이 울고
그런 사람 생긴 후에 그런 이름 떨치누나
도중 도는 언제나 봄빛이요
광현 당이 빛나는 앞에는 만세의 소리로다.
문물이 혁신하여 신성한 곳이 되고
영영은 옛 과 같아 젊어지는 영화로다
광장에 방초가 다정한 자리
민족이 총화 하여 지금부터 생동 하네

七月 百中 草邱雅集

愛君謀酒謀詩遊 애군모주모시유
滿軸藻花香自流 만족조화향자류
於昨講蘭松菊院 어작강란송국원
而今賞物草梧邱 이금상물초오구
村容隱隱煙濃樹 촌용은은연농수
野色青青鷺下洲 야색청청로하주
此地景光多靜趣 차지경광다정취
逍遙終日却忘愁 소요종일각망수

사랑하는 그대여 술자리와 詩자리 마련해주니
만축한 마름꽃에 향기가 절로 흐르네.
전년에는 松菊院에서 난초를 강했는데
금년에는 草梧邱에서 景物을 감상하네.
향촌에 모양이 은은하니 연기는 나무에 무르녹고
들 빛이 푸르고 푸르니 백로들이 모래톱에 내려 앉았네.
이곳에 경관들이 정취가 너무 많아
하루 종일 즐기다가 세상근심 다 잊었네.

* 百中-음력 7월 15일을 말함

* 藻花-마른 꽃인데 文章을 비유한 말, 시축에 담겨있는 시문을 말함

- * 松菊院-松波家와 菊堂宅을 지칭함(고덕 상몽)
- * 草梧邱-草亭家와 梧隱家を 말함(당진 신평)
- * 逍遙-유유자적 하는 모양

又

七月百中遊 칠월백중유
微涼郊外流 미량교외류
牛鳴芳草岸 우명방초안
蟬語巨山邱 선어거산구
愛山登望客 애산등망객
樂水浴梅洲 요수욕매주
問酒方濃否 문주방농부
興來遠却愁 흥래원각수

칠월보름 백중놀음에
약간의 시원함이 郊外에 흐르누나.
소들은 芳草의 언덕에 울고
매미는 巨山의 마루에 말을 하는 듯
산을 사랑하여 망객산에 올랐고
물을 좋아하여 멧돌포에서 목욕도 한다.
문노니 술이 막 익어 가는가
흥이 오면 세상근심 멀리 간다네.

- * 巨山-거산리 地名
- * 望客-新平 망객산 地名
- * 梅州-新平 멧돌浦 地名

先 祖考妣山所移葬後 述懷

선 조고비 산소 이장 후 술회

寶蓋山精萬里連	보개산정만리연
秘藏眞穴護雲烟	비장진혈호운연
祖逢吉地祥光發	조봉길지상광발
孫奠勤誠蔭德全	손전근성음덕전
願我家門從今日	원아가문종금일
無他憂患度長年	무타우환도장년
所望如許非云侈	소망여허비운치
日夜乾乾暗祝天	일야건건암축천

보개산의 정기가 만리를 연했으니
비장한 진혈이 구름과 연기로 보호되었네.
조부께서 길지를 만났으니 상서로운 빛이 발할 것이요
후손들이 정성을 발했으니 음덕이 온전하리라.
원하옵건데 우리가문이 오늘 이후로부터
다른 우환이 없이 長年을 보내게 되리.
바라는바가 이러하다고 사치한 것이 아니요
밤이나 낮이나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비읍니다.

- * 秘藏-天藏地秘의 줄인 말. 비밀스럽게 감추어둠
- * 乾乾-정성을 다하는 모양 * 寶蓋山-홍성 구항 내현리 에 所在한 山
- * 暗祝天-가만히 아무도 몰래 하늘에 기도함

梅城春眺

春衣春酒喜同春	춘의춘주희동춘
一雨纔過万物新	일우재과만물신
沂上咏歸懷點席	기상영귀회점석
山陰修楔憶羲隣	산음수계억희린
氤氳和氣能成德	인온화기능성덕
淡蕩精神不染塵	담탕정신불염진
滿眼景光如許壯	만안경광여허장
梅城遍眺樂天真	매성편조락천진

봄옷과 봄술로 기쁘게 봄빛을 함께하니
한 번 비가 지나더니 만물이 새롭도다.
기상에 영귀함은 증점을 생각하게 하는 자리요
산음에 계를 닦는 왕희지를 추억하는 이웃이라.
인온한 화한 기운 능히 덕을 이루어내고
담탕한 정신은 먼지에 물들지 않아
눈에 가득한 경광들이 이렇듯 장대하니
매성을 두루 보며 천진을 즐기노라.

天下歸仁

己私淨盡本眞生	기사정진본진생
事事歸仁禮義明	사사귀인례의명
道德靑山千古色	도덕청산천고색
節文流水萬年聲	절문류수만년성
養中制外全神氣	양중제외전신기
主敬存心理性情	주경존심이성정
三八綱條知在此	삼팔강조지재차
擴而推及大同榮	확이추급대동영

자기사욕을 깨끗이 없앤 후에 본진이 생하니
일마다 仁으로 돌아가면 예의가 분명하리.
도덕은 청산이라 천고에 빛이 나고
절문은 유수이니 만년에 소리로다.
중심을 잘 기르고 외유를 제어하여 신기를 온전히 하고
敬을 주로하고 本心을 보존하여 性情을 다스려라.
3강령 8조목이 이 속에 있음을 알아서
넓히어 추급하면 大同榮에 이르나니.

* 三八綱條-3강령과 팔조목을 말함

三綱領-1)明明德 2)新民 3)止於至善

八條目-1)格物 2)致知 3)誠意 4)正心 5)修身 6)齊家 7)治國 8)平天下

聲討大聖侮辱 金經一

侮聖辱賢又毀東 모성육현우훼동
不如夷狄走翔同 불여이적주상동
犬狂空吠千秋月 견광공폐천추월
蜉誤謾喧萬世風 부오만훤만세풍
禮失迷兒鳴父祖 레실미아명부조
義亡曲學隸名功 의망곡학예명공
跳梁跖類無人責 도양척류무인책
唯有儒林討罪中 유유유림토죄중

성인도 모욕하고 현인도 욕보이며 또 나라도 헐뜯으니
오랑캐만도 못하고 금수와 똑 같도다.
개가 미쳐 부질없이 천추에 달을 보고 짚어대고
하루살이 쓸데없이 만세의 바람을 시끄러네.
예를 잃은 미아 되어 조부모를 울게 하고
의를 망친 곡학으로 공명에 노예로다.
철없이 날뛰는 도척의 종류를 책하고 벌하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儒林있어 討罪하는 中이로다.

- * 金經一 -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 * 跳梁- 철없이 날뛰는 모양
- * 跖類- 춘추시대 大盜 도척의유를 말함

其 二

數不可違西勢東 수불가위서세동
亂臣賊子乘時同 난신적자승시동
鳴呼花鳥醉迷月 명호화조취미월
痛哭山河遭變風 통곡산하조변풍
國失綱紀民失信 국실강기민실신
惡無誅罰善無功 오무주벌선무공
逆徒經一誰能正 역도경일수능정
儒雨將來洗滌中 유우장래세척중

운수로다 어길수 없어 서양풍조 동으로 오니
난신과 적자들이 때 만났다 날 뛰노라.
아~ 슬프다 花鳥들은 달빛에 취한 듯 혼미하고
통곡하는 산과 하수 변풍을 만났도다.
나라는 기강 잃고 인민들 믿음 잃어
악해도 주벌하는 일 없고 선해도 공덕이 없네.
역도인 김경일을 그 누가 바로 할까
儒雨 앞으로 세척하는 中이로다.

* 儒雨-유학사상을 요동하는 글들을 씻을 수 있는 비를 뜻함

天安 五龍 秋色 천안 오룡에 가을빛

天成地惠万千家 천성지혜만천가
勢似爭珠一境佳 세사쟁주일경가
南陌秋聲蟬在樹 남맥추성선재수
西郊豐色稻齊開 서교풍색도제개
並川水達江灣遠 병천수달강만원
太祖山高佛手斜 태조산고불수사
滿拾風光清興足 만십풍광청흥족
靈區豪氣日新加 영구호기일신가

하늘이 이루고 땅이 은혜로운 많고 많은 집
형세가 다섯 용이 구슬을 다투는듯한 지경이 아름답네.
남쪽 언덕 가을 소리는 나무숲에서 매미울음 울고
서역 들 풍년 빛은 피어난 벼꽃이던가
병천에 물이 통달하여 서해까지 멀리가고
태조산이 높이 솟아 큰 부처님에 손이 빗겨 있다.
풍광을 가득히 수습하니 맑은 흥치 넉넉하고
영구에 호기로움 날마다 더해지네.

金蘭 雅集

年年此日每心歡	년년차일매심환
括目仍知士氣寒	괄목잉지사기한
謀會新平曾有約	모회신평증유약
兼論雅契好相看	겸론아계호상간
風清梅竹韻無俗	풍청매죽운무속
酒熟金蘭詩不難	주숙금란시불난
醉後餘情猶未了	취후여정유미료
黃昏已矣坐平安	황혼이의좌평안

해마다 이날 되면 언제나 마음이 즐거우니
눈을 비비고 인하여 선비들 기운이 차가움을 알겠노라.
신평에서 회합을 도모함은 일찍이 약속이 있어서고
겸하여 아계를 논하면서 서로 좋게 만나보네.
매화와 대나무에 바람이 맑으니 운치가 속됨이 없고
술이 금란에 무르익으니 시 쓰기 무난하네.
술 취한 후 남은 정을 그래도 다 할 수 없어
황혼이 지났으나 평안하게 앉아있네.

其 二

此日風流與衆歡 차일풍류여중환
融融和氣少無寒 용용화기소무한
竹林於昔七賢在 죽림어석칠현재
蘭契而今三益看 란계이금삼익간
我醉如狂雖不怪 아취여광수불괴
君詩似海正無難 군시사해정무난
峨洋一曲夕陽下 아양일곡석양하
有意聽琴更抱安 유의청금경포안

이날에 풍류를 여럿이 기뻐하니
용용한 화한 기운 조금도 차감지 않아
옛날에는 죽림칠현이 있었는데
지금에는 난초계의 삼익이 있네.
내가 취해 미친 것 같은 것은 비록 이상할 게 없지만
그대의 쓰는 시는 바다와 같이 정히 어려움이 없네.
높고 낮은 거문고 한 곡조 석양이 저무는데
뜻이 있으면 거문고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 * 竹林七賢-晉나라 초기에 老莊 虛無學의 학문을 숭상한 1)阮籍 2)嵇康
3)山濤 4)向壽 5)劉伶 6)王戎 7)阮咸을 말함
* 三益友-1)友直 2) 友諒 3)友多聞

閒麗水道

閒麗遠尋共上樓 한려원심공상누
感吟付檻久遲留 감음부함구지유
年來歲去山依舊 년래세거산의구
烟罷雨收水自流 연파우수수자류
雁從別浦平沙落 안종별포평사락
帆飽順風滿港休 범포순풍만항휴
供膾傾樽須盡醉 공회경준수진취
氣分自快爽如秋 기분자쾌상여추

한려수도 멀리 찾아 다 함께 樓에 오르니
감동하여 시 읊으며 난간에 의지하고 오래도록 멈추어 있네.
해가가고 해가오나 산천은 의구하고
연기는 개어있고 비 또한 그치었는데 물은 스스로 흘러가네.
기러기는 별포 따라 평사에 떨어지고
돛대는 순풍안고 항구 가득 쉬고 있네.
어회를 마련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실커덩 취했는데
기분이 상쾌하니 시원한 가을 같네.

七一年 四月 十五日 修德寺 觀光

薰風四月綠肥天 훈풍사월녹비천
修德觀光第一年 수덕관광제일년
靑者楊林黃者鳥 청자양림황자조
繡如山面錦如川 수여산면금여천
名區有酒方濃否 명구유주방농부
勝地得詩亦偶然 승지득시역우연
借問誰能吳道手 차문수능오도수
此情此景輸圖傳 차정차경수도전

훈훈한 향기바람 녹음이 살찌는 계절
수덕사를 관광하는 제 1년 일세.
푸른 것은 버들이고 누른 것은 피꼬리인데
수놓은 듯 산면이요 비단 같은 냇물 일세.
명구에 술 있으니 바야흐로 익었느냐
승지에 詩를 얻음 그 또한 우연이라.
문노니 그 누가 오도자의 솜씨 있나
이 정과 이 경치를 그림에 실어 전해보세.

* 吳道-吳道玄을 일컬음. 당나라 때의 화가 子는 道子 佛畫와 山水화에 특
출하였다 화성이라 칭한다.

其 二

綠陰四月天 녹음사월천
謀遊老少年 모유노소년
觀光修德寺 관광수덕사
投網玉溪川 투망옥계천
聞鶯興自發 문앵흥자발
對酌詩豪然 대작시호연
山水登臨樂 산수등임락
忘歸夕磬傳 망귀석경전

녹음방초 4월 천에
노소가 함께 어울려 노네.
수덕사를 관광한 후
옥계천에서 투망하다.
피꼬리 소리를 들으니 흥취가 저절로 나고
술잔을 대하니 詩도 호연하여라.
산에 가고 물에 임해 즐거움에 빠졌다가
돌아감을 잊었는데 저녁 쇠북 들리어 온다.

七六年 九月 二十日 雪岳山 觀光

雪岳觀光九月天 설악관광구월천
吾行摠是少壯年 오행총시소장년
峰峰奇怪難名石 봉봉기괴난명석
谷谷寒流別瀑川 곡곡한류별폭천
一手搖岩皆力士 일수요암개력사
暫時忘俗得仙緣 잠시망속득선연
江原一境週遊後 강원일경주유후
更上京樓眼豁然 갱상경루안활연

설악산을 관광하는 9월 하늘에
우리 일행 모두가 소 장년일세.
봉우리 마다 기이하고 괴상하니 이름 붙일 수 없는 돌들이요
골짜기마다 차가운 시냇물은 별스런 폭포로다.
한 손으로 바위를 흔드니 모두다 力士이고
잠시나마 속세를 잊었으니 신선 인연 얻었도다.
강원도 일대 경을 두루두루 노닌 후에
또다시 京樓에 올라보니 눈빛이 시원해라.

七七年 十月 十五日 濟州 觀光

橘黃蘆白濟州秋	귤황노백제주추
南國風光點眼收	남국풍광점안수
漢拏山高雲護立	한라산고운호립
西歸浦闊月浮流	서귀포활월부류
萬長窟裡感神妙	만장굴이감신묘
天帝淵邊忘俗愁	천제연변망속수
文物疎如參異域	문물소여참이역
此遊可記一生頭	차유가기일생두

귤은 노랗게 익고 갈꽃은 하얗게 핀 제주의 가을
남쪽 나라 풍광들을 점안하여 거뒀노라.
한라산 높이 솟아 구름이 호위해 섰고
서귀포 넓은 바다 달빛 띄워 흐르누나.
만장굴 깊은 속에 신묘함을 느꼈고요
천제연 물가에서 속된 근심 잊었노라.
문물이 소원하여 이역에 온 듯하니
이 유람은 아마도 일평생 머릿속에 기억할 듯

新燕 새로 나온 제비

節到三三佳節暉 절도삼삼가절휘
玉樓金屋入簾扉 옥루금옥입렴비
結巢包卵人家養 결소포란인가양
尋主賀情羽族稀 심주하정우족희
風翻蹴水翹翹舞 풍번축수힐항무
草色斜陽上下飛 초색사양상하비
細音訥語慙慙約 세음흔어은근약
玄服紫臙態不微 현복자연태불미

때는 3월 3진 좋은 때 햇볕 비치니
옥루와 금옥 발과 사립문에 들어오네.
둥지를 틀고 알을 품으며 사람의 집에서 길러 내고
주인을 찾아情有 하례하니 羽族에서는 드문 일이네.
바람을 타고 물을 차며 힐항하게 춤을 추고
풀빛 푸른 빛긴 해에 오르락내리락 날으는구나.
가는 소리 하소하듯 은근한 약속
검은 옷에 붉은 연지 자태가 적지 않고나.

* 三三佳節-음력 3月3日

三 · 一節 韻

天地時來人事成	천지시래인사성
吾東運數更新晴	오동운수경신청
義通山海風雲起	의통산해풍운기
忠滿乾坤日月明	충만건곤일월명
同胞同志千秋俎	동포동지천추본
愛國愛民萬歲聲	애국애민만세성
三一節來春色好	삼일절래춘색호
無窮花發永香生	무궁화발영향생

하늘 땅 운이 올 때 인사가 이루는데
우리나라 운수가 새롭게 개여 구나
정의는 산해에 통달하니 풍운이 일어나고
충성은 건곤에 가득하니 해와 달이 밝아진다.
동포와 동지는 천추에 근본이요
애국과 애민은 만세의 소리로다.
3.1절 돌아오면 봄빛도 좋을시고
무궁화 꽃이 피며 영원한 향기난다.

祝 鶴山齊 落成

天眷貴門吉地成 천권귀문길지성
八公烽火得新清 팔공봉화득신청
山呈道德千年態 산정도덕천년태
水放文章万古聲 수방문장만고성
鶴宇告功咸助力 학우고공함조력
祖陰知後更陳誠 조음지후경진성
使人感發孝仁動 사인감발효인동
無盡芳香遠近生 무진방향원근생

하늘에 귀문을 권고하여 길지를 이루니
팔공산과 봉화산이 새롭고 맑음을 얻었도다.
산은 도덕 천년의 자태를 받쳐주고
물은 문장 만고의 소리를 놓아주네.
학산재를 고공하니 모두 다 조력했고
조상음덕 후손 알아 또다시 정성을 펼치누나.
사람들로 하여금孝와仁에 감동하여
무진한 꽃향기가 원근에 감도누나.

- * 貴門-지체 높고 부유한 집안, 상대편집을 높여 부르는 말
- * 告功-공을 고함, 공사의 마무리

烏山 李起鳳先生 百壽 晬日 慶祝

南極星光照禮東 남극성광조례동
仁人壽福享無窮 인인수복향무궁
開門法務清高士 개문법무청고사
賞架圖書自怡翁 상가도서자이옹
萬事不求忠孝外 만사불구충효외
平生一貫敬誠中 평생일관경성중
樂天知命強康裡 락천지명강강리
大老雍容泰斗風 대노옹용태두풍

남극별의 빛이 예산동쪽에 비쳐 있는데
仁人의 수와 복은 한량없이 누리리다.
법무사로 문을 여니 청고한 선비였고
그림과 글씨를 감상하며 스스로를 즐기는 翁이로다.
모든 일은 忠과 孝의 밖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敬과 誠의 중심으로 일관했네.
자연을 즐기고 명을 아는 강강한 속에
대로의 품은 모습 태산북두의 품모로다.

祝 在田 花族 在赫六一晷 丁卯年 八月 三日

蓬矢桑弧朝旭天 봉시상호조육천
蕪辭遠祝壽遐年 무사원축수하년
勤經諸子成螢雪 근경제자성형설
釀酒賢妻舉案筵 양주현처거안연
笙鶴轉聲連棣上 생학전성연체상
蓮龜負瑞戲堂前 연구부서희당전
滿庭花樹想淸範 만정화수상청범
恨未相逢言志傳 한미상봉언지전

썩대화살 뽕나무 활 아침 해 빛나는 하늘에
거친 말로 멀리 수연을 축하하오.
부지런히 글을 하는 여러 자손 형설 공을 이루었고
술을 빚은 어진 아내 고배 잔치 차리었도다.
생 학이 소리 굴러 여러 형제 화락하고
상서로운 연귀는 당 앞에 노는구려.
만정한 일가들의 청범을 상상하니
서로 만나 情話 못함 한하노라.

* 螢雪-晉代 車胤 孫康이 집이 가난하여 기름을 얻을 수 없어 螢光과 雪光
으로 독서하여 군자가 되었다.

* 蓮龜-연꽃아래 노는 거북 즉 상서와 장수를 상징 한다.

原韻 田在赫

生平不孝愧於天	생평불효괴어천
自笑賤齡到甲年	자소천령도갑년
四棣慕親恩感日	사체모친은감일
五兒慰我設斯筵	오아위아설사연
歌聲愈大吟詩後	가성유대음시후
酒味何消獻壽前	주미하소헌수전
此舉由來先蔭德	차거유래선음덕
至重遺訓世相傳	지중유훈세상전

평소에 불효하여 하늘에 부끄럽고
천한 나이 甲年됨을 스스로 우습도다.
4형제 父母님 사모하며 恩感하는 날이 되고
다섯 아들 나를 위해 이 자리를 베풀었네.
노래 소리 더욱 크게 시 읊은 후 이어졌고
술 맛이야 어떻게 헌수 전에 적어질까.
이 일이 유래됨은 선조님의 은덕인데
지중하신 내린 훈계 대대로 전하리라.

丁巳 七月 既望 德崇山雅會

德崇雅會是清秋 덕숭아회시청추
何必蘇仙赤壁頭 하필소선적벽두
山起千峰無語立 산기천봉무어립
水分万派有聲流 수분만파유성류
烟迷世路馳戎馬 연미세로치용마
月照禪宮忘客愁 월조선궁망객수
幸得名區文酒樂 행득명구문주락
白雲嶺外自舒收 백운령외자서수

덕숭산에 맑은 모임 이때는 청추인데
하필이면 소선의 적벽강에 머리일까?
산은 천 봉우리를 기립하여 말없이 서 있고
물은 만 가닥으로 나눠 소리 내어 흐르누나.
연기처럼 혼미한 세로에는 용마가 내달리고
달이 비친 선궁 에는 객의 근심 잊게 하네.
다행하게 명구 얻어 문주를 즐기나니
흰 구름만 嶺 밖에서 피어나고 쓰러지네.

- * 既望-陰 十六日 * 蘇仙-東坡 蘇軾
- * 赤壁-중국 소동파 소식선생이 놀던 강의 이름
- * 戎馬-군사와 전진에 나가는 말 즉 軍馬를 말함
- * 禪宮-佛宮
- * 文酒樂-글과 술로 즐거움을 말함

其 二

雲白風清万里秋 운백풍청만리추
俗人遠赴釋宮頭 속인원부석궁두
情牽道德山高立 정견도덕산고립
眼悅文章水達流 안열문장수달류
名區到處多懷古 명구도처다회고
談笑隨時可解愁 담소수시가해수
不換三公今日樂 불환삼공금일락
雜塵世慮自然收 잡진세려자연수

구름은 희고 바람은 맑은 만리의 가을
속인들 멀리 석궁을 찾아오네.
정에 끌린 도와 덕은 산처럼 높이서고
눈에 즐거운 문장은 물처럼 통달하여 흐르누나.
명구는 가는 곳마다 회고를 많게 하고
담소는 때에 따라 근심을 풀게 하네.
三公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에 즐거움은
세상의 잡생각 스스로 걷어내네.

- * 釋宮-부처님을 모신 佛宮
- * 懷古-옛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 * 三公-右相, 左相, 領相

賀 土岩 金鍾文 典校 古稀宴

龍鳳烟霞沐里東 용봉연하목리동
紅顏華髮土岩翁 홍안화발토암옹
爲先事業千家範 위선사업천가범
慕聖誠心兩代融 모성성심양대융
放馥庭蘭增瑞日 방복정란증서일
含靑園棣帶春風 함청원제대춘풍
賓朋爭賀古稀壽 빈봉쟁하고희수
福慶延延遐邇同 복경연연하이동

용봉산 구름 안개 목리 동편에
붉은 얼굴 검은 머리 토암 翁일세.
선조 위한 그 사업은 일천 집에 모범이요
성인을 사모하는 그 정성은 양 대가 융합했네.
향기 가득한 난정에 상서로움 늘어나고
푸르른 아기위 동산 봄바람 너울댄다.
빈봉이 쟁하하는 고희 수연에
복된 경사 연연하여 원근 사람 함께하네.

- * 庭蘭-자손을 지칭함
- * 園棣-형제를 지칭함
- * 賓朋-손님으로 대접하는 좋은 친구
- * 爭賀-서로 다투어 축하함
- * 延延-머뭇거리려 나가지 못함. 오래 머무는 모양

土岩老松 토암노송

百歲髯龍 백세염룡

仁山智水 인산지수

壽德雙隆 수덕쌍룡

토암에 노송은
백세의 염룡이라
인산과 지수 되어
수와 덕이 함께 높네.

雲岡 李康年 先生 追慕

雲岡偉蹟最堂堂 운강위적최당당
讚賀沸騰京與鄉 찬하비등경여향
報國精忠霜雪氣 보국정충상설기
勤王毅魄日星光 근왕의백일성광
遺風不絕泰山重 유평불절태산중
餘韻無窮流水長 여운무궁류수장
若使後人能効則 약사후인능효칙
何憂南北未通陽 하우남북미통양

운강의 큰 업적은 최고로 당당하니
찬하가 서울과 시골에 비등하네.
보국하는 정한 충성 상설의 기운이요
근왕하는 굳센 혼백 해와 별같이 빛나네.
끊이지 않는 유평은 태산같이 중대하고
무궁한 남은 운치 우수같이 멀리 가네.
만약 후인들이 운강 공을 효칙으로 삼는다면
어찌 남북이 통일 못함을 근심하리오.

- * 沸騰-물 끓듯 세차게 일어남 * 精忠-자기를 돌보지 않는 순수한 충성
- * 毅魄-굳센 혼, 혼백 * 效則- 본받아 법으로 삼음

其 二

男兒立志氣堂堂 남아립지기당당
許國臣心不顧鄉 허국신심불고향
壯節山河萬世重 장절산하만세중
貞忠日月千秋光 정충일월천추광
生前遺蹟垂編赫 생전유적수편赫
死後餘風與水長 사후여풍여수장
一去一來天定理 일거일래천정리
綱常扶植啓三陽 강상부식계삼양

남아가 입지하면 기운이 당당한데
나라에 맡긴 신하의 몸 고향을 돌볼 수 있나
장절한 산하는 만세에 중대하고
정충은 일월 같아 천추에 빛이로다.
생전에 끼친 업적 역사위에 빛이 나고
사후에 남은 풍도 물과 같이 길이 가네.
한번 가고 한번 옴은 하늘이 정한 이치인데
강상을 부식하고 三陽을 열었도다.

- * 壯節-장하고 뛰어난 절개 * 貞忠-절개가 곧고 충성스러움
- * 扶植-힘이나 영향을 내치어 사상이나 세력 따위를 뿌리박게 함

其 三

忠魂烈魄並堂堂 충혼열백병당당
爲國久離父母鄉 위국구이부모향
乾坤正氣同人發 건곤정기동인발
日月丹心與世長 일월단심여세장
盟山立志山如重 맹산립지산여중
誓海捐生海自長 서해연생해자장
還愧于今南北斷 환괴우금남북단
後生慚色遠瞻陽 후생참색원첨양

충혼과 열백이 모두 다 당당하니
나라 위해 오래도록 부모 고향 떠났다오.
건곤에 바른 기운 님과 함께 피어나고
일월 같은 붉은 마음 세상과 더불어 자라나니
산을 향해 입지를 맹세하니 산과 같이 중대하고
바다에 서약하고 살기를 버렸더니 바다처럼 장원하네.
오히려 부끄럽네 지금까지 남북이 끊겼으니
후생들 참색으로 멀리 태양만 바라봅니다.

忠定公 芝峰 皇甫仁先生 堅碣 一

報本精神大碣成 보본정신대갈성
桂山靈氣轉清生 계산령기전청생
瑞雲交賀重修地 서운교하중수지
祥日復臨古隴城 상일복임고룡성
專意補君雖未策 전의보군수미책
一心憂國永遺聲 일심우국영유성
昭然往蹟今尤仰 소연왕적금우앙
久益芳香忠懇名 구익방향충간명

보본의 정신으로 큰 비갈 이루니
계산의 영한기운 굴려서 맑은 기운 되살아난다.
상서로운 구름은 중수하는 땅에 교대로 하례하고
서기 어린 해는 다시 옛 농성을 굽어보네.
전의하여 군주를 도왔지만 상책은 못했으나
일심으로 나라 걱정 영원히 소리 남네.
분명한 지난 업적 금일 더욱 추앙하니
갈수록 꽃답고 향기로운 충간의 이름일세.

- * 報本-자라난 근본자체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음
- * 重修-낡고 헌 것을 다시고침
- * 昭然-일이나 이치 따위가 밝고 또렷하다.

其 二

巨碑雄壯翼然成 거비웅장익연성
月桂山光万倍生 월계산광만배생
義魄千秋聞令地 의백천추문령지
丹心一代超凡城 단심일대초범성
生於苟苟生無價 생어구구생무가
死是堂堂死有聲 사시당당사유성
若使後人行此道 약사후인행차도
遺芳靑史永傳名 유방청사영전명

큰 비를 웅장하게 익연이 이뤘으니
월계산 높은 빛이 만 배나 빛나도다.
의로운 천추 혼백 영을 듣는 땅이 되고
일대의 붉은 마음 초범한 성이로다.
사는 것이 구구하면 사는 것이 값이 없고
죽음이 당당하면 죽음에 명성 있네.
만약 후인들도 이도를 실행하면
명예로움 청사에 길이 빛나리.

- * 翼然-나는 듯한 모양
- * 超凡-범상한 것보다 뛰어나다.
- * 遺芳-후세에 빛나는 명예를 남김

其 三

月桂山高大碣成 월계산고대갈성
篆顏輸蹟鏡光生 전안수적경광생
讚揚功德花添史 찬양공덕화첨사
安慰英靈靄滿城 안위영령애만성
極痛至冤千古節 극통지원천고절
憤心忠懇万年聲 분심충간만년성
道崩禮壞今何日 도붕례괴금하일
更看貴門顯達名 경간귀문현달명

월계산 높이 솟고 큰 비갈 이루었으니
비면에 업적 실어 거울같이 빛이 난다.
공적을 찬양하니 靄史에 꽃이 피고
영령을 위로하니 아지랑이 성에 가득
지원을 극통하니 천고에 충절이요
충간에 분낸 마음 만년의 소리로다.
도가 무너지고 예가 파괴된지 지금 얼마인가
늦었지만, 다시 한 번 귀문에 현달한 명성 보게 해주네.

- * 輸蹟-실여있는 업적
- * 極痛至冤-지극히 원통함
- * 忠懇-충심으로 간청함

其 四

表忠彰義貞珉成	표충창의정민성
字字金文戒後生	자자금문계후생
雲蔽餘輝千古節	운폐여휘천고절
烟藏偉蹟百年城	연장위적백년성
桂山鬱立干天氣	계산울립간천기
臨水長鳴戛王聲	임수장명알왕성
前日光陰今有色	전일광음금유색
承先志業振芳名	승선지업진방명

충과 의를 표창하는 높은 비갈 이뤄내니
글자마다 금문으로 후생을 경계하네.
천년고절 구름이 감싸고
백년성에 업적을 연기 속에 들었네.
계산이 울창함은 천기를 범하고
임수의 장명함은 왕성이 알알하다.
지나간 세월 광음이 이제야 빛을 찾고
선업을 받들어 뜻을 이은 그 이름 향기롭게 떨치누나.

追慕 梅軒 尹義士

天時人事有時然 천시인사유시연
當此臣民救國先 당차신민구국선
鳳去空林看偉蹟 봉거공림간위적
鶴鳴古洞聽聲傳 학명고동청성전
忠魂與岳活千古 충혼여악활천고
氣魄成龍騰九天 기백성용등구천
永樹絃歌無絕處 영수현가무절처
願言承教後來邊 원언승교후래변

천시와 인사는 때가 있는 법
이런 때 신민들은 救國이 먼저일세.
봉이 떠난 빈숲에는 위적만 볼 수 있고
학이 우는 옛 골에는 그 소리만 들려올 뿐
충혼은 산과 함께 천고에 살아남고
기백은 용이 되어 九天에 오르도다.
길이길이 현가에 심어 끊이지 않아
원하노니 후대에게 가르침을 주옵소서.

- * 偉蹟-큰 자취 뛰어나고 훌륭한 자취
- * 絃歌-거문고등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高峰 奇大升先生 道學 思想 擅揚

白日場開廣募詩 백일장개광모시
先生誕降半千期 선생탄강반천기
春風道德山河動 춘풍도덕산하동
秋月文章木石知 추월문장목석지
理氣陰陽無不重 이기음양무불중
論爭四七有何遲 논쟁사칠유하지
讚揚勝地倫綱立 찬양승지윤강립
教化承承万世思 교화승승만세사

백일장을 열어 널리 詩를 모으니
선생께서 탄강한지 반 천 년이라.
봄바람 같은 도와 덕은 산하를 움직이고
가을 달 같은 文과 章은 목석도 알았도다.
리와 기와 음양은 중하지 않음이 없었고
4단 7정의 논쟁에 어찌 지완 함이 있을까?
찬양하노라 승지에서 윤강을 굳게 세웠으니
그 교화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만세토록 전했으면

* 四端-惻隱之心 仁之端, 羞惡之心 義之端, 辭讓之心 禮之端, 是非之心
智之端

* 七情-喜, 怒, 愛, 樂, 哀, 惡, 欲

祝 廷圃 吳道泳 先生 米壽

南極星回瑞氣天	남극성회서기천
仁人壽享不窮年	인인수향불궁년
瑤琴相愛雙仙鶴	요금상애쌍선학
寶樹爭華大慶筵	보수쟁화대경연
志立聖賢德業裡	지립성현덕업리
身遊翰墨文章前	신유한묵문장전
翁之淸福稀今古	옹지청복희금고
謹構蕪辭一帖傳	근구무사일첩전

남극성이 회조하는 서기의 하늘
어진 사람 수를 누려 한량 없다오.
금실이 서로 사랑하니 한 쌍의 선학이요
자손들 창성하니 크나큰 경사로다.
뜻은 성현의 덕업 속에 세워놓고
몸은 한묵과 문장 앞에 놓고 있네.
옹의 맑은 복은 고금에 희한 일
삼가 거친 말로 1첩을 전합니다.

熊津懷古

熊津九陌繁華天 웅진구맥번화천
世變滄桑餘迹筵 세변창상여적연
山氣蕭蕭風萬古 산기소소풍만고
江心寂寂月千年 강심적적월천년
前朝若夢人何在 전조약몽인하재
孤閣無塵笛一邊 고각무진적일변
遙憶盛衰過境事 요억성쇠과경사
言詩難盡漫懷傳 언시난진만회전

웅진의 거리마다 변화 했던 그 옛날이
창상으로 변한 세월 그 자취만 남았구나.
산에 기운 쓸쓸한데 바람은 만고이고
강심은 적적한데 달빛은 천 년이라.
전 조사는 꿈과 같고 인물들은 어디에 있나
외로운 누각 깨끗하나 피리 소리 하나로다.
저 멀리 성쇠 했던 과거를 다시 한 번 추억하니
시로는 다 할 수 없어 멀고 아득한 생각만 전하노라.

- * 熊津-地名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시대 이름
- * 滄桑-「창상지변 滄桑之變」은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으로 변했다가 그 뽕나무 밭이 다시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이다. 덧없이 변해가는 세상 모습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선 桑田碧海라 함

洛城蘭亭(李承昌)雅會

一鄉一洛講蘭衣 일향일락강난의
衣滿清香香不微 의만청향향불미
新起樓臺皆恍惚 신기루대개황홀
艷粧車盖摠依稀 염장차개총의희
普普群芳君踏去 보보군방군답거
生生時景我吟歸 생생시경아음귀
友情日益甚深大 우정일익심심대
淡淡其交無一非 담담기교무일비

한번 시골에서 또 한 번은 서울에서 난 회를 강신하니
옷에 배인 맑은 향기 옷에 가득 배었네.
새로 세운 누대들은 모두 다 황홀하고
곱게 꾸민 차량들은 멋진 모습 다투네.
많고 많은 군방들을 그대가 밟고 가고
생생한 즉경만은 내가 다 읊어갈게.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가니
벗과 나누는 맑은 정 비길 데 없네.

- * 洛城蘭亭-서울에 난초 정자인데 서울 사는 난정 이 승창을 말
- * 群芳-여러 가지 꽃다움
- * 時景-지금의 아름다운 경치

其 二

久我出門拂綠衣 구아출문불록의
雪晴雲散動寒微 설청운산동한미
靜看梅竹閑情發 정간매죽한정발
樂把琴書雜念稀 락파금서잡념희
洛城風月如斯好 락성풍월여사호
蘭室屐筇似不歸 란실극공사불귀
京友鄉朋巡訪裡 경우향봉순방리
是尤是是更無非 시우시시갱무비

오랜만에 문을 나서 푸른 옷을 떨쳐 입고 나오니
눈은 개고 구름 없이 춥지도 않아
고요히 梅竹을 보니 閒情이 솟어나고
즐거서 琴書를 잡았더니 잡념이 사라진다.
서울에 風月이 더욱 좋고요
난실에 친우들 돌아가려 하지 않네.
京友와 鄉朋이 순방하는 벗들이 서로 찾고 반기니
좋고 좋고 더더욱 좋을시고

祝 商務社宇 落成

社宇新粧德邑東 사우신장덕읍동
故魂脉脉至今通 고훈맥맥지금통
場場賣買興成裡 장장매매흥성리
物物去來祿負中 물물거래보부중
分明位次令監祭 분명위차령감제
恰似聖宮儒子風 흡사성궁유자풍
平世行商難世傑 평세행상난세걸
悠悠義氣古賢同 유유의기고현동

상무사를 덕산 東쪽에 새로 지으니
고혼들 맥맥하게 지금까지 통하였다오.
장마다 팔고 사며 흥성 이루고
물건을 거래함은 보부상일세.
분명한 위차는 영감 제사요
흡사하기 성공에 선비풍일세.
평세에는 행상이요 난세에는 호걸인데
유유한 그 의기는 고현과 같아라.

* 商務社宇 落成-상무사는 옛날 보부상들이 모여 행상하던 곳

乙丑大譜編修後 始祖祠宇創建

大譜修來大廟成 대보수래대묘성
潭源無盡派流長 담원무진파류장
田園景秀花爭發 전원경수화쟁발
楡柘陰深鳥樂聲 유자음심조락성
賢祖高風常有德 현조고풍상유덕
孱孫衆力極其誠 잔손중력극기성
孝忠遺訓眞儀範 효충유훈진의범
講學歲時啓後生 강학세시계후생

大譜를 편수 한 후 대묘를 낙성하니
담원이 무궁하여 파류도 장원하다.
전원에 경치가 좋으니 꽃들이 다투어 피고
유자에 그늘이 깊으니 새들이 즐겨하는 소리 하네.
조상님 높은 풍도 언제나 덕이 있고
후손들 힘을 모아 그 정성을 다 바치었네.
효와 충의 끼친 훈계 참다운 의범이니
세시로 강학하여 후생에 전해주세.

- * 大譜-大同譜
- * 歲時-春秋와 같은 말
- * 派流-한姓의 자손이 각파로 나누어져 나감

祝 主峰 稀壽

天降主峰稀壽辰	천강주봉희수진
德門聲譽共千人	덕문성예공천인
琴瑟高閣修清範	금슬고각수청범
梅竹青山學道仁	매죽청산학도인
結社以文多會友	결사이문다회우
交鄰推善每回春	교린추선매회춘
繁陰寶樹層層秀	번음보수층층수
福慶源源去益新	복경원원거익신

하늘이 내신 주봉 희수이신데
덕문의 성예를 천인과 함께하네.
금실의 높은 집에 청범이 닦여있고
매죽의 푸르른 산 道와 仁을 배웠구려.
文으로 두레 맺어 많은 벗들 모여 있고
善으로 새긴 이웃 언제나 봄이로다.
번성한 자손들이 층층이 뻗어나니
복경이 원원하여 지날수록 새로워라.

贈 서울菩提樹茶室女主人

(丙寅. 三七-一名 梨花裴遇順)

菩提梨花茶室明	보리이화다실명
粹然其質淡然香	수연기질담연향
香能暗動竹林士	향능암동죽림사
文亦隱牽清逸情	문역은견청일정
恨不眞緣早歲熟	한불진연조세숙
最奇斯友晚時逢	최기사우만시봉
以心傳意相應裡	이심전의상응리
北岳山高漢水長	북악산고한수장

보리수 다실에 배꽃이 밝게 피니
순수한 그 바탕에 담백한 향기로다.
향기는 살며시 竹林 선비 움직이고
글 또한 은은하게 청일한 정 끌어내네.
참다운 그 인연이 짧은 순간에 익지 못함은 한이 되지만
가장 기이함은 이런 친구 늦게라도 만난 것을
마음으로 뜻을 전해 서로서로 대응하니
북악산은 높이 솟고 한강수는 길게 흐르네.

祝 竹菴 晬韻 星州都聖燾先生 己酉 至月

老人星照嶺湖東	노인성조령호동
天賜晬翁五福同	천사수옹오복동
寶樹滿庭繞膝下	보수만정요슬하
靑龜負瑞獻堂中	청귀부서헌당중
昇平日月成仙域	승평일월성선역
孝友門闌住道風	효우문란주도풍
遠寄蕪辭心祝語	원기무사심축어
延綿餘慶萬年通	연면여경만년통

노인성이 영호 동편에 비치 우니
하늘이 수옹에게 五福을 주어 함께했네요.
자손들은 뜰에 가득 슬하에 둘러싸여
푸른 거북 상서지고 당중으로 올라오네.
승평한 세월 속에 신선 지역 이루었고
孝와 友로 이룬 가문 道風이 머물렀네.
무사를 멀리 붙여 마음으로 비는 말은
연면한 많은 경사 만년을 통하시오.

* 至月-음력 11월을 지칭함

忠義救國

救國忘生取義兵	구국망생취의병
若無見得是分明	약무견득시분명
揮槍處處盜倭滅	휘창처처도왜멸
拔斧時時嚴討征	발부시시엄토정
正氣泰山峰秀秀	정기태산봉수수
忠心闊海水平平	충심활해수평평
綿綿餘蔭尙今赫	면면여음상금혁
長使後人記大名	장사후인기대명

구국하려 삶을 잊고 의를 취한 군사들은
만약 견득 함이 없었다면 이렇게 분명할까
창劍을 휘두른 곳곳에서 왜적을 섬멸했고
부월을 뽑을 때마다 토정을 엄숙히 했네.
正氣는 태산이라 山峰마다 빼어났고
충심은 넓은 바닷물마다 평평하네.
면면한 남은 덕이 지금까지 빛이나니
언제나 후인들이 큰 이름 기억하네.

祝 雲谷 孟天述 教授 華甲

銅雀雲深漢水東 동작운심한수동
花開鐵樹滿枝紅 화개철수만지홍
穉蘭朶馥經初雨 치란타복경초우
健竹垂聲帶遠風 건죽수성대원풍
仁壽於今能可必 인수어금능가필
福緣從此也無窮 복연종차야무궁
桑榆晚景轉晴日 상유만경전청일
書史娛情寓一生 서사오정우일생

동작동에 구름 깊고 한강의 남쪽인데
철수에 꽃이 피어 가지 가득 붉어있네.
어린 난초 떨기 향기 처음 비를 경과했고
건장한 대 소리 내어 먼 바람을 띄었도다.
仁한 사람 수한다는 그 이치를 기필했고
복에 인연 지금부터 아마도 무궁하리
상유의 늦은 경치 맑은 날이 다시오면
書와 史를 즐기면서 평생을 함께 하리

- * 鐵樹-쇠나무에 꽃이 핀다는 말인데 얻기 어려운 일을 얻는다는 말
- * 桑榆-저녁경치 또는 늙그막을 뜻함
- * 東隅已逝 桑榆非晚-소년기는 이미 지났지만 만년이라도 늦지 않았다.

追慕 蘭臯 金笠(金炳淵)

傷孝傷忠不見陽 상호상충불견양
一生罷笠蹉跎長 일생파립차타장
詩鳴東國三千里 시명동국삼천리
身轉八紘幾處鄉 신전팔굉기처향
世味嘗來多苦酷 세미상래다고혹
人心閱去少情芳 인심열거소정방
蘭臯餘韻今尤馥 란고여운금우복
奇跡豪風未易忘 기적호풍미이망

효에 상처받고 충에 상처 받아 태양을 볼 수 없어
일생동안 파립으로 고달픔이 길어진다.
詩는 동쪽나라 삼천리를 울렸고
몸은 八道강산 몇 개 鄉을 전전했다.
세상 맛 지내보니 괴롭고 혹독함 많고
인심을 열력하니 정스럽고 꽃다움 적기도 하다.
난고에 남은 운치 지금 더욱 향기 나니
기적과 호풍을 쉽게 잊을 수 없네.

* 蹉跎-불운하여 뜻을 이루지 못함을 말함.

又

遠慕往仙望夕陽 원모왕선망석양
天光野色迥中長 천광야색형중장
可憐懷抱蹉跎士 가연회포차타사
欲問平安慷慨鄉 욕문평안강개향
人物奈斯朝暮變 인물내사조모변
江山如許古今芳 강산여허고금방
蘭皋發馥雖云晚 란고발복수운만
高處詩樓幸不忘 고처시루행불망

멀리 가신님을 추모하여 석양을 바라보니
하늘빛과 들 빛이 저 멀리 서려 있네.
가련한 회포는 차타한 선비였고
평안한지 묻고자 하나 강개한 고향일세.
인물은 어이하여 조석으로 변하지만
강산은 이렇듯이 고금에 꽃다워라.
난고에 발복함이 비록 늦다 말하지만
고상한 곳 詩樓에선 다행히 잊지 않았네.

* 慷慨-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정의감이 폭발하여 슬퍼하고 한탄하는 모양

前 朴勝萬 憲兵鑑 古稀筵 甲戌 二月 一十五日

潘南故宅發花天 반남고택발화천
種德門闌蔭福全 종덕문란음복전
琴瑟百年偕好老 금슬백년해호노
墳簾一席更團圓 훈호일석경단원
少成武路靑雲志 소성무로청운지
晚作文園白髮仙 만작문원백발선
孝子賢孫稱慶日 효자현손칭경일
把毫謹賀古稀筵 파호근하고희연

반남 고택에 꽃이 피는 날
덕을 심은 가문에 음복이 온전하도다.
금슬의 백 년 기약 해로를 좋게 하고
형제들 한자리에 또다시 단란하다.
젊어서 무인으로 청운의 꿈 이루었고
만년에는 문원에 들어 백발의 신선이라.
효자와 현손들이 칭경하는 날
붓을 잡고 고희연 축하하노라.

麥秋 甲戌 四月 1994년 4월

薰風四月爽如秋 훈풍사월상여추
麥浪成金舍外流 맥랑성금사의류
難辨東西南北界 난변동서남북계
相渾左右邇遐疇 상혼좌우이하주
太平天下民無怨 태평천하민무원
勤苦田中汗不憂 근고전중한불우
打作聲聲喧廣土 타작성성환광토
願豐歲歲萬困收 원풍세세만균수

훈훈한 바람 4월의 봄바람 시원하기 가을 같은데
보리 물결 금빛 되어 집 밖에 흐르누나.
동서남북 경계를 분간하기 어렵고
좌우 원근의 발두둑이 섞여 있는 듯
태평한 천하에는 백성들 원성 없고
부지런히 밭을 일구니 땀 흘려도 근심 없어
타작하는 소리소리 넓은 땅을 흔드는 듯
원하노니 해마다 풍년들어 만 창고에 수확하세.

願 國泰民安 甲戌 五月

靑丘一雨洗塵清 청구일우세진청
萬像咸熙喚古情 만상함희환고정
天降檀箕開樂土 천강단기개락토
人行禮義得芳名 인행례의득방명
文明世界花雖晚 문명세계화수만
淡蕩山河法治平 담탕산하법치평
正順淨安登道日 정순정안등도일
邦家和氣自然生 방가화기자연생

푸른 언덕에 비 내리고 먼지 씻겨 맑아지니
온 세상이 모두 빛나 옛정을 부르누나.
하늘이 내신 단군, 기자, 낙토를 열고
사람들 예의 밝아 방명을 얻었도다.
문명 세계 이룬 꽃 늦게 피어도
담탕한 산과 물은 법치가 공평하네.
정순 정안 바르게 등도 하는 날
국가의 화한 기운 저절로 생겨나리.

* 靑丘-東方 韓國을 말함.

* 正,順,淨,安-國正天心順과 官淨民自安의 준말.

漢陽遷都 六百年 甲戌 五月

—

定都漢陽六百春	정도한양육백춘
昔王基業到今辰	석왕기업도금진
江山萬古如昇日	강산만고여승일
宮闕千秋似詔綸	궁궐천추사조륜
靈地發祥應保佑	영지발상응보우
先陰裕後願延新	선음유후원연신
以文開政又明德	이문개정우명덕
必也和同南北民	필야화동남북민

한양에 정도한지 600년인데
옛날 왕업이 지금에 이르렀네.
강산은 만고인데 햇별은 떠오르고
궁궐은 천추인데 왕에 말이 이어지는 듯
영지에 상서발해 응하여 보우하고
선왕 음덕 후에 내려 계속되길 원하노라.
文으로 정치 열고 덕을 밝혀 이어나가면
기필코 남북 민이 화동하리라.

二

天開形勝漢城東	천개형승한성동
秘地粧占勤政宮	비지장점근정궁
萬世藩屏文與武	만세번병문여무
千秋襟帶孝兼忠	천추금대효겸충
宛如禮樂先周制	완여례락선주제
復觀威儀舊國風	부관위의구국풍
邦運自茲尤盛大	방운자자우성대
大書靑史立崇功	대서청사입승공

하늘이 형승지 를 한양 동에 열어놓으니
秘地에 근정궁을 장점 하였네.
만세토록 병풍처럼 文과 武로 호위하였고
천추에 금대같이 孝와 忠이 지켜냈네.
완연한 禮와 樂은 옛 주나라의 제도였고
다시 보니 위익은 옛 나라 풍도였네.
나라 운이 이로부터 더욱더 성대해져
청사에 높은 공을 크게 써서 전해지리.

三

天以漢陽定大都	천이한양정대도
神人共感密規模	신인공감밀규모
萬家燈燭玲瓏市	만가등촉령롱시
九陌笙歌律動衢	구맥생가률동구
和氣方生生物物	화기방생생물물
豐聲自樂樂夫夫	풍성자락락부부
檀箕舊國休祥致	단기구국휴상치
永世和平啓壯途	영세화평계장도

하늘이 한양 땅을 대도로 정했으니
신과 인이 공감할 은밀한 규모일세.
만가에 등촉은 영롱한 도시이고
구맥에 풍류와 노래는 운율이 거리마다 들썩인다.
화기가 방생하니 물건마다 생기 나고
풍년 소리 즐거우니 사람마다 즐거한다.
단군 기자 옛 나라에 휴상이 극치하니
영세토록 평화 이뤄 장도를 열었도다.

德山郷校 忠州湖 丹陽八景 觀光

儒林揀日遠行輶 유림간일원행주
翰墨相從得勝遊 한묵상종득승유
雲霽峯頭淑氣帶 운제봉두숙기대
烟消湖上塵慮收 연소호상진려수
連岸奇岩鏡裡碧 연안기암경리벽
丹陽八景眼前幽 단양팔경안전유
幾人才子來斯地 기인재자래사지
嘆賞無言萬感留 탄상무언만감유

유림들 날을 가려 관광할 차를 타니
한묵인연 서로 따라 좋은 노름 얻었도다.
구름 개인 산 머리에 맑은 기운 띄어있고
연기 없는 호수 위에 세상 생각 걷히다.
연안에 기이한 바위 거울 속에 푸르고
단양에 8경치 눈앞에 그윽해라.
몇 사람의 제자들이 이곳에 와서
말없이 탄상하며 만감에 잠겨 들고

論介貞烈

養心義烈幾經春	양심의열기경춘
當此危難不顧身	당차위난불고신
城下卽今山氣肅	성하즉금산기숙
江流依舊月光親	강류의구월광친
佳姬勸酒揮悲淚	가희권주휘비루
敵將停杯問戰塵	적장정배문전진
嗟我美人何處在	차아미인하처재
慕貞那敢與讐隣	모정나감여수린

의와 열로 마음 길러 몇 해이던가
이러한 위난 당해 몸을 돌볼까
성 아래엔 지금도 산기운 엄숙하고
강에 흐름 옛과 같아 달빛이 친해
아름다운 여인이 술을 권하며 悲淚 뿌릴 때
적장 높은 잔을 멈추고 전진을 묻네
아~ 우리 미인은 어디에 있나
모정이 어떻게 원수 놈과 이웃하리요.

* 慕貞-千子文에 女慕貞烈의 준말로 여자는 貞烈을 사모한다는 말

其 二

遐躅相承度幾春 하촉상승도기춘
貞而又烈作忠臣 정이우열작충신
義岩祠古香烟篆 의암사고향연전
矗石樓空月影親 축석루공월영친
雨濕娘魂千載淚 우습낭혼천재루
霜飛將魄一朝塵 상비장백일조진
飄然臨訣毅然去 표연임결의연거
回首南州長水隣 회수남주장수린

높은 자취 서로 이어 몇 해 지났다.
貞하고 또 려하며 충신도 되었구려
의암사 옛터에는 향연이 서려 돌고
축석루는 비었는데 달빛만 친절한 듯
비에 젖은 낭자 혼은 천재에 눈물ियो
서리 맞은 적장 혼백 일조에 먼지로다.
표연히 임결하여 의연히 떠나갈 때
남주에 장수 이웃 돌아보겠지.

龍硯(栗谷先生 遺品) 2001. 10. 17

體鈍質玄似德鄉	체둔질현사덕향
濃生寶墨石香長	농생보묵석향장
磨來深井淸寒水	마래심정청한수
點去千朝大奎章	점거천조대규장
任筆昂揚同紙許	임필양양동지허
與文行止一筵芳	여문행지일연방
精而終得安仁壽	정이종득안인수
萬世閒中歲月忘	만세한중세월망

체는 둔하고 질은 玄하니 덕 있는 시골과 같아
질은 먹물이 생하더니 돌에 향기도 길게 나네.
깊은 우물 정한 수로 먹을 갈았고
천 조정 큰 규장을 점 찍어가네.

붓에 맞게 양양 할 때 종이도 함께하고
글과 함께 행지하면 한자리의 꽃이 된다네.
정하면서 마침내 安仁한 長壽 얻으니
만세토록 한가한 중에 세월도 잊었다오.

其二 2001. 10. 17

出自深山玄石鄉 출자심산현석향
雲粧龍刻價聲長 운장용각가성장
婺池點滴千年水 무지점적천년수
孔石文明萬世章 공석문명만세장
安坐常同書道友 안좌상동서도우
動行不必舞歌芳 동행불필무가방
靜中得壽閒中樂 정중득수한중락
堪笑繁華歲月忘 감소번화세월망

깊은 산 검은 돌이 나는 곳으로부터 나와
구름으로 치장한 후 용을 새기니 그 성가가 장원하도다.
무지에 물방울은 천년수이고
공석에 문명은 만세의 문장이로다.
편안하게 앉아서 항상 4友와 함께하고
행동할 땐 가무하는 꽃들은 필요치 않아
고요한 中에 수를 얻었고 한거한 中에 즐거워하니
변화함을 비웃으며 세월도 잊네.

- * 婺池-깊은 물 속에 있는 벼루의 원석이 있는 곳
- * 孔石-벼루의 별칭
- * 書道友-서도의 벗으로 지, 필, 묵, 연 문방사우를 말함

文襄公不祧廟禮成

通津別業優遊春 통진별업우유춘
六八平生學益新 육팔평생학익신
槐院當年回奎運 괴원당년회규운
長銓伊日遠風塵 장전이일원풍진
章章奏議論慷慨 장장주의논강개
節節官條布德仁 절절관조포덕인
旺屈山高祠宇壯 왕굴산고사우장
文襄偉蹟復修伸 문양위적복수신

통진 땅 별장에 우유한지 몇 해던가
68평생 배움 더욱 새로워라.
괴원 재직 당년에는 문장 업을 회복했고
이판으로 있던 그 날 풍진을 멀리했네.
장장 마다 아뢴 논의 논리가 강개했고
마디마디 官에 법조 덕과 仁을 베풀었네.
왕굴산 이 높은 곳에 사우도 장엄하니
문양공의 위적들이 다시 닦아 펴졌도다.

* 槐院-承文院을 지칭 * 長銓-吏曹判書
* 旺屈-산이름 * 文襄-시호

修德 六槐亭 金蘭雅會 庚寅年 三月 二十七日

累年隔會始今開	누년격회시금개
面面無忘如舊來	면면무망여구래
西菊雲梅追念日	서국운매추념일
石松里竹共登臺	석송리죽공등대
琢磨翰墨相逢席	탁마한묵상봉석
論講詩書更勸盃	논강시서갱권배
一世逍遙全性命	일세소요전성명
彈南風操好音回	탄남풍조호음회

누년동안 막힌 회의 이제야 처음 여니
얼굴마다 잊지 않고 옛과 같이 찾아왔네.
서거한 西, 菊, 雲, 梅 추념하는 날이 되고
건재한 石, 松, 里, 竹 다 함께 대에 올랐네.
탁마한 한묵들이 서로 만난 자리 되고
시서를 강론하며 다시 또 술잔 권해
한세상 즐기면서 성명을 보전하고
남풍곡조 즐겨 타니 좋은 소리 들리누나.

梅軒 尹奉吉 忠義祠 重建

彈聲動地又掀天 탄성동지우흔천
義氣燦然億萬年 의기찬연억만년
愛國精神明日月 애국정신명일월
倭仇虛夢化風烟 왜구허몽화풍연
更修畫樓千秋耀 갱수화누천추요
重建祠堂四面全 중건사당사면전
追憶當時壯舉事 추억당시장거사
芳名不朽長春傳 방명불후장춘전

폭탄 소리 땅 흔들고 또 하늘 흔드니
의기가 찬연하게 억만년을 빛내리라.
애국하는 그 정신은 일월같이 밝혀있고
왜놈들의 헛된 꿈은 風 烟처럼 사라진다.
다시 수선한 화루는 천추에 빛이 나고
중건한 사당은 사방이 완전하다.
당시에 장거 했던 그 일을 추억하니
방명이 썩지 않고 장춘을 전하리라.

祝 南沙 田奉勳 八旬 紀念詩集 刊行

南沙仁智兩全翁 남사인지양전옹
四七端情處義中 사칠단정처의중
性似精金良玉色 성사정금양옥색
儀如道骨又仙風 의여도골우선풍
闡幽微顯光前美 천유미현광전미
繼往開來裕後功 계왕개래유후공
百代同根花樹誼 백대동근화수의
茲將拙句寄征鴻 자장졸구기정홍

남사는 仁과 知가 양전한 옹이신데
4단과 7정으로 처의함이 맞았도다.
천성은 정결함이 금옥같이 빛이 나고
풍의는 도골에다 선풍을 겸했구려.
幽한 것은 闡하게 顯한 것은 微하게 하여 前美를 빛내주고
往을 繼하고 來를 開하여 後功을 넉넉히 하네.
백대에 같은 뿌리 일가 간에 정을 담아
졸구를 가져다가 征鴻 편에 부칩니다.

- * 闡幽微顯-숨겨진 일은 즉 숨어진 인물은 드러내주고 나타나 있는 인물은 적게 드러낸다는 말
- * 繼往開來-繼往聖開來學의 준말인데 먼저가신 성현을 이어주고, 오는 학자들을 열어준다는 뜻
- * 征鴻-가는 기러기인데 전하여 우편을 말함

洪性烈 教授 甲筵

南極星光耀禮東	남극성광요례동
仁人壽福享無窮	인인수복향무궁
開門甌道清高士	개문증도청고사
富架圖書教學翁	부가도서교학옹
德積多年餘慶大	덕적다년여경대
鏡磨幾日照心通	경마기일조심통
平生事業縱橫裡	평생사업종횡리
一貫精神三樂豐	일관정신삼락풍

남극성의 빛이 예산 동쪽에 비치니

어진 사람 수복을 한없이 누리누나.

증산교로 문을 열어 맑고 고상한 선비였고

서가에 가득한 도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옹이로다.

해를 두고 덕을 쌓아 여경이 방대하고

거울 간지 얼마 만에 마음이 통했던가

종횡으로 평생 사업 힘써가면서

일관된 그 정신에 3낙이 풍성하네.

* 三樂-1. 부모형제 무고안락

2. 위로 하늘에 아래로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3.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

* 鏡磨-誠意正心하여 道를 깨우치는 일

瀛州 濟州 吟 漢拏山景

石磴穿雲步步危 석등천운보보위
雨餘天氣快晴天 우여천기쾌청천
山高積雪經春在 산고적설경춘재
海闊長風盡日吹 해활장풍진일취
鶴駕不迷玄圃路 학가불미현포로
鳳簫留待赤松期 봉소유대적송기
從今欲試餐霞術 종금욕시찬하술
歸去人間莫恨遲 귀거인간막한지

돌 비탈길 구름 뚫고 걸음걸음 위험한데
비 지난 하늘 기운 쾌청도 하다.
산이 높으니 쌓인 눈은 봄이 갔는데도 남아있고
바다가 넓으니 긴 바람이 종일토록 불어댄다.
백학을 타고 날으니 현포에 길 어둡지 않고
봉소를 부니 적송선자 留待하는 듯
지금부터 신선 술법 시험해 보며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늦어짐을 한하지 않아

- * 赤松子-신선의 이름
- * 玄圃-신선이 사는 곳
- * 餐霞-신선이 먹고사는 식사의 도

其二

萬壑松杉一逕幽 만학송삼일경유
每逢佳處暫遲留 매봉가처잠지유
峰頭怪石羅千佛 봉두괴석라천불
岩底清泉到十州 암저청천도십주
直下洞天騎白鹿 직하동천기백녹
笑看仙子跨青牛 소간선자과청우
飄然迥出人間表 표연형출인간표
自此仍成汗漫遊 자차잉성한만유

만학의 송삼 속에 한 길이 그윽한데
언제나 좋은 경치 만날 때는 발걸음 늦어지고
봉두에 괴석들은 千佛을 나열한 듯
바위 밑에 맑은 샘물 十州로 흘러드네.
바로 아래 동천에선 白鹿을 타고
신선들 청우타고 웃음을 보네
표연하게 저 멀리 인간 밖에 나왔으니
이로부터 한만한 신선놀음 이루었네.

古詩

鏡浦湖

鏡浦風光勝岳陽	경포풍광승악양
騷人逕至咏歌長	소인답지영가장
回看古木當軒碧	회간고목당헌벽
俯瞰靑波滿眼蒼	부감청파만안창
地入壺中無俗客	지입호중무속객
船浮塵外掛高檣	선부진외괘고장
瀟湘八景奚專美	소상팔경해전미
別界煙霞落酒觴	별계연하락주상

경포대 풍광은 악양루 보다 좋은 곳
글 하는 사람 떼로 와서 영가를 길게 하네.
고목을 회간하니 軒에 맞서 푸르고
굽어보니 푸른 물결 눈에 가득 푸르도다.
병 속에 땅이 드니 속된 사람 하나 없고
먼지 밖에 배를 띄워 높은 돛을 달았노라
소상강 8대경만 어찌 혼자서만 아름다울까
경포 별계 구름 안개 술잔에 떨어진다.

南里 李承昌 古稀 2009. 8. 20.

南極星回南里天	남극성회남리천
賓朋爭頌七旬年	빈봉쟁송칠순년
身遊瑤草奇花裡	신유요초기화리
心悅光風霽月川	심열광풍제월천
兄弟子孫家盛大	형제자손가성대
康寧壽福德兼全	강녕수복덕겸전
舉觴更祝慇懃意	거상경축은훈의
餘慶綿延代代傳	여경면연대대전

남극성이 돌아보는 남리 하늘에
귀빈과 벗들이 칠순수를 쟁송하네.
몸은 기화요초가 있는 곳에 놓고
마음은 광풍제월천에서 기뻐하네.
형제 자손이 집안 가득 성대하고
강녕수복이 덕을 겸전 하였도다.
잔을 들어 다시 축하하는 은근한 뜻은
남은 경사 길고 멀리 뻗쳐 대대로 전해지길

賀 清江八句 2009. 12. 9.

故宅清江世德春 고택청강세덕춘
由來仁善美稱人 유래인선미칭인
桑蓬席上尤憐瑟 상봉석상우연슬
莪蓼詩中倍慕親 아요시중배모친
兩胤郎兼三鳳舞 양윤랑겸삼봉무
七昆季竝五蘭新 칠곤계병오란신
邇遐正賀室家慶 이하정하실가경
壽域和風精養眞 수역화풍정양진

고택 청강에 세덕을 펴는 봄
유래된 인과 덕을 아름답게 칭하는 사람이라.
팔순의 생일 아침 해로하는 아내 더욱 귀하고
육아의 시 중에선 아버이를 배나 더 사모게 하네.
두 아들에 세 손자가 귀엽기도 하고
七형제에 겸하여 五손녀로다.
원 근사람 많이 모여 축하하는데
수역에 화풍 불고 정하게 養眞하노라.

其 二

仙髮童顏不老春 선발동안불노춘
本來壽福在仁人 본래수복재인인
吹埴友瑟湛和日 취훈우슬담화일
悅樹歡蘭感慕親 열수환란감모친
玉性冰心元自淨 옥성빙심원자정
松姿柏志允尤新 송자백지윤우신
把毫更祝無疆禧 파호경축무강희
天以翁家報善眞 천이옹가보선진

동안에 선발이니 늙지 않는 봄
수와 복은 원래부터 仁人에 있네.
형제와 처자와 화락하는 날이 되고
여러 자식들이 아버이를 감모 한다오.
옥성과 빙심으로 본래부터 깨끗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참으로 새로워라.
붓을 들어 다시 무강한 복 축하하노니
하늘이 翁의 집에 진선을 갚아주네.

祝 蔡友南松 甲晬 채우 남송의 회갑을 축하함

鐵樹花開六一辰 철수화개육일진
平康舊宅益光新 평강구택익광신
家傳誠信仍成道 가전성신잉성도
性愛詩書自養眞 성애시서자양진
白髮慈幃亨壽福 백발자위형수복
綠園修竹脫烟塵 록원수죽탈연진
當今倍切思親日 당금배절사친일
孝順應多感古伸 효순응다감고신

철수에 꽃이 피는 회갑일인데
평강의 고택에는 빛이 더욱 새로워라.
가훈으로 전하는 성과 신은 도를 이루고
천성으로 사랑하는 시와 서 스스로 참을 기르네.
백발의 자당계선 수복을 누리시고
푸른 동산 대 숲에는 연진을 벗었도다.
오늘따라 부모 생각 배나 더한 날
효순 한 감응에 옛 생각 더 떠오른다.

又

華甲喜迎辰 화갑희영진
巨山瑞氣新 거산서기신
萱堂欣不已 흰당흔불이
蘭砌慶全伸 란체경전신
學海修身士 학해수신사
硯池弄筆人 연지롱필인
衷心一語祝 충심일어축
永保康寧身 영보강녕신

화갑을 기쁘게 맞이하는 날
거산에 서기가 새로워진다.
자당계선 기쁨을 멈추지 않고
자손들은 경사가 온전하게 퍼지는 도다.
학해에서 수신하는 선비이었고
벼루와 먹물로 룡 필하는 대가이라네.
충심으로 비는 한 말은
언제나 강령을 보전하는 몸

重九有感

閒中忽念趁良辰 한중홀념진양진
緩到金蘭同好人 완도금란동호인
溪繞樓臺沾落照 계요루대첨락조
野分東西動行塵 야분동서동행진
風烟消盡山如畫 풍연소진산여화
草木凋零菊更新 초목조령국갱신
與友登臨多感慨 여우등임다감개
秋光不老一壺春 추광불노일호춘

한가한 중에 좋은 때라 생각이 나서
천천히 금란회에 나가 동호인과 함께 하였네.
시냇물은 누대를 에웠는데 낙조에 젖어있고
들길은 먼지 속에 동서로 나뉘었네.
풍연이 사라지니 산 빛은 그림 같고
풀 나무 시들어도 국화만은 피어나네.
친구들과 등림하니 감개가 무량하여
가을빛이 한잔 술에 늙지 않누나.

* 重九-九月九日

儒道振興

黷昧淫雲圍我東 알매음운위아동
權丘難免化戎同 근구난면화용동
人心變易能金俗 인심변이능금속
世態狂奔戰霸風 세태광분전패풍
禮儀俱亡無士責 예의구망무사책
綱常已壞有誰通 강상기괴유수통
儒林際此道傷日 유림제차도상일
莫惜昏衢揚燭功 막석혼구양촉공

어둡고 음란한 구름 우리나라 에워싸니
무궁화동산도 西戎의 風化 면할 수 없네.
인심이 변역되어 돈이라면 그만이고
세태가 광분하듯 오랑케 바람뿐 일세.
예의가 모두 망했는데도 사관들의 책임 없고
강상이 다 무너졌으니 누가 있어 통할 소야
유림들이 이때 정도가 없어진 날을 당하여
어두운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는 공로를 아끼지 마라.

成均館 參拜

暇日儒林上漢城 가일유림상한성
祥雲瑞氣倍光生 상운서기배광생
鞠躬大殿尊賢意 국궁대전존현의
講讀倫堂慕聖聲 강독윤당모성성
古杏老槐皆貴重 고행노괴개귀중
高樓巨閣惣繁榮 고루거각총번영
笑談此日天方暮 소담차일천방모
分手離筵未了情 분수이연미료정

유림들이 틈을 내어 서울로 올라갈제
상서 구름 상서 기운 배나 더 빛이 나네.
대성전에 머리 굽혀 현인에 뜻 높이우고
강마하는 명륜당에 모성하는 소리 나네
옛 참나무와 괴목은 모두 다 귀중하고
고루와 거각들도 역시나 번영하네.
담소하는 이 날이 막 저물어 가는데
손 저으며 떠나는 자리 남은 정을 다 할 수 없네.

德山鄉校誌 刊行 自祝

一圖刊誌告功成 일도간지고공성
多小儒林意轉淸 다소유림의전청
體得綱常賢聖道 체득강상현성도
講明忠義孝仁聲 강명충의효인성
相傳事業全垂緒 상전사업전수서
肯輯精神備盡誠 긍집정신비진성
鄒魯遺風今尙在 추노유평금상재
琢磨磋切樂吾生 탁마차절락오생

도모했던 교지 간행 공을 이루니
다소의 유림들이 뜻 또한 청신하여
강상을 체득하니 성현의 도이었고
충의를 강명하니 효와 인의 명성 일세
상전하는 사업으로 온전하게 실마리를 드리웠고
궁집하는 정성으로 온 정성을 다 바치었네.
공맹의 끼친 풍토 지금까지 남았으니
탁마하고 절차 하며 우리 인생 즐겨보세.

其 二

經紀曾年刊誌成	경기증년간지성
先賢文蹟保前淸	선현문적보전청
山開道氣千秋色	산개도기천추색
水發淵源萬古聲	수발연원만고성
心重儒林修講學	심중유림수강학
情深校友見敦誠	정심교우견돈성
謾引自祝一樽酒	만인자축일준주
斯日難禁愧意生	사일난금괴의생

경영한지 얼마 안 돼 간지를 이뤄내니
선현들의 문적 또한 전과 같이 밝게 있네
산은 도의 기운 천년의 빛을 열고
물은 원천 깊은 만고의 소리 내네
마음으로 유림들의 강학을 수료함을 중요시했고
정이 깊은 교우들의 도타운 정성 발견했네.
천천히 자축하는 일준 주를 이끌어내니
이 날에는 내 부끄러운 생각 솟아남을 금할 수 없네.

其 三

隔歲刊謀此誌成	격세간모차지성
同心協力總傾誠	동심협력총경성
非徒鄉校自生色	비도향교자생색
必是儒林將有聲	필시유림장유성
道意薰薰全卷篤	도의훈훈전권독
文風振振各篇生	문풍진진각편생
告功絃誦開樽酒	고공현송개준주
無盡杏壇慕聖情	무진행단모성정

몇 해 동안 간모 했던 교지를 이뤄내니
동심하고 협력하여 모두다 성심을 다 했네
우리 향교만이 스스로 생색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유림들도 앞으로 명성이 있으리라
도에 뜻이 훈훈하니 전권이 돈독하고
문풍이 진진하니 각 편마다 빛이 나네
출간을 노래하며 자축연을 열었으니
모성하는 행단위에 무진한 정이 솟네

其 四

大賴儒誠見刊成	대뢰유성견간성
廣蒐文蹟各篇明	광수문적각편명
文如朗月千秋色	문여랑월천추색
道似長風万里聲	도사장풍만리성
白鹿佳規傳後世	백록가규전후세
石潭學範視來生	석담학범시래생
莫言今也彝倫絕	막언금야이윤절
一看此篇不勝情	일간차편불승정

유림들이 정성으로 교지 간행 이뤄내니
문적들을 널리 수집 각 편마다 밝혔도다.
문세는 밝은 달빛 천추에 빛이 되고
도덕은 장풍처럼 만 리에 소리 난다.
주자 선생 백록동규 후세에 전해주고
울곡 선현 학 범 또한 내생에 보여 주리
지금 와서 상운 이 끊겼다 말하지 마라
이 책을 한번 보면 그 정을 못다 하리

祝 石亭庾東赫 回婚筵 1967. 丁卯年

近世何多回蜃春 근세하다회근춘
始知沃地降仙眞 시지옥지강선진
彩舞庭中增瑞旭 채무정중증서욱
嚙雁門外動和仁 용안문외동화인
爲夫爲婦非前態 위부위부비전태
有子有孫感古新 유자유손감고신
鶴髮琴絃整整在 학발금현정정재
德家餘慶縱橫伸 덕가여경종횡신

근세에 어떻게 회혼 봄이 많을소냐
처음으로 옥천에 선진 있음 알았노라
채무 하는 뜰 가운데 상서 빛 더해지고
용 안에 분밖에는 화한 인이 움직이네
남편과 부인은 전에 모습 아니었고
아들과 손자들은 옛 생각 새로우리
학 발의 노부인이 정정하게 옆에 있어
덕가에 남은 경사 종횡으로 퍼지누나

其 二

天開壽域大東春 천개수역대동춘
福善家中先得眞 복선가중선득진
三棣庭蘭彩舞席 삼체정란채무석
四來賓客頌斯仁 사래빈객송사인
冥櫬爲杖鍊丹氣 명령위장련단기
承露釀樽導引新 승로양준도인신
重設東床獻賀日 중설동상헌하일
調絃鶴髮情自伸 조현학발정자신

하늘이 여는 수역 대동의 봄에
복선이 가득한 집 먼저 진실을 얻었도다.
삼체와 정란이 채무하는 자리이고
사방에서 오는 손님 사인을 송축하네
명영으로 杖을 하여 단전 기운 훈련하고
이슬 받아 술을 빚어 인도함이 새로워라
중설한 동 노상에 헌하 하는 날
학 발의 노부부는 정이 절로 퍼지누나

- * 大東-대지의 동쪽 * 三棣-三兄弟
- * 冥櫬-거북의 별칭 또는 신선이 집을 나무지팡이
- * 東床-東牢床인데 혼례 때 설치하는 초례상을 말함

頌 純齊任翁 回嗇

晚雁高飛歲暮天 만안고비세모천
難孤孝意頌遐年 난고효의송하년
更尋月下紅繩約 경심월하홍승약
重設床頭合髻筵 중설상두합근연
寶樹芝蘭家克盛 보수지란가극성
康寧壽德福兼全 강녕수덕복겸전
滿庭彩舞增花算 만정채무증화산
欲以圖書永世傳 욕이도서영세전

늦게 기러기 높이 나는 세모 하는 날에
효도의 뜻 외면할 수 없어 하년을 송축하노라
다시 달빛 아래 붉은 끈 약속을 찾고
거듭 상위에 합근하는 자리를 베풀었도다.
자녀 손들 훌륭하니 집안이 융성하고
수와 덕에 강녕하니 오복을 겸전했네
만정한 채 무속에 꽃 산을 더해주시
그림과 글씨로서 영세토록 전하려 하네

原韻 一

噦噦鳴雁小春天 옹옹명안소춘전
華燭再明晷甲年 화촉재명근갑년
何幸琴瑟偕此日 하행금슬해차일
且欣士友共斯筵 차흔사우공사연
却慚本業無曾續 각참본업무증속
每恨家規未繼全 매한가규미계전
子侄諸孫同繞膝 자질제손동요슬
願修文德永相傳 원수문덕영상전

옹옹하게 기러기 우는 소춘의 하늘
화촉을 다시 밝힌 회혼연이라
무엇보다 행복함은 금실이 함께 함이요
또다시 기쁜 것은 사우들이 동석함이라
본업을 제대로 이을 수 없어 부끄럽고요
가규를 온전히 지킬 수 없어 한이 되노라
아들 조카 여러 손자 둘러 있는데
글과 덕을 잘 닦아서 영세토록 전해가리라

祝 鶴山齊 落成

天眷斯文鶴宇成 천권사문학우성
八公烽火倍新清 팔공봉화배신청
山呈淑氣千年態 산정숙기천년태
水放晶光萬古聲 수방정광만고성
不日告功堪獻賀 불일고공감헌하
有時招客大傾誠 유시초객대경성
翁家孝弟人人感 옹가효제인인감
無盡芳香遠遠生 무진방향원원생

하늘이 사문을 도와 학산 재를 이루게 하니
팔공산과 봉화산이 배나 새롭네
산은 맑은 기운 천 년의 태도가 나고
물은 수정 빛 만고의 소리가 나네
단시일에 공 이루니 축하 인사 돋보이고
때맞추어 객 부르니 크나큰 성의로다.
옹 덕의 효와 제는 사람마다 감동하여
무진한 그 향기가 멀리멀리 퍼지누나

原韻 後孫 金東賢

積誠經營屋宇成 적성경영옥우성
一區泉石地偏淸 일구천석지편청
雲邊疊疊山呈態 운변첩첩산정태
檻外泠泠水放聲 함외냉냉수방성
邁軸當年餘舊躅 매축당년여구축
羹墻十世寓微誠 갱장십세우미성
構堂重責關興替 구당중책관흥체
涑恐孱孫或忝生 돌공잔손혹첨생

정성 쌓아 경영하여 사당을 이루니
일구의 천 석이 땅 한 편만 맑고 밝아
구름 갓이 첩첩하니 산이 태도를 자랑하고
난간 밖이 냉랭하니 물은 소리를 방출하네
일을 하시던 당년에 옛 자취만 남아 있고
추모의 십 세 후에 작은 정성 부칩니다.
집을 짓는 중한 책임 흥체가 달렸으니
못난 후손에 혹 더럽힘이 생길까 두렵노라

西峴祠 重建禮成

先賢歸處重成堂 선현귀처중성당
望裡溪山如畫鄉 망리계산여화향
簾掛雨中疎竹響 림괘우중소죽향
軒通山外紫霞光 헌통산외자하광
孝心誠意後仍發 효심성의후잉발
忠魄烈魂先代長 충백열혼선대장
顯晦惟時今古在 현회유시금고재
雲藏高躅漸回陽 운장고촉점회양

선현이 가신 곳에 다시 사당 이루 우니
바라보는 계산은 그림 같은 고향일세
밭에는 싹 하는 대 소리가 걸려 있고
마루에는 산 밖의 노을빛이 통하누나
효심과 성의는 후손에서 창발하고
충 백과 열 혼은 선대부터 장원했네
때에 따라 밝아지고 어두워짐은 예나 지금의 이치
구름에 가리였던 높은 자취 이제 점점 밝아지누나

原韻 後孫 朴惠東

積年經紀築祠堂	적년경기축사당
俎豆公論舉一鄉	조두공론거일향
多士群孫同協力	다사군손동협력
仁山智水更增光	인산지수경증광
遺風不絕三綱重	유풍부절삼강중
餘蔭無窮百歲長	여음무궁백세장
天理昭然皆有報	천리소연개유보
西峴高額泰山陽	서현고액태산양

오랫동안 경영했던 사당 이루니
제향 해야 했던 공론이 일향에 넘치도다.
여러 선비 많은 후손 다 같이 협력했고
인산과 지수 또한 큰 빛을 발 하누나
유풍이 부절하니 삼강이 중대하고
남긴 음덕 무궁하니 백세토록 길이 가네
천 리가 소연하여 모두 다 보답 있어
서현 이란 높은 현액 태산의 양지로다.

* 西峴-서 현의 사당이름 .서현사라 함

戲贈 梨花 女主人

問余何事頻尋茶 問여하사빈심다
與子相通意志多 여자상통의지다
琴不知音和者小 금불지음화자소
玉無識眼幾年過 옥무식안기년과
華容富德仲秋月 화용부덕중추월
文味清香九菊花 문미청향구국화
瞻彼海頭冬栢樹 첨피해두동백수
四時蔚蔚照蒼波 사시울울조창파

나보고 왜 다방을 자주 찾느냐 물어본다면
주인과 의지가 서로 통해서라고
거문고에 음을 알 수 없으니 화답하는 이 없고
옥을 알아보는 눈이 없이 몇 해를 지냈을까
고운 얼굴 부덕하니 중추에 달과 같고
글에 뜻은 맑고 향기로우니 구월에 국화 같네
저 바다 언덕에 동백나무를 보아라
사시에 푸르른 빛이 창파에 비치는 것을

其 二

謝別松心自有期 사별송심자유기

時多逸興好言詩 시다일흥호언시

淸風茶室暫留客 청풍다실잠유객

還到竹林玩月遲 환도죽림완월지

송심과 辭別함이 스스로 기한을 두었는데
때로는 뛰어난 흥취도 있었고 좋은 시를 말해 주었지
맑은 바람 다실에서 잠시 유했던 손이
다시 죽림으로 돌아오니 달구경하기 지루하구나

祝 鶴峰 李秉翼 停年 退任

歸去來時百感生 귀거래시백감생
門前榆柳自陰成 문전유유자음성
早遊宦海多餘績 조유환해다여적
晚寓儒林欲盡誠 만우유림욕진성
解櫪騏思千里路 해력기사천리로
脫籠鶴得九天情 탈롱학득구천정
若夫勉勉眞工聖 약부면면진공성
兩爵俱全與子明 양작구전여자명

정년하고 돌아올 때 많은 감회 생기겠지
문 앞에 유류들은 스스로 무성하네
소년에는 공직에서 많은 업적 남기었고
노년에는 사림에서 지극 정성 다 하려 하네
마판에서 풀린 준마 천리 길을 생각하고
농속에서 나온 백학 장천의 뜻 얻었구려
만약에 힘을 다해 참성도 공부하면
천작인작 함께 하여 그대를 밝혀주네

原韻 二

停年退任感懷生	정년퇴임감회생
夢裡光陰六七成	몽리광음육칠성
宦海曾時無美蹟	환해증시무미적
詞林晚境費精誠	사림만경비정성
聖賢追慕承先業	성현추모승선업
士友從遊續舊情	사우종유속구정
拙稿收編雖是愧	졸고수편수시괴
兒孫勸學證心明	아손권학증심명

정년 퇴임하니 감회가 나고
꿈속의 광음이 67세 되었네요
일찍 재직할 때 아름다운 업적 없었으니
느지막하게 사림에 정성을 다하려 하오
성현을 추모하여 선대 업적 이어가고
선비 친구 쫓아 놀아 옛정을 이루리라
졸한 글을 거두어 기록함이 부끄러우나
아손들의 배움을 권하는 마음 밝힘이라

鎮南館 望海樓 진남관 망해루에서

雄起古樓壓海東 옹기고루압해동
水光万里接天同 수광만리접천동
鶴鳴寥廓扶桑月 학명요곽부상월
鵬帶長空縹緲風 봉대장공표묘풍
漁火島雲明滅外 어화도운명멸외
船音簫響有無中 선음소향유무중
遍看多彩鎮南祭 편간다채진남제
文物咸新傳不窮 문물함신전불궁

옹기 한 고루가 해동을 압도하니
물빛이 만 리 인데 하늘 달아 같이 한 듯
학에 울음 요곽 한데 부상에 달이 뜨고
봉새는 장공을 나는데 아득하고 먼 바람이 부네
어화와 도운은 밝아졌다 꺼졌다하는 밖이 이고
선음과 소향은 있다 없다 하는 중이로다.
다채로운 진남축제 두루 살피니
문물이 함신하여 전함이 무궁하다.

- * 寥廓-횡등그레 한 모양. 확 트인 모양
- * 扶桑-달이 뜨는 최 동쪽을 말함
- * 縹渺-아득하고 묘한 모양

其 二

古樓更起鎮南東	고루경기진남동
望碧連天上下同	망벽연천상하동
玉笛橫邊人在檻	옥적횡변인재함
沙禽飛外海含風	사금비외해함풍
灘聲岳色新晴後	탄성악색신청후
橋影雲光夕照中	교영운광석조중
芳草汀洲烟定處	방초정주연정처
登臨客子感無窮	등임객자감무궁

고루가 웅기 하여 동남 바다 진압하니
바라보는 푸른 하늘 위아래가 한빛이라
옥피리 부는 주위 사람들 난간에 의지하고
물새들 나는 밖에 바다에는 바람 가득
바닷소리 산빛은 새로 개인 뒤가 좋고
교영과 운광은 석조 때가 아름답네
정주에 풀 푸르고 연기가 일정한 곳
등림하는 객들의 감회가 무궁하리

其 三

望樓復起鎮南東 망루부기진남동
白日場開祝祭同 백일장개축제동
簷上雲迎千里月 첨상운영천리월
檻外濤送遠洋風 함외도송원양풍
笛橫芳草夕陽外 적횡방초석양외
鷺睡蒼洲微雨中 로수창주미우중
遙憶當時遺償物 요억당시유상물
滄桑世變感無窮 창상세변감무궁

망루가 다시 일어 동남쪽을 진압하니
백일장을 크게 열고 축제를 함께하네
처마 위에 높은 구름 천리 달빛 맞이하고
난간 밖에 파도소리 원양 풍을 보내는 듯
피리 소리는 푸른 풀 석양 밖에 빗겨 있고
갈매기는 푸른 물가 빛 속에 졸고 있네
장군 당시 유상한 사물들을 멀리 추억하니
창상으로 변한 세상 감개가 무궁하여라

* 滄桑-상전벽해라는 말과 같음

村行

馬穿山逕菊初黃 마천산경국초황
信息悠悠野興長 신식유유야흥장
萬壑有聲含晚籟 만학유성함만뢰
數峰無語立斜陽 수봉무어립사양
棠梨葉落臙脂色 당이엽락연지색
蕎麥花開白雪香 교맥화개백설향
何事吟餘忽惆悵 하사음여홀추창
村橋原樹似吾鄉 촌교원수사오향

古詩

말 타고 산길을 뚫고 가는데 국화는 처음 피었고
소식은 아득한데 야흥은 깊어진다.
만학에 소리 있어 만뢰를 머금었고
수봉은 말이 없이 사양에 서서 있네
당리 에 앞 새 지니 연지 빛이 떨어졌고
메밀에 꽃이 피니 백설에서 향기 나는 듯
어인 일로 시를 읊다 갑자기 서러워질까
촌교와 언덕 나무들이 내 고향과 흡사하네

- * 晚籟-저녁 때 사방에서 들리는 천지 자연의 소리
- * 蕎麥花-메밀꽃

祝 安友泰淳弧筵

壽星耀彩道城東	수성요채도성동
諸子群孫斑舞同	제자군손반무동
鐵樹花開增瑞日	철수화개증서일
芝蘭葉茁滿春風	지란엽졸만춘풍
修身自得琴書趣	수신자득금서취
勤意傾誠翰墨功	근의경성한묵공
種善君家應有報	종선군가응유보
天將慶福賜無窮	천장경복사무궁

수성이 빛을 도성 동에 발휘하니
제자와 군손들 이 채색 춤을 함께 하네
철수에 꽃이 피어 상서로운 빛 더해주고
지란에 잎새가 무성하니 봄바람이 가득하네
몸을 닦아 금과 서의 취미를 자득하니
근의로 경성하여 한묵의 공 이루었네
종선한 그대 집에 응당한 보답 있어
하늘이 경사와 큰 복을 한없이 내려주시리

其 二

學問從師君我同	학문종사군아동
想今懷古感無窮	상금회고감무궁
玉無識眼如凡石	옥무식안여범석
文不遭時似拙翁	문불조시사졸옹
整整瑟瑟迎瑞日	정정슬금영서일
軒軒龍鳳動祥風	헌헌용봉동상풍
金蘭契後情尤篤	금란계후정우독
深祝君家福履崇	심축군가복리숭

학문하며 종사함은 그대와 나 동일하고
지금을 생각하고 옛 일을 회고하니 감개가 무궁하네
백옥도 아는 이 없으면 범석과 같아지고
문장도 때 못 만나면 못난 옹과 유사하다네
정정한 금실은 상서로운 날을 맞이했고
헌헌한 용과 봉은 상서 바람 일으키리라
금난 계 맺은 후로 정이 더욱 돈독하여
길이길이 그대 집에 복 있기를 빌어주네

金蘭雅會

此地雖非會稽東 차지수비회계동
群賢咸集少長同 군현함집소장동
招賓還愧無珍味 초빈환괴무진미
臨酒自歡伴雅風 임주자환반아풍
林鳥近窓自發樂 임조근창자발락
山花映室滿開紅 산화영실만개홍
修蘭奚獨王公羨 수란해독왕공이
視昔視今一致功 시석시금일치공

이 곳이 비록 회계산 동편은 아니지만
군현들 다 모여서 노소가 함께 하네
손님은 불렀으나 오히려 진미 없음 부끄럽고
술잔을 대해보니 절로 청아한 풍의를 기뻐하노라
숲에 있던 새들은 창에 가까이 와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산꽃은 방에 비취 만개한 빛을 내네
난계를 강신함에 옛 왕희지만 부러워할까
옛과 지금을 대비하니 똑같은 시공일세

- * 會稽-중국 저장성 남쪽에 있는 산
- * 王公-王羲之를 지칭함

無題 三

相見時難別又難	상견시난별우난
東風無力百花殘	동풍무력백화잔
春蚕到死絲方盡	춘잠도사사방진
蠟炬成灰淚始乾	랍거성회루시건
曉鏡但愁雲鬢改	효경단수운환개
夜吟應覺月光寒	야음응각월광한
蓬萊此去不多路	봉래차거다로
靑鳥殷勤爲探看	청조은근위탐간

서로 볼 때도 어렵지만 이별할 때도 더 어렵구려
봄바람 힘없는지 모든 꽃 지게 하네
봄누에는 힘없는지 실을 다 토하고
선달 햇불 재가 돼야 눈물 마르지
새벽에 거울 보며 검은 머리 변했음을 서러워하고
저녁에 시 읊으며 달빛이 차가움을 느끼노라
봉래산 가는 길이 많지 않은데
파랑새는 은근히 더듬어보라 하는 듯

又

臘雪紛紛歲暮時 랫설분분세모시
見君一札意遲遲 견군일찰의지지
男兒居處長看野 남아거처장간야
知士逢迎不失期 지사봉영불실기
有志能成真特事 유지능성진특사
無心但費日光流 무심단비일광류
至誠一到難何在 지성일도난하재
此後巨功必是收 차후거공필시수

설달 눈 분분한 이해 저물 때
그대의 편지 보니 내 마음 우울하도다.
남아의 거처는 시야를 길게 해야 하고
지사의 봉영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네
뜻이 있으면 능히 참으로 특별한 일을 이루어내고
마음이 없으면 다만 세월만 허비한다네
지성이 닿는 곳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후부터 큰 공을 반드시 이루리라

金蘭會 問候

良春佳節慕諸賢 양춘가절모제현
未接聲聞意愴然 미접성문의창연
詩社同盟先後輩 시사동맹선후배
金蘭擬結舊新緣 금란의결구신연
我今洛國千年地 아금락국천년지
君在湖鄉万里天 군재호향만리천
消息窮餘無問處 소식궁여무문처
一封書札各家傳 일봉서찰각가전

양춘가절이니 벗님들 생각 가득
성문을 접하지 못해 마음이 서럽구나
사회에서 함께한 선·후배님들
금란에서 맺은 친구의 연
나는 지금 천 년 땅 서울에 있고
그대들은 만 리 하늘 아래로구려
소식을 물을 곳 없어 답답한 마음
한 장의 편지글로 벗님들께 전하노라

偶題

塵愁煩惱老年加 진수번뇌노년가
世事紛紛似亂麻 세사분분사란마
二月東風和暢日 이월동풍화창일
殷春大地滿開花 은춘대지만개화
慕賢尊聖時居校 모현존성시거교
弄墨吟詩或出家 룡묵음시혹출가
生我故園何處是 생아고원하처시
瑞雲陣陣接天涯 서운진진접천애

오만근심 번뇌함이 노년에 더해지니
세상사 분분함이 난마와 같네
2월이라 동풍 불어 화창한 날에
봄날의 대지에는 활짝 핀 꽃이로다
현인을 사모하고 성인을 높여 때로는 향교에서 살아도 보고
글씨도 써보고 시를 읊으려고 혹 집을 나서도 보았네
내가 태어났던 고향이 어드메인가
상서 운 뭉게뭉게 하늘가에 달아있네

追慕 梅軒義舉六十周年紀念

追思往跡怒奔天 추사왕적노분천
取義忘生早歲年 취의망생조세년
卓立貞忠靑史裡 탁입정충청사리
分明壯節太光邊 분명장절태광변
非徒士女皆醒夢 비도사녀개성몽
能使東西各警眠 능사동서각경면
當此六旬文化祭 당차육순문화제
凜容望若古荊燕 림용망약고형연

노분 했던 지난 자취 추사해보니
의를 취해 생을 잊었음이 젊은 나이로
곧은 충성 역사위에 높이 세웠고
분명하고 장한절의 태양과 같네
모든 남녀들의 꿈만 깨웠을 뿐 아니라
능히 동서양의 사람들에 잠을 깨웠지
이러했던 의거 60년을 당하고 보니
늠름하신 그 모습이 옛날 연나라 형가와 같네

* 古荊燕-옛날 연나라 형가란 의사가 독향산 그림을 진시황에게 바친다는
명목으로 진시황을 대한 후 척살하려 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한 고
사. 연나라 형가를 지칭함.

沙平 古縣 秋色

沙平古邑帶秋陽 사평고읍대추양
無盡景光無盡長 무진경광무진장
湖月江雲多興味 호월강운다흥미
岸楓野菊晚風霜 안풍야국만풍상
謾吟自喜囊詩富 만음자희낭시부
緩步還酣佩酒香 완보환감패주향
未易浮生常會合 미이부생상회합
肯教名蹟付吾鄉 긍교명적부오향

사평의 고읍에 가을빛 완연하니
무진한 경색이 무진장하다
호월과 강운에는 흥미가 많고
안풍과 야국에는 늦가을 서리로다.
시 읊기를 좋아하니 사랑의 시 가득
천천히 산보하다 술 향기에 취했노라
우리들의 이런 모임 쉽지 않은 일
名蹟이 우리 고장에 붙여 있음을 즐거워하노라

* 沙平-신평의 옛 이름

* 囊-詩囊 시가 담겨있는 주머니. 奚囊이라고도 함

其 二

賞秋時適屆重陽 상추시적계중양
足暢詩情江海長 족창시정강해장
月滿月虧看世事 월만월휴간세사
鴻來鴻去問星霜 홍래홍거문성상
山容的歷雲邊出 산용적역운변출
菊影婆娑院裡香 국영파사원리향
聞道竹軒開雅會 문도죽헌개아회
源源筇屨訪斯鄉 원원공구방사향

가을을 감상하니 때는 마침 중양이라
시의 정을 창서하니 강해처럼 길고 기네
달이 찾다 이지러졌다 함으로 세상일 살펴보고
기러기가 왔다 갔다 함으로 세월을 물어본다.
산 모양은 또렷하게 구름 가에 나와 있고
국화 그림자 어른어른 집안에 향내 뿜네
들으니 죽헌 댁에서 아회를 연다 하여
이어지는 발걸음이 이 시골을 찾았노라

* 重陽-九月九日

* 星霜-歲月

* 源-이어지는 모양

其 三

楓菊爭佳九九陽 풍국쟁가구구양
沙平秋色眼中長 사평추색안중장
雲井湖月今如許 운정호월금여허
望客山雲度幾霜 망객산운도기상
對酒成眠魂夢煖 대주성면혼몽난
題詩論古頰牙香 제시논고협아향
此間兼得同心友 차간겸득동심우
四美二難集此鄉 사미이난집차향

단풍과 국화가 쟁염하는 구월 구일에
사평에 가을빛이 눈에 들어 길어진다
운정호의 밝은 달빛 이와 같으니
망객산에 저 구름은 몇 해나 지났을까
술을 대해 잠 이루니 꿈과 혼이 따뜻하고
글을 쓰고 논고하니 불과 이가 향기롭네
이런 중에 겸하여 동심 친구 얻었으니
사미와 이난이 이 시골에 다 모였도다

* 四美-네 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良辰(좋은 때), 佳景(아름다운 경), 賞心, 樂事

* 二難-賢主(현명한 주인), 佳賓(아름다운 손님)

祝 文民政府 出帆

青臺向曙漏丁東	청대향서루정동
上下勤勤政教同	상하근근정교동
禮樂徐回周代俗	례악서회주대속
威儀復觀漢時風	위의부관한시풍
法嚴群宰鵷斑裡	법엄군재원반리
律肅三軍蟻陣中	률숙삼군의진중
從此文民登大道	종차문민등대도
邦基安泰慶無窮	방기안태경무궁

청와대 새벽 향해 물시계소리 정동한데
상하관리 부지런히 정교를 함께 하네
예와 악은 천천히 주나라 때 풍속으로 돌아오고
위와 의는 또다시 한나라 때 풍도를 보겠노라
법은 여러 재상 원반 속에 엄정하고
기율은 육 해 공 삼군 진에 정속하도다.
이후부터 문민정치 큰길로 올라가니
국기가 안태하여 경사가 무궁하여라

- * 鵷斑-문무 관원이 반열에 서 있는 모양
- * 蟻陣-三軍이 엄숙하게 진열된 모습
- * 漏丁東-옛날 물시계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

又

惟一太陽出海東	유일태양출해동
文民天地摠和同	문민천지총화동
賊心鎮壓正司劍	적심진압정사검
士氣昂揚新革風	사기양양신혁풍
元首奪還千苦後	원수탈환천고후
政權爭取萬難中	정권쟁취만난중
鞠躬盡瘁無休曰	국궁진취무휴왈
創造安韓義不窮	창조안한의불궁

유일한 태양이 해동에 솟아나니
문민의 천지에서 총화를 함께 하네
도적에 마음은 사정의 칼로 진압하고
사기는 새로 바뀐 혁풍으로 양양하네
원수는 천 번 고생 끝에 탈환하고
정권은 만 번 어려움 속에 쟁취하였지
몸을 굽혀 가진 고춌 다하면서
편안한 한국을 만들었으니 그 의가 끝이 없어라

忠義館落成

經始營之告厥成	경시영지고꺾성
官民協力摠關情	관민협력총관정
棟梁秀麗魚龍動	동양수려어용동
窓戶玲瓏日月明	창호영롱일월명
建造神奇開勝地	건조신기개승지
規模宏壯出高城	규모굉장출고성
諸賢功蹟猶難記	제현공적유난기
世世相傳讚賀聲	세세상전찬하성

처음부터 경영하고 경영하여 낙성식을 이루니
관과 민이 협력하니 모두 다 관정이 깊네
동량이 수려하니 어용이 움직이고
창호가 영롱하니 해와 달이 밝도다.
건조함이 신기하여 좋은 곳에 열어놓고
규모가 굉장하니 높은 성을 넘도다.
제현들의 공적을 다 기록하기 어려워
찬하의 소리는 세세에 상전되네

祝 天安發展

雄誇灵山太祖陽	웅과령산태조양
東西文物滿城芳	동서문물만성방
義烽並邑應嚆矢	의봉병읍응효시
鐵道京南亦濫觴	철도경남역람상
群突黑烟千里霧	군돌흑연천리무
高層白堊一天霜	고층백악일천상
通商貿易要衝地	통상무역요충지
直割市成時不長	직할시성시불장

크게 자랑할 만한 영산 태조산 남쪽에
동서의 문물이 성에 가득 꽃이로다.
의로운 봉화는 병천에서 시작되고
경남의 철도는 또한 천안에서 시발하였네
군돌에 검은 연기 천리에 안개 같고
고층의 높은 집은 한 하늘의 서리 같네
통상과 무역의 요충지인데
직할시가 되는 것은 시일이 멀지 않아

* 嚆矢, 濫觴 - 둘 다 시작함을 말함

追慕 忠武公 誕辰

殉國生民幾百年	순국생민기백년
誕辰追慕感無邊	탄신추모감무변
望臺如聞招魂笛	망대여문초혼적
觀浦尙餘罷敵船	관포상여파적선
德配乾坤誰不仰	덕배건곤수불앙
忠同日月政堪然	충동일월정감연
掃除倭寇安疆土	소제왜구안강토
靑史千秋業蹟傳	청사천추업적전

순국하여 생민한지 몇백 년인가
탄신을 추모하니 감회가 끝이 없네
망대에선 초혼피리 들려오는 듯
관포에도 아직까지 파적 선이 남아 있도다.
덕은 건곤을 배합하니 추앙하지 않는 이 없고
충성은 일월 같아 정히 감연하도다.
왜구를 소제하고 강토를 편안히 하니
청사에 업적이 천추에 전해졌네

奇高峯先生 道學 擅揚

白日場開廣募詩 백일장개광모시
先生誕降半千期 선생탄강반천기
春風道學山河動 춘풍도학산하동
秋月文章木石知 추월문장목석지
理氣陰陽無不重 리기음양무불중
爭論四七有何遲 쟁론사칠유하지
讚揚禮義網常立 찬양예의망상립
教化承承繼繼思 교화승승계계사

백일장을 열어놓고 시를 모집하니
선생께서 탄생 하신 지가 반 천 년이 되었다.
봄바람 같은 도학은 산하를 감동 시키고
가을 달 같은 밝은 문장은 나무와 돌도 알아
이와 기와 음양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사단 칠정을 논쟁함에 무슨 더듬이 있었을까
찬양하노니 그럼으로 인해 오륜 삼강이 설 수 있고
교화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를 생각한다오

大興東軒舍 柱聯

成万順等兄弟分 성만순등형제분
秉彝至行大名傳 병이지행대명전
氷心晶性元無累 빙심정성원무누
玉質金姿久益堅 옥질금자구익견
拋他世路功名志 포타세로공명지
歸作山家孝友專 귀작산가효우전
懿跡流芳千載後 의적류방천재후
綱倫復燦萬人前 강륜부찬만인전

이성만과 이순등 형제분은

천부적인 효도와 우애로 큰 이름이 오래도록 전해가네

얼음같이 깨끗하고 수정처럼 맑은 성품 원래부터 누가 없고

금옥같은 굳은 바탕 오렐수록 더욱 견실하네

세상에 공명에 뜻은 저 멀리 던져 버리고

산가로 귀착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하는 사람도리 실천했네

아름다운 행적은 응당 천 년 후세까지 전해가니

지극한 그 행실은 만인 앞에 특출했네

祝 西野李寅燮翁 稀壽

雲淡插橋暮春天 운담삽교모춘천
古來稀慶設斯筵 고래희경설사연
星回南極無量壽 성회남극무량수
日永西郊不老仙 일영서교불노선
子葉孫枝成寶樹 자엽손지성보수
左琴右瑟御瑤絃 좌금우슬어요현
人間此日誠難事 인간차일성난사
應作書圖万代傳 응작서도만대전

구름 맑은 삽교 땅 늦은 봄날에
예로부터 70 고희 경사였다오
남극별이 회조하니 무량한수요
해가 긴 서녘 들의 불로의 선인
아들 손자 모두 다 보배나무요
좌금우실 정겨운 노부부일세
인간에서 이런 일 쉽지 않은 일
글로 쓰고 그림 그려 대대로 전하리라

儒林探勝

萬樹方濃是綠陰	만수방농시록음
儒林探勝共歌吟	유림탐승공가음
大關嶺接靑天氣	대관령접청천기
仙窟宮傳造化音	선굴궁전조화음
雨下長洲芳草霽	우하장주방초제
雲棲列岫碧山深	운서열수벽산심
一霄兩日眞情樂	일소양일진정락
老益強康少壯心	노익강강소장심

온 나무 무르녹는 이때가 녹음인데
유림들과 구경하며 노래하고 시도 읊어
대관령은 청천에 기운을 접해 있고
선 굴암은 조화의 소리를 전해 주는 듯
비 내린 긴 물가에 방초가 개어있고
구름 얽힌 못 봉우리 푸른 산이 깊도다.
일박량일 다니면서 진정으로 즐거움은
노익장 한 그 모습 소 장년을 능가하네

寒食

今年寒食在崇山	금년한식재송산
山裡風光亦可憐	산리풍광역가련
稚子就花拈蛺蝶	치자취화념협접
女人依樹繫鞦韆	여인의수계추천
郊原草綠初經雨	교원초록초경우
巷陌春陰乍禁烟	항맥춘음사금연
儒子囊貧莫惆悵	유자낭빈막추창
酒錢猶有撰書錢	주전유유찬서전

금년 한식날엔 덕숭산에 있는데
산 속에 풍광 또한 사랑스럽네
어린아이 꽃밭에서 나비를 잡고
여인네들 나무 아래 그네를 탄다.
앞들에 풀 푸르니 첫 비가 지나갔고
시골 언덕 봄 그늘에 잠깐 연기 쉬어도다.
유자들아 주머니 비었다고 서러워 마시오
술값은 그래도 글 쓴 돈이 남아 있다오

賀 石亭 李殷斗 稀壽

頌祝石亭稀壽年 송축석정희수년
康寧富貴德兼全 강녕부귀덕겸전
心如蒼海無窮水 심여창해무궁수
氣似春風不老仙 기사춘풍불노선
詩禮傳家承舊業 시례전가승구업
瑟琴偕座設斯筵 슬금해좌설사연
福田若此皆圓滿 복전약차개원만
善畫猶難盡一篇 선화유난진일편

석정 옹의 희수를 송축하노니
강녕에 부귀하고 덕 또한 겸전 했네
마음은 푸른 바다 무궁한 물과 같고
기운은 봄바람에 늙지 않는 신선 같구려
시례로 전수하니 구업을 이어가고
금실이 함께 앉아 이 자리를 빛내 다오
복전이 이와 같이 모두 다 원만하니
선화도 오히려 한편으로 다하기 어려울 듯

原韻 主人

倏忽光陰七十年 속흘광음칠십년
鬢衰髮白問何全 빈쇠발백문하전
愚吟日久愚吟客 우음일구우음객
嗜酒時多嗜酒仙 기주시다기주선
才不輔仁忝雅契 재불보인첨아계
齒無稱德愧斯筵 치무칭덕괴사연
禮雖薄矣林亭爽 례수박의림정상
詩韻兼淸作一篇 시운겸청작일편

빠른 세월 벌써 70년인데
수염도 쇠하고 머리도 희었으니 무엇인들 온전할까
우음이 오랫동안 그래도 우음이요
술 마신 많은 세월 술에서 신선이라
재주가 인을 돕지 못하니 아계에 욕이 되고
나이가 덕을 따르지 못하니 이 자리가 부끄럽네
예는 비록 박하나 임정은 시원하고
겸하여 시운도 정청하니 일편 詩를 지어보소서

又

我會交契己多年	아회교계기다년
厚德溫仁百福全	후덕온인백복전
無窮興發無窮趣	무궁흥발무궁취
不老身爲不老仙	불노신위불노선
家和常有賢妻釀	가화상유현처양
子肖能開衛父筵	자초능개위부연
佳客盈門相頌祝	가객영문상송축
璣珠璨璨寓詩篇	기주찬찬우시편

나 일찍이 교계한 지 여러 해
후덕하고 온인하여 모든 복이 온전하네
무궁한 흥은 무궁한 취미를 발해주고
늙지 않는 몸은 늙지 않는 신선이라네
집이 화하면 언제나 현 처에 술이 있고
자식이 현명하면 늘 아버이를 위하는 자리를 열지
아름다운 손님들 문에 가득 송축하는데
구슬처럼 빛나는 말 시편에 가득하도다.

清白吏 精神

清白于今立像徵	청백우금입상징
何因吏道漸汚增	하인리도점오증
龐村所守千秋鑑	방촌소수천추감
古佛攸行万世燈	고불유행만세등
無數衣冠貪賂沒	무수의관탐뢰몰
幾多蹄轍備員登	기다제철비원등
正心奉職始終一	정심봉직시종일
兩爵兼全長善應	양작겸전장선응

청렴 결백 지금까지 상징으로 세웠는데
어인 일로 이 도가 점점 오염을 더 해가나
황희 정승 지킨 바는 천추의 거울이요
맹 승상의 실행한 일 만세에 등불이라
무수한 관료들이 탐뇌에 빠져 있고
얼마나 많은 고관들이 자리만 채워 올랐느냐
정심으로 봉직하고 시종이 여일 하면
천작인작 겸전하여 길이 좋게 응하리라

* 龐村-황희 정승의 호

* 古佛-맹사성 정승의 호

雙嶺 次白居易先生 韻

一山嶺作兩山嶺 일산령작양산령
兩嶺原從一嶺分 양령원종일령분
左澗橫流歸右澗 좌간횡류귀우간
東雲細起亘西雲 동운세기궁서운
後林石角前林出 후림석각전림출
上棧人聲下棧聞 상잔인성하잔문
又是殘花班錯見 우시잔화반착견
觸來杖履落紛紛 촉래장구락분분

한 산의 고개가 두산의 마루를 만드니
두 산의 마루가 원래는 한 산의 마루에서 나누어졌는데
좌측 시냇물이 횡류 하여 우측 시내로 돌아가고
동편에 구름이 일더니 서편 구름과 걸쳐있네
후림에 석각은 전림에서 나온 것이요
상잔에 인성은 하잔에서 듣는도다.
또다시 남은 꽃이 반짝반짝 보이더니
사람들에 부딪히며 어지럽게 떨어지네

讚 天安名物 巨峰 葡萄

巨峰葡種勸農家	거봉포종권농가
選地成園處處佳	선지성원처처가
葉葉承雲藏寶玉	엽엽승운장보옥
枝枝含露燦珠花	지지함로찬주화
一占仙味向人嗜	일점선미향인기
百果英名由汝斜	백과영명유여사
多產多消經濟活	다산다소경제활
民安國泰願豐加	민안국태원풍가

거봉의 포도 종을 농가에 권장하니
땅을 가려 성원하니 곳곳이 아름다워
앞사귀마다 구름 끼니 보옥이 감춰지고
가지마다 이슬 받아 구슬 꽃이 찬란하다.
선미를 독점하여 사람마다 즐겨하고
모든 과실 높은 이름 너로 인해 기울었네
많이 생산 많이 소모 경제가 활발해서
국태민안에다 풍년을 더 하시오

德崇山 六槐亭會 庚寅年 二月 十二日

累年隔會始今開 누년격회시금개
面面無忘如旧來 면면무망여구래
西菊雲梅追念日 서국운매추념일
石松里竹共登臺 석송리죽공등대
琢磨翰墨相逢席 탁마한묵상봉석
論講詩書更勸盃 논강시서갱권배
一世逍遙全性命 일세소요전성명
彈南風操好音回 탄남풍조호음회

여러 해 막혔던 회의 지금에야 처음 여니
얼굴마다 잊지 않고 전과 같이 찾아오네
서야. 국당. 운곡. 매현은 추모하는 날이 되고
석정. 남송. 남리. 죽헌. 죽당은 함께 대에 오르네
琢磨한 한목들이 서로 만난 자리 되고
시서를 강론하며 또다시 술도 권하네
한세상을 소요하며 성명도 보전하니
남풍곡조 줄을 타니 좋은 소리 돌아오네

又 石亭

德隣設宴以文開 덕린설연이문개
起我仍君欣悅來 기아잉군흔열래
逢席人情如滿月 봉석인정여만월
別時羈跡似空臺 별시기적사공대
吟詩自許無窮韻 음시자허무궁운
勸酒方知有意盃 권주방지유의배
溪壑雲林何處是 계학운림하처시
鄉山如畫每春回 향산여화매춘회

덕인이 잔치 마련 글로써 자리 열어
그대가 나를 불러 기쁘게 찾아왔네
만난 자리 사람 정은 둥그런 달과 같고
이별한 뒤 나그네 자취는 비어있는 누각 같네
스스로 시 읊으니 무궁한 운치 있고
그대에게 술 권하니 뜻있는 자리일세
계학과 운림이 어디메이고
고향 산천 그림같이 해마다 봄이 오네

又 一滴

高會德崇開	고회덕송개
摠衣陪師來	구의배사래
和風因襲地	화풍인습지
雅士遠登臺	아사원등대
四美詩盈軸	사미시영축
二難酒溢盃	이난주일배
春心知我意	춘심지아의
万物暢新回	만물창신회

고상한 아회가 덕승산에 열리니
옷깃을 가다듬고 스승을 모시고 왔노라
온화한 바람에 인하여 한자리에 엄습하고
청아한 선비들 멀리에서 와 대에 오르네
4미에다 시 또한 시축에 가득하고
2난에서 술 또한 잔에 가득하도다.
봄의 마음이 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모든 물건들이 새로움을 더하여 돌아오는군

* 四美 - 良辰, 美景, 賞心, 樂事

* 二難 - 賢士, 佳賓

又 德亭

雅會好今開	아회호금개
吾生喜德來	오생희덕래
志存陶令宅	지존도영택
學在道濂臺	학재도렴대
書樂前年讀	서락전년독
心歡古友杯	심환고우배
此遊端不俗	차유단불속
何必望仙回	하필망선회

청아한 회의를 지금 좋게 열리니
우리 인생들 덕을 좋아해 모여 온다네
뜻은 도연명의 전원 고택에 있고
배움은 주염계의 태극 강대에 있네
책은 옛날에 읽던 글이 좋고
마음은 오래된 친구의 술잔이 더욱 좋구려
이 놀음이 끝까지 속되지 않아
굳이 신선놀음 바라볼소냐

又 南松

六槐亭上盛筵開 육괴정상성연개
咫尺行程待旦來 지척행정대단래
勝地含芳邀勝彦 승지함방요승언
高朋乘興集高臺 고봉승흥집고대
以文會友團團席 이문회우단단석
傾酒吟詩滿滿盃 경주음시만만배
塵外淸遊無盡樂 진외청유무진락
於焉夕罄促人回 어언석경촉인회

육괴정자 위에 큰 잔치 열린다 하여
지척의 거리나 밝기를 기다려 왔네
좋은 곳의 꽃다움은 좋은 친우 모임이요
높은 친구 흥겨워서 높은 대에 모였구나
글로써 벗 모이니 둥그런 자리 되고
술 따르고 시 읊으니 가득한 잔이로다.
세상 밖의 맑은 놀음 무진장한 즐거움에
어언간 저녁 종이 돌아가길 재촉하네

又 竹軒

庚寅蘭會以文開	경인난회이문개
老耄前程万福來	노구전정만복래
雲白僧尋修德寺	운백승심수덕사
風淸儒去伽倻臺	풍청유거가야대
人間三月幾三月	인간삼월기삼월
月下一盃又一盃	월하일배우일배
愛客猶離留客意	애객유이유객의
惜春那得挽春回	석춘나득만춘회

경인년에 금란회가 글로써 개최하니
노인들의 앞길에는 만복이 찾아온 듯
구름 깊은 수덕사엔 스님들이 찾아가고
바람 맑은 가야대엔 선비들이 모여드네
인간에 3월은 몇 번에 3월이며
달빛 아래 한잔하고 또 한잔하세
객을 사랑하여 떠나려 하는 객을 멈추려 하는 뜻은
봄을 아끼지만 어떻게 해야 봄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又 南里

何事其間會不開	하사기간회부개
殷勤企待信電來	은근기대신전래
思鄉客子歸故土	사향객자귀고토
探景詩人上樓臺	탐경시인상루대
久後相逢迎倒屣	구후상봉영도사
積懷瀉出朔傾盃	적회사출삭경배
遠方有頃遽違約	원방유이거위약
但願諸公飽醉回	단원제공포취회

어인 일로 그간에 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네
고향을 생각하는 객자는 항상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고
탐 경하는 시인들은 언제나 누대로 올라가네
오랜만에 서로 만나니 신을 거꾸로 하여 맞이하고
쌓인 회포를 풀어내며 자주자주 술을 따르네
먼 곳에 탈이 나서 갑자기 약속 어기나
원하옵건대 제공들은 많이 취포 하고 돌아오시오

南松傘壽 原韻

樗質虛過八十年 저질허과팔십년
商量往事意茫然 상량왕사의망연
傾心畊讀恨無及 경심경독한무급
存志修齊慚不全 존지수제참不전
非願眼前金粟足 비원안전금속족
但希膝下子孫賢 단희슬하자손현
夕陽白髮餘生計 석양백발여생계
承業奉行一念專 승업봉행일념전

저 질이 헛되이 80년을 지나고 보니
지난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만 아득하구나
주경야독 경심하였으나 미치지 못함이 한이 되고
수신제가의 뜻을 두었으나 온전치 못함이 부끄럽구나
눈 앞에 금속이 넉넉한 것을 원하지 않고
다만 슬하의 자손들이 현명하기만 바라노라
석양 백발 여생의 계획은
유업을 봉행하여 일념으로 전공하리라

祝 南松傘壽

謹賀南松傘壽年	근하남송산수년
康寧好學自安然	강녕호학자안연
勉家誠信禮廉立	면가성신례렴립
訓子清真謙讓全	훈자청진겸양전
擇里巨山門戶大	택리거산문호대
處身翰墨姓名賢	처신한묵성명현
德崇業廣意新日	덕승업광의신일
晚境閒窓書藝專	만경한창서예전

남송의 80수를 근하 하노니
강녕하고 호학하니 스스로 편안하이
집안에는 성신과 예염을 힘써 인도하고
자손에겐 청진과 겸양을 가르쳐 온전히 하네
거산에 마을가려 문호가 창대했고
한묵에 처신하여 성명이 현출하네
덕이 높고 업이 넓어 뜻 또한 새로울 때
늘그막 한창에서 서예를 전문하네

綠陰 雅會

萬樹盛濃時綠陰 만수성농시녹음
綠陰如許豈無吟 녹음여허기무음
偶然勝地良朋到 우연승지양봉도
兼是佳辰麗景深 겸시가신려경심
晚續金蘭成契會 만속금란성계회
更携斗酒聽山禽 경휴두주청산금
二難四美俱存席 이난사미구존석
翠竹蒼松不老心 취죽창송불노심

온 나무 무르녹는 녹음 시절에
녹음이 이러할 때 율음이 없을소냐
우연한 승지에는 좋은 벗 찾아오고
겸하여 가신에 경치도 좋을시고
늦었지만 금란계가 또다시 이어지니
말술을 끌어안고 산새소리 들으러 가네
이란과 사미가 모두 있는 곳에
취죽과 창송에 불로심이라

又

緩尋美景得清陰	완심미경득청음
有酒有朋豈不吟	유주유붕기부음
鶯語牙山溫井滑	연어아산온정활
鶯歌長夏茂林深	앵가장하무림심
濂溪院讀極蓮說	렴계원독극연설
五柳門看山水禽	오유문간산수금
此會近來誠未易	차회근래성미이
欣然一罷萬端心	흔연일파만단심

천천히 미 경 찾아 청음을 얻어
술도 있고 벗도 있으니 어찌 시가 없을까
제비 나는 온천에 온천수가 매끄럽고
피꼬리 노래하는 긴 여름엔 무림이 깊숙하네
염계의 서원에선 태극도설과 애련 설을 낭독하고
오류선생 문 앞에서 산수의 새들을 관찰하네
이 회가 근래에 참으로 쉽지 않은데
기쁘게 한 번 만단수를 파헤쳐 볼까나

又 一滴

勝花是綠陰 승화시녹음
叨拜大師吟 도배대사음
才僅辨魚魯 재근변어노
道難知淺深 도난지천심
武夷聽棹響 무이청도향
川畔觀沙禽 천반관사금
詩禮於斯足 시례어사족
豁然一貫心 활연일관심

꽃보다 좋은 녹음 시절에
외람하게 스승 모시고 시를 읊노라
재주는 겨우 魚자 魯자를 구분하겠고
도에 깊고 얕음을 알 수가 없네
무이천에서 노 젓는 소리 들려오는데
무이 냇가에서 사금을 관찰해보네
시와 예가 여기에 넉넉하여
시원하게 한마음을 통하게 하네

處世浮詩

幾個男兒學日新 기개남아학일신
齊家治國自修身 제가치국자수신
一心宜勉忠兼孝 일심의면충겸효
萬事何論富與貧 만사하논부여빈
禍福關頭言笑畏 화복관두언소외
炎涼世態是非頻 염량세태시비빈
人生百歲雖如夢 인생백세수여몽
經過這間亦苦辛 경과저간역고신

몇 사람의 남아가 학문을 새롭게 하나
제가와 치국도 수신으로부터 라네
일심으로 의당 충과 효에 힘써야 하고
많은 일에 어이하여 부와 빈을 논할까
화와 복이 상관하면 말도 웃음도 두렵고
덥고 추운 세태에는 시비도 자주 있네
백 세의 인생이 꿈과 같지만
이 사이를 지나자면 또한 괴롭고 쓴 일이 허다하다네

金錢浮詩

循環天下總歡迎 순환천하총환영
興國興家價不輕 흥국흥가가부경
去復還來來復去 거복환래래복거
生能使死死能生 생능사사사능생
苟求壯士終無力 구구장사종무력
善用愚夫亦有名 선용우부역유명
富患失之貧患得 부환실지빈환득
幾人白髮此中成 기인백발차중성

세상을 돌고 돌아도 모두가 다 환영
나라도 일으키고 집안도 일으키니 값이 가볍지 않아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가 다시 가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산자를 죽이기도 한다네
구차하게 구하면 장사도 마침내 힘이 없고
잘 쓰면 어리석은 사람도 또한 유명해지네
부자는 잃을까 근심하고 빈자는 얻으려 근심하는데
몇 사람의 백발이 이속에서 이루어졌나

南北同春

天下方春斗柄東	천하방춘두병동
北南物華一般同	북남물화일반동
千峰雪盡靑光發	천봉설진청광발
萬戶燈明夜色紅	만호등명야색홍
草茁三千餘里雨	초줄삼천여리우
花開二十四番風	화개이십사번풍
錦衣策馬自由路	금의책마자유로
處處鄉園來不窮	처처향원래불궁

천하에 봄이 오면 북두자루는 동을 가리키는데
남북에 물화는 일반적으로 똑같구나
천산에 눈이다 녹으니 푸른 빛이 떠오르고
만호에 전등이 밝으니 어둠이 붉어지네
풀들은 금수강산 3000리의 비를 맞고 자라나고
꽃들도 24번의 봄바람을 타면서 피어난다
비단옷에 말을 타고 자유로를 내달리니
곳곳마다 내 고향을 끊임없이 찾아가네

秋興

雨歇氣清万里秋 우혈기청만리추
謀諸新釀豈無遊 모제신양기무유
野翻壯觀黃金浪 야번장관황금랑
江紹斜陽白鷺洲 강소사양백로주
造化方知尋物樂 조화방지심물락
登臨可愛忘身抽 등임가애망신추
時適楓菊並佳際 시적풍국병가제
興與閒雲淡淡流 흥여한운담담류

장마 개고 맑은 기운 만 리의 가을
새로 빚은 술 있으니 어이하여 놀이 없을까
들판에 번득이는 황금 물결이 장관이요
백로 내린 석양 강가 좋은 풍경 소개하네
조화를 알만하니 물건마다 즐겁고
등림 하며 사랑하니 몸 빼어 돌아감을 잊었도다.
때는 마침 단풍 국화 모두다 아름다워
신나게 노는 흥취 구름과 함께 흘러간다.

祝 菊軒 田興秀 金婚

金婚設慶五旬天 김혼설경오순천
族戚賓朋共賀筵 족척빈봉공하연
在昔爲夫爲婦日 재석위부위부일
至今有子有孫年 지금유자유손년
床琴整整室家樂 상금정정실가락
庭樹彬彬鄉里連 정수빈빈향리련
霞酒融融更舉祝 하주융융경거축
無量壽福善人傳 무량수복선인전

금혼식 설경은 결혼한 지 50년인데
일가친척 벗들 모여 축하의 자리
결혼 옛날에는 남편 되고 부인되는 자리였는데
지금에는 자식 두고 손자를 두는 해가 되었네
부인이 정정하니 온 집안이 즐겁고
자손이 창성하여 향리를 연했도다.
융융한 하주 들고 다시 한 번 축하하니
무량한 수와 복이 善人에게 전해지누나

德山溫泉 開發

天賜溫泉德地開	천사온천덕지개
民多蒙惠得安來	민다몽혜득안래
文兼物富風生處	문겸물부풍생처
水與山名月滿臺	수여산명월만대
沐浴何人非覺爽	목구하인비각상
浴身無土不含杯	욕신무사불함배
比醫療病又延壽	비의료병우연수
京客鄉賓雲陣回	경객향빈운진회

하늘이 주신 온천수가 덕산 땅에 솟아나니
많은 사람 혜택 입어 편안하게 찾아오네
문물이 풍부하니 바람이 나는 곳이요
산수가 유명하니 달빛이 누대에 가득하네
때를 닦으면 어떤 사람인들 상쾌함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목욕한 후 누구든지 술 마시지 않는 사람 없네
의원에 견줄만하고 병도 치료하며 따라서 수도 연장하니
서울 사람 시골 사람 구름떼같이 돌아오네

鞦韆

艷粧佳女趨良辰	염장가녀추양신
高掛鞦韆待後前	고괘추천대후전
織手弄繩迎海月	섬수농승영해월
輕身登板穿雲烟	경신등판천운연
飄裙上下稱鶯子	표군상하칭앵자
轉脚往來舞鶴仙	전각왕래무학선
到此行人依杖立	도차행인의장립
渾忘歸路意浩然	혼망귀로의호연

예쁘게 단장한 미녀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높이 그네를 매고 앞 뒤에 기다리네
섬섬옥수 끈을 잡고 해월을 맞이하고
가벼운 몸으로 판에 올라 구름 연기 뚫는다오
오르락내리락 치마를 나부끼니 꾀꼬리와 비슷하고
다리 굴러 왕래하니 학춤 추는 선녀로다
오가는 행인들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가는 길 모두 잃고 호연하게 바라보네

城南雅會

問蘭消息上蘭城 문란소식상란성
幸續舊遊雅會成 행속구유아회성
盈榻琴書仙趣味 영탑금서선취미
滿襟風月道音聲 만금풍월도음성
逢迎自覺動詩興 봉영자각동시흥
舞蹈渾忘牽世情 무도혼망견세정
吾友近間頗寂寞 오우근간파적막
梅樓設席晚香生 매루설석만향생

난초의 소식 물어 난초성에 올랐더니
다행히 옛 친구들 모여 아회를 이루었네
시렁에 가득한 거문고와 서책들은 신선 같은 취미였고
옷깃에 가득한 풍월은 도가 높은 음성일세
봉영하면서 스스로 시흥이 솟아남을 깨달았고
무도하면서 완전히 세상 정을 잊었답니다.
오우가 이 근래 어쩐지 적막했는데
매헌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니 늦지만, 그 향기 그윽하도다.

又

魚雁隔如城 어안격여성
久來此會成 구래차회성
有心芳草路 유심방초로
無意亂禽聲 무의난금성
合處思分處 합처사분처
君情亦我情 군정역아정
莫論過去事 막논과거사
今後好風生 금후호풍생

소식이 성과 같이 막혔더니
오랜만에 아회가 이루어졌네
마음에 두엇 던 방초에 길이 트고
무의한 새소리만 어지럽구나
합하는 곳에서는 분처를 생각하게 하고
그대의 정이 또한 나의 심정이기도 하지
지난 일은 너무 논하지 마라
지금 이후부터는 좋은 바람 불어오리라

又

湖客訪南城	호객방남성
燦然文會成	찬연문회성
氣長千岫色	기장천수색
胸活一江聲	흉활일강성
詩酒牽人興	시주견인흥
金蘭稀世情	금란희세정
德隣相結社	덕린상결사
學問托平生	학문탁평생

호향의 손이 성남을 찾아왔네
찬연하게 문회가 이루어졌네
기분이 장대하니 천산에 빛이 되고
가슴이 활연하니 한강의 소리로다.
시와 술은 사람들의 흥취를 끌어내고
금난 회는 세상에 드문 정이로다.
덕인과 서로 두레를 맺었으니
학문으로 평생을 의탁해보세

祝 天安市 發展

寧城舊邑漸回陽	영성구읍점회양
天賦物華摠進芳	천부물화총진방
西出蓬江供乳脈	서출봉강공유맥
北開太祖願豐觴	북개태조원풍상
燈明處處紅珠樹	등명처처홍주수
鶴潔家家白雪霜	학결가가백설상
文化非他由福地	문화비타유복지
民安國泰詠歌長	민안국태영가장

영성의 구읍에는 점점 태양이 비추는데
하늘 주신 물화 모두 꽃이 피네
서편으로 봉강 물은 젓 줄기처럼 제공되고
북으로 태조산은 풍년 상을 기원하네
등이 밝은 곳곳마다 홍주수가 나열돼 있고
학처럼 깨끗한 집 백설처럼 빛이 나네
문화는 다름 아닌 복지에서 나오나니
국태민안 하면 노랫소리 길어진다.

追慕 王仁 先生

天下知名非限東	천하지명비한동
王仁大字繼承功	왕인대자계승공
功能遠播玄灘外	공능원파현탄외
德可詳傳太史中	덕가상전태사중
歡意佳篇輝古土	환의가편휘고토
傷心餘韻拂寒風	상심여운불한풍
三杯醉望頭輪月	삼배취망두윤월
彷彿音容滿眼豐	방불음용만안풍

천하의 지명이요 동방에만 한하지 않아
왕인 이란 큰 글자로 계속하는 공이로다.
공덕은 능히 현해탄 밖에까지 전파했고
덕 또한 상세하게 역사 속에 전해졌네
가편이 고토를 빛냄이 기쁜 뜻이요
여운이 찬바람에 나부김을 상심하노라
술 석 잔에 취해서 두륜산 달을 바라보니
방불한 음과 용이 눈가에 가득 보이는 듯

追慕 忠毅公 鄭起龍 將軍 2013. 3. 6

追慕將軍忠毅豪	추모장군충의호
衝天壯氣日星高	충천장기일성고
上征下伐皆殲賊	상정하벌개섬적
南射西驅盡滅濤	남사서구진멸도
斥彼島夷終戰息	척피도이종전식
幸吾權域更平遭	행오근역갱평조
當年巍樹英勳業	당년의수영훈업
東史千秋永有騷	동사천추영유소

장군에 충의롭고 호기로움을 추모해보니
충천한 장한 기운 해와 별보다 높네
위로 치고 아래로 쳐서 모든 적을 섬멸했고
남에서 쏘고 서에서 몰아 성난 파도 없었도다.
저 왜놈들을 물리쳐서 전쟁이 종식되고
다행히 우리나라 다시 평화를 맞이했네
당년에 높이 영웅훈업 세우시어
우리 역사 천추토록 그 글이 영원히 있으리라

祝 朴槿惠大統領 就任

大選最初女統生	대선최초여통생
爲民政教總歡聲	위민정교총환성
施仁布德誠安國	시인포덕성안국
足食强兵信守城	족식강병신수성
父父君君綱柱立	부부군군강주입
臣臣子子序倫明	신신자자서륜명
鴨雞相狎和春日	압계상압화춘일
南北同心一進名	남북동심일진명

대선에서 최초로 여성계 대통령 탄생이니
백성 위한 정치 교육 모두 다 환영하는 소리로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펴며 정성으로 나라를 편안케 하고
식량이 족하고 군사도 강하며 믿음으로 성을 지킨다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군주는 군주답게 강주를 확립하고
신하는 신하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서륜을 펴 나가세
오리와 닭이 서로 친합한 화창한 봄날
남북이 일심으로 명분을 펴 나가세

白松 徐忠錫 美壽

星回南極照東春	성회남극조동춘
美壽松翁日益新	미수송옹일익신
體育早從超健士	체육조종초건사
詩壇晚入脫凡身	시단만입탈범신
文章珠玉通湖內	문장주옥통호내
麟鳳和儀滿室仁	인봉화의만실인
征鴻寄賀無疆祝	정흥기하무강축
世世汾陽大福伸	세세분양대복신

남극성 회조하는 동쪽의 봄에
미수 맞은 백송 선생 날마다 새로워라
체육을 조종하여 초건한 선비 되고
시단에 늦게 들어 탈범한 몸이로다
문장이 주옥같아 호서 내에 다 통하고
인봉 같은 화한거동 집에 가득 인이로다.
가는 우편 축하 시로 무한한 비는 뜻은
대대로 광분양 같은 대복을 누리시요

忠義祠 創建 紀念 1968.10.

節義堂堂貫碧穹	절의당당관벽궁
成仁伊日血花紅	성인이일혈화홍
身許殺身身報國	신허살신신보국
死於當死死成功	사어당사사성공
偉蹟應傳青史上	위적응전청사상
英靈必慰万人中	영령필위만인중
巍巍祠宇柿梁立	외외사우시양립
文物吾鄉永不窮	문물오향영불궁

당당하신 절의 또한 하늘을 뚫을만하고
성인했던 그 날에 피 꽃이 붉었다오
몸을 살신에 허락하여 몸으로 보국하고
죽음이 당사에 죽었으니 죽음으로 성공했네
큰 업적은 응당 청사에 전할 것이요
영영은 반드시 만인 중에 위로되리라
높고 높은 사우가 시랑에 우뚝 서니
문물이 우리 시골 영원히 빛나리라

又

殉義精神冠我東	순의정신관아동
忠貞特出万人中	충정특출만인중
命非重也邦尤重	명비중야방우중
生是功乎死立功	생시공호사립공
光復祭壇聖血洽	광복제단성혈흡
靈安祠宇片心紅	영안사우편심홍
表旌彰美諸賢帖	표정창미제현첩
藉藉頌聲永不窮	자자송성영불궁

순의 하신 높은 정신 해동에 으뜸인데
충정이 특출하여 만인 중 제일일세
목숨은 중치 않고 나라가 더욱 중했고
사는 것도 좋지마는 죽어서 성공했네요
광복하던 제단에는 성혈이 젖어있고
영을 모신 사당에는 일편단심 붙었도다.
기를 세워 창미하며 제현들의 시첩에는
자자한 송성이 영원토록 무궁하리

忠義館 落成 85. 4. 29

擇占名區巨館開 택점명구거관개
德山精氣總臨來 덕산정기총임래
諸民自進傾誠力 제민자진경성력
多士爭先獻慕盃 다사쟁선헌모배
應識忠魂留此地 응식충혼유차지
猶餘明月照空臺 유여명월조공대
人於難事能成事 인어난사능성사
義魄千秋不死回 의백천추불사회

명구에 땅을 가려 큰 집을 지었는데
덕산에 정기가 모두 다 모여 왔네
모든 백성 자진하여 성력 다 하였고
많은 선비 앞 다투어 추모 술잔 올리누나
충혼이 이 땅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고
남은 것은 달빛만 빈 대에 남았도다.
사람에 어려운 일 능히 해냈으니
의로운 혼 천추에 죽지 않고 살아온 듯

忠義館成活發開	충의관성활발개
四邊景色翼然來	사변경색익연래
山明水麗咸呈彩	산명수려함정채
竹影梅香混入盃	죽영매향혼입배
瞻仰先賢欽慕地	첨양선현흠모지
闡揚遺蹟竭誠臺	천양유적갈성대
英靈陟降如生在	영령척강여생재
憂國精神孰不回	우국정신숙불회

충의 관을 낙성하고 활발하게 열었더니
사방에 경색들이 나는 듯이 펼쳐오네
산은 밝고 물은 고와 모두 다 빛이 나고
대나무와 매화 향기 술잔에 들어온다네
선현을 추모하고 흠모하는 곳이 되고
유적을 천양하며 정성을 다하는 집이로구나
영령들의 척강함이 살아 계신 듯
우국하는 정신이 누구인들 오지 않겠나

金蘭會 講信 主催 竹堂 癸丑 臘月 念三

1973. 12. 23

先喜有朋自遠尋 선희유봉자원심
如迎松栢列森森 여영송백열삼삼
塩餐草席雖疎禮 염찬초석수소례
律呂詩歌自好音 울려시가자호음
梅能誘致三樽酒 매능유치삼준주
蘭欲講評百歲心 란욕강평백세심
每恨村居無應酬 매한촌거무응수
蓬門今始對青襟 봉문금시대청금

먼저 기쁜 것은 벗들이 멀리서 찾아오니
영접하는 송백이 뽀뽀하게 벌려 있네
염 찬과 풀 자리는 비록 소박한 예지만
울려와 시가는 스스로 좋은 소리 낸다네
매화는 능히 세 동이 술을 유치하고
난초는 백세의 마음을 강평 한다오
언제나 한 하노니 벽촌에는 응수할 사람이 없는데
봉문에 이제서야 처음으로 청금을 상대하는군

又

雅會欲開欣悅尋	아회욕개흔열심
松盤鶴舞栢森森	송반학무백삼삼
觀梅雪閣天逢臘	관매설각천봉납
聽樂琴臺地好音	청악금대지호음
交友先知管鮑德	교우선지관포덕
輔仁深誓桃源心	보인심서도원심
心心無違如斯道	심심무위여사도
每拂青青萬世襟	매불청청만세금

아회가 열린다기에 기꺼이 찾았더니
소나무는 서러 있고 학은 춤을 추며 잣나무는 뻑뻑하도다.
눈 온 집에서 매화를 보니 천시는 설달 이구요
금대에서 풍악을 들으니 땅은 호음리로다.
벗을 사귀면 먼저 관중과 포숙아의 덕부터 알고
인으로 도우려면 깊이 도원결의한 마음을 맹세하여라
마음마다 어김없이 이도를 지켜
언제나 푸르고 푸른 선비 옷 펼쳐 보십시오.

梅軒成瑛濟壽筵

竹馬相隨負笈同 죽마상수부급동
或先或後一窓中 혹은혹후일창중
玉無認眼如凡石 옥무인안여범석
文不遭時似拙翁 문불조시사졸옹
詩酒欣欣比李杜 시주흔흔비이두
琴書怡怡勝卿公 금서이이승경공
今當六一設弧席 금당육일설호석
悅樂芝蘭祝壽融 열락지난축수융

죽마로 서로 따르고 부급도 함께 하면서
혹은 앞에서 혹은 뒤로 한창이로다.
옥을 아는 눈이 없어 평범한 돌이 되었고
문장이 때를 못 만나 졸한 늙은이 되었네
시주를 즐겨하니 이백과 두보에 견줄만하고
금서를 좋아하니 공과 경보다 훌륭하도다.
지금 환갑을 맞이하여 생일잔치 벌여놓고
열락 하는 자손들 만수무강 축복하도다.

又

憶昔与君竹馬日	억석여군죽마일
至今白髮照相同	지금백발조상동
交如淡水情如玉	교여담수정여옥
性是高山氣是銅	성시고산기시동
整整瑟瑟迎瑞色	정정실금영서색
軒軒龍鳳動祥風	헌헌용봉동상풍
滿砌繁榮皆寶樹	만체번영개보수
一家和氣自春生	일가화기자춘생

옛날에 그대와 놀던 죽마 일을 생각해보니
지금은 백발 되어 서로 마주 비추노라
사김은 물과 같고 정의는 옥과 같으며
성품은 고산이요 기력은 구릿빛일세
정정한 금실은 서색을 맞이했고
헌헌한 자손들은 상서 바람 일으키네
뜰에 가득 번영함은 모두가 보수인데
일가의 화한 기운 스스로 봄이로다.

又

離鄉孤跡設弧辰	이향고적설호진
此日應多感古新	차일응다감고신
賓悅頌聲千祝韻	빈열송성천축운
門成和氣一家春	문성화기일가춘
偕音琴瑟明雙鶴	해음금슬명쌍학
秀色芝蘭映四隣	수색지란영사린
淸福於君今古罕	청복어군금고한
優遊仁智樂天真	우유인지락천진

고향 떠난 외로운 자취 환갑을 맞이하니
이 날에 아마도 옛날의 감회가 많았으리라
손님들 축하 소리 천축의 시가 있고
문을 이룬 화한 기운 한집의 봄이로다.
해 음한 금실은 명량한 쌍학이요
빼어난 자손들은 네 이웃을 비치누나
맑은 복이 그대에겐 고금에 드문 일로
인지에 우유하며 천진을 즐기도다.

又

早從學業文章煥 조종학업문장환
素志琴書韻律工 소지금서운율공
金蘭契發情尤篤 금란계발정우독
自此康寧老益崇 자차강녕노익숭

일찍이 학업 하여 문장이 빛이 나니
소지한 금서로써 운율이 정교해라
금란계를 발하면서 정의 더욱 돈독하니
이후부터 강녕하게 늙을수록 고상하소

石亭

晚托金蘭雅契中 만탁금란아계중
只今白髮照相同 지금백발조상동
早從學業文章大 조종학업문장대
趣樂琴書韻律工 취락금서운율공
盈砌繁榮皆寶樹 영체번영개보수
滿家和氣自春風 만가화기자춘풍
雖因私顧未參賀 수인사고미삼하
遠祝康寧兼福崇 원축강녕겸복송

금란 아계에 늦게 서 의탁했는데
지금은 백발이 서로같이 비추노라
일찍부터 글을 배워 문장이 고상하고
금서를 즐기면서 운율도 잘하였네
뜰에 가득 번영함은 훌륭한 자손이요
집안 가득 화한 기운 스스로 춘풍이라
내 사정으로 뵈고 인사 못했지만
멀리서 강녕과 수복을 겸하시길 기원하노라

南北同春 1992. 4

時方泰運漸舒東	시방태운점서동
春意無私南北同	춘의무사남북동
淡蕩山河新月色	담탕산하신월색
文明天地百花風	문명천지백화풍
鴻溝線上看檀綠	홍구선상간단록
板店籬邊賞檉紅	판점리변상근홍
從此願休爭鬪事	종차원휴쟁투사
共觴談笑樂何窮	공상담소락하궁

때는 바야흐로 태운이 점서하는 동방에
봄의 뜻은 사가 없이 남북이 똑같아라
담탕한 산하는 새로운 달빛이요
문명한 천지에는 꽃피는 바람이라
휴전선 위에서 향나무 푸르고
판문점 울 가에는 무궁화 꽃이로다.
이로부터 원하노니 싸우는 일 그만하고
술잔 들고 담소하면 즐거움이 무궁하리

梅軒 行跡

風寒大陸劍濤斜	풍한대륙검도사
踏盡貞忠万代花	답진정충만대화
義以大鳴東國土	의이대명동국토
世皆仰望尹公家	세개앙망윤공가
始其降也天將用	시기강야천장용
終使仁成命所拿	종사인성명소나
雪恥寸心今日是	설치촌심금일시
千秋不朽大名華	천추불후대명화

바람 찬 대륙에 칼 물결 빛기었는데
밟아 다한 곧은 충성 만대의 꽃이로다.
정의로써 동 국토를 크게 울렸고
세상 모두 尹公家를 우러러본다.
처음으로 탄생할 때 하늘이 쓸려고 하여
끝내는 인을 이뤄 목숨 바치었네
설치하는 분한 마음 이제 이루니
천추에 썩지 않는 큰 이름 빛나도다.

又

天時人事各相斜	천시인사각상사
盛衰何殊一朵花	성쇠하수일타화
鴨水寒風吹祖國	압수한풍취조국
關山哭月照鄉家	관산곡월조향가
義同泰斗千秋在	의동태두천추재
忠與乾坤萬世拏	충여건곤만세나
無事百年安穩死	무사백년안온사
不如小少掛名華	불여소소괘명화

천시와 인사가 서로 빗겨 있는데
성하고 쇠함이 한 송이 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압록강 찬바람이 조국에 불고
관산에 우는 달빛 고향집에 비추누나
정의는 태산북두와 같아 천추에 남아있고
충성은 건곤이라 만세에 잡히었도다.
무사하게 편안히 백년을 살다 죽기보다는
젊어서 큰일하고 이름이 빛나니만 같지 못하리

梅軒義舉 五十週年 紀念

壯舉於焉半百年 장거어언반백년
白衣魂氣萬邦傳 백의혼기만방전
倒倭敏腕翻雙爆 도왜민완번쌍폭
救國精神貫一天 구국정신관일천
烈烈高風鑑後士 열열고풍감후사
堂堂大義繼先賢 당당대의계선현
官民合禮恭修地 관민합례공수지
祠宇光生倍日前 사우광생배일전

장거한지 어언간 반백년 되니
우리 민족 혼기가 만방에 전해진다.
왜놈을 쓰러트린 민첩한 팔은 쌍으로 폭탄을 번득이었고
나라 구한 그 정신은 한 하늘을 꿰었도다.
열렬한 그 정신은 후사에 거울이요
당당한 그 절의는 선현을 이었도다.
관민이 예를 합해 공수하는 곳
사우의 밝은 빛이 전에 비해 배나 더하네

又

公園驚怯度幾年	공원경겁도기년
五十年光史上傳	오십년광사상전
疆土當然捲失地	강토당연권실지
仇讐不可戴同天	구수불가대동천
專心大業宜由義	전심대업의유의
盡命孤忠卽是賢	진명고충즉시현
唯有芳名人不見	유유방명인불견
廟尊伽倻峻巖前	묘존가야준엄전

홍구 공원 경겁한지 몇 해 이던가
50년의 세월이 역사에 전하였도다.
강토는 당연히 잃었던 땅 되찾았고
원수 놈과 한 하늘 같이 할소냐
전심하던 대업은 의에서 날고
목숨 바친 고충은 바로 현인이라고
오직 방명만 남아있고 사람 없으니
높은 사당 가야산처럼 준엄하도다.

禮德商務社 祠宇落成 1984. 3.

祠宇經營舊德東 사우경영구덕동
背山面水路前通 배산면수로전통
仙人奉祭賢勞始 선인봉제현노시
祿負名傳古史中 보부명전고사중
各守誠名真正俗 각수계명진정속
相扶患苦又良風 상부환고우량풍
展之遺品兼行樂 전시유품겸행락
文化財成老少同 문화재성노소동

상무사 사당을 구 덕산에 경영하니
뒤에는 산 앞에는 물 옆으로 길이 통한다.
가신님을 봉제하니 노력에 시작이요
보부상에 그 이름은 고사에도 전해 있네
계명을 각수하니 진정한 풍속이요
환고를 相扶하니 참으로 양풍이로다.
유품을 전시한 후 겸하여 행락하니
문화재로 이룩하며 노소와 함께 하네

又

天藏地秘德山東	천장지비덕산동
忠節有名自古通	충절유명자고통
世事變遷桑海裡	세사변천상해리
行商祿負繼承中	행상보부계승중
養生送死稱良俗	양생송사칭량속
起病救危動美風	기병구위동미풍
精氣無窮伽岵屹	정기무궁가수홀
人才鍾出亦今同	인재종출역금동

천장지비한 덕산 동쪽에
유명한 충절이 예부터 통했노라
세상일에 변천은 상전벽해요
보부의 행상은 지금도 이어지누나
양생송사의 유감이 없이 하니 양속이라 칭찬하고
기병 구위하니 미풍이 감동 하네
정기는 무궁하고 가야산은 높았으니
인재의 종출 함이 지금도 같아

忠義館 落成 1985. 4. 29

忠義館成今始開 충의관성금시개
四方景物倍情來 사방경물배정래
龍峰蘿月長留影 용봉나월장유영
修德松風遠送臺 수덕송풍원송대
斯日告功堪獻賀 사일고공감헌하
有時招客更傾盃 유시초객갱경배
昭昭偉蹟如生在 소소위적여생재
瑞氣盈門万丈回 서기영문만장회

충의관을 낙성 한 후 문을 열으니
다정한 경물이 사방에 들어오는 듯
용봉산에 걸린 달빛 언제나 그림자를 남기우고
수덕에 솔바람도 저 멀리소리를 대에 보내 네
이날에 고공하니 축하드리고
때맞게 손님초청 잔을 따른다.
밝고 밝은 위적이 살아 있는 듯
상서로운 기운 문에 가득 만장회로다.

又

忠義名楣一閣開	충의명미일각개
園林自是得清來	원림자시득청래
隔窓筍竹翠生壁	격창순죽취생벽
繞砌子梅香入盃	요체자매향입배
餘韻長存新構宇	여운장존신구우
遺風不絕舊墟臺	유평불절구허대
似蘭似菊似蓮馥	사란사국사연복
孝悌之心次第回	효제지심차제회

충의란 이름 현판 큰 한집 열리우니
원림이 이로부터 맑음 얻어 찾아왔도다.
창을 격한 어린 대는 푸르른 빛 벽에 생기고
뜰에 둘러 작은 매화 향기가 술잔에 드네
새로 지은 집에 여운이 길이 있고
옛 터 집 위엔 유평이 끊이지 않아
난초 같고 국화 같고 연꽃과 같이 향기로우니
효제의 본심이 차례차례 돌아온다네

又

整襟參拜館成開	정금참배관성개
眞髓列圖省識來	진수열도성식래
關北風鳴龍雪劔	관북풍명용설검
海東月祝白梅盃	해동월축백매배
衝天義氣餘雙爆	충천의기여쌍폭
爲國忠心滿此臺	위국충심만차대
自古稱斯佳麗地	자고칭사가려지
浩然一鶴返魂回	호연일학반혼회

옷깃 여며 참배한 후 또 관성을 고공하니
진수의 열도를 자세히 성식해 왔노라
관북에 찬바람은 용천설악 칼에 울려오고
해동에 달빛은 백범 매헌의 축배로다.
충천에 의기는 쌍 폭탄에 남아있고
나라위한 충심은 이대에 가득 하네
예로부터 이곳을 가려지라 칭하는데
호연한 일 학이 혼이 되어 돌아오듯

又

大名忠義館成開	대명충의관성개
一境增輝淑氣來	일경증휘숙기래
起伏雲山如活畫	기복운산여활화
潺湲溪水似傾盃	잔원계수사경배
蹒跚雅士修誠域	창창아사수성역
繼繼生民寓慕臺	계계생민우모대
北弟南兄何日合	북제남형하일합
和平天地仰瞻回	화평천지앙첨회

대명의 충의관을 낙성하고 문을 여니
경내가 빛을 더해 숙기가 찾아오네
기복한 구름산은 살아있는 그림 같고
잔원한 시냇물은 흡사하기 잔을 따르는 듯
창창한 아사들은 수성을 다하는 곳
이어지는 민생들은 추모하는 집이로다.
북쪽아우 남쪽형님 언제쯤 합해져서
화평한 천지에서 첨 모하며 돌아올까

又

亭亭一閣舊墟開	정정일각구허개
景色多情入眼來	경색다정입안래
路上行人皆立馬	로상행인개입마
座中賀士故停盃	좌중하사고정배
爰居爰處聖靈域	원거원처성령역
苟美苟完忠義臺	구미구완충의대
今日落成懸板後	금일낙성현판후
遺風餘韻倍前回	유평여운배전회

정정한 큰 한집이 옛 터에 열렸는데
다정한 경색들이 눈에 들어 찾아온다
노상에 행인들도 모두다 말을 세우고
좌중에 하사들은 잠간 잔을 멈추네
이에 거하시고 이에 처하시는 성 영의 곳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완전한 충의대로다.
오늘 낙성한 후 현판식을 마쳤으니
유평과 여운이 전보다 배나 돌아온다네

又

追慕當年畫閣開	추모당년화각개
梅軒遺蹟似生來	매헌유적사생래
天邊霞氣籠簷角	천변하기룡첨각
岩隙泉聲動酒盃	암극천성동주배
雨風千里東南客	우풍천리동남객
忠義一心上下臺	충의일심상하대
濟濟官民臨此日	제제관민임차일
眞源詳悉頌歌回	진원상실송가회

추모하는 당년에 그림 집이 열리니
윤의사의 유적들이 산 것같이 찾아오네
하늘가에 구름기운 첨각에 서려 있고
바위틈에 샘 소리 술잔을 움직이네
비바람 천리 길에 동남에 손이 오고
충의에 일심으로 오르내리는 집이로다.
제제한 관과 민이 이날을 임하여서
진원을 상실하고 노래하며 돌아오네

又

四面溪山如畫開	사면계산여화개
其中一閣翼然來	기중일각익연래
簷頭伽岫雲多彩	첨두가수운다채
軒下沐流月滿盃	헌하목류월만배
一時安樂非忠士	일시안락비충사
萬世光榮是義臺	만세광영시의대
拜觀當年遺償物	배관당년유상물
生生餘韻淡然回	생생여운담연회

사면에 계산이 그림같이 열렸는데
그중에 한집이 날으듯 오는구나
처마위에 가야산은 상서구름 빛을 내고
집 아래 목 천수는 달빛이 가득한 잔
한 때의 안락만 찾는 것은 충사라 할 수 없고
만세의 광영은 충의사의 집이로다.
당년에 유상물건 배관하니
생생한 여운이 담담하게 살아오는 듯

又

忠義大書眉額開	충의대서미액개
烟霞物色活如來	연하물색활여래
南山北麓龍蟠勢	남산북록용반세
繡戶雕窓鶯賀臺	수호조창연하대
萬古德山神聖地	만고덕산신성지
千秋香火苾芬盃	천추향화필분배
應知餘韻無泯滅	응지여운무민멸
長使後人感慕回	장사후인감모회

충의란 큰 글자로 현판을 여니
연하와 물색이 살아서 오는 듯하네
남산과 북록은 용이 서려 있는 것 같고
수호와 조창에는 제비들이 하례하는 집이로다.
만고에 덕산은 신성한 곳이 되고
천추에 향화는 제향하는 술잔이로다.
알겠노라 여운이 끊임없어
언제나 후인들이 감모하며 찾아올 것을

寧城晚秋 1990. 9

霜落天高正晚秋	상락천고정만추
金風蕭瑟歲華流	금풍소슬세화류
詩朋對酌陶陶興	시봉대작도도흥
豪客登亭秩秩遊	호객등정질질유
黃菊鮮明朝日下	황국선명조일하
丹楓燦爛夕陽頭	단풍찬란석양두
寧城景物眞奇事	녕성경물진기사
吾以奚囊欲盡收	오이해낭욕진수

찬 서리 높은 하늘 때는 정히 늦가을에
가을바람 소슬하고 세월만 가네
글 친구 술 대하니 흥치가 도도하고
호객들 정자 위에 질질하게 노는도다.
국화가 선명하니 아침 해 비치우고
단풍이 찬란하니 저녁노을 더했구나
천안의 경물과 진기한 일들
나는 글 주머니에 다 담으려 하오

又

黃花九月晚當秋	황화구월만당추
山水摠佳靈氣流	산수총가영기류
玩月樓臺歡飲樂	완월루대환음락
賞楓杖履咏詩遊	상풍장구영시유
雲烟淡淡歸鴻末	운연담담박홍말
天地蕭蕭作籟頭	천지소소작뢰두
第看寧城三巨祭	제간녕성삼거제
彬彬文化祝多收	빈빈문화축다수

국화꽃 9월이라 늦가을인데
산수가 아름다워 영기 흐르네
달 보는 누대에는 술 마시며 즐겨하고
단풍놀이 손님들은 시 읊으며 노는구나
구름연기 담담한곳 기러기 나는 끝이 되고
천지가 쓸쓸한 듯 소리 나는 머리로다.
천안삼거리 축제를 자세히 살펴보니
빈빈한 문화들을 많이많이 거두시요

鶴麓精舍 戊辰 七月

遠志山高洛水深	원지산고락수심
鶴翁芳躅柳亭尋	학옹방축류정심
檻前物態入新彩	함전물태입신채
境下桑榆垂厚陰	경하상유수후음
報獫誠成尊祖業	보달성성존조업
存羊禮奏慕賢琴	존양례주모현금
公之篤孝人多感	공지독효인다감
古士猶難況是今	고사유난황시금

원지산 높고 낙동강은 깊는데
학 옹의 아름답던 자취 류정을 찾았네
난간 앞에 물 태는 신체가 들어오고
경하에 상류는 후음이 서렸도다.
수달 같은 정성 들여 조업을 높이었고
존양례를 아뢰니 모현하는 거문고라
공의효심 사람마다 다 감동했으니
옛 선비도 어려운데 하물며 지금일까

又

南山屹立洛江深	남산홀입락강심
鶴麓名亭此裡尋	학록명정차리심
軒棟麗華光後裔	헌동려화광후예
柳公蕃茂庇先陰	류공번무비선음
千年美德同源水	천년미덕동원수
累代佳謨續雅琴	누대가모속아금
肯構眞心誰不仰	금구진심수불앙
鄉隣皆慕倍思今	향린개모배사금

남산은 높이 솟고 낙동강은 깊숙한데
학록에 유명한 정자 이 속에서 찾았도다.
헌 동이 화려하니 후손이 빛이 날고
류공이 번성하니 선조음덕 덮이었도다.
천년에 미덕은 근원 같은 물이 되고
누대에 가모는 아 금을 이어가네
즐거지은 참 마음을 누구나 다 추앙하니
향인들이 다 사모하고 배나 지금 생각하네

昭陽江 快龍船乘 述懷 戊辰 5月

炎天長夏得清閒 염천장하득청한
揀日優遊始出關 간일우유시출관
左右豐林濃似水 좌우풍림농사수
高低連岳畫如山 고저연악화여산
波隨風動作鱗起 파수풍동작린기
鷺與霞飛成隊還 목여하비성대환
百里昭陽江上道 백리소양강상도
快龍船走短時間 쾌룡선주단시간

더운 하늘 긴 여름에 청한함을 얻었으니
날을 가려 우유하려 관문을 나섰도다.
좌우에 풍부한 숲 물과 같이 질푸르고
높고 얇게 연한 산은 그림 같은 봉우리라
바람 따라 이는 물결 비늘처럼 이어나고
안개와 함께 나는 오리 떼는 열을 지어 돌아온다.
백 여리 소양강 기나긴 물길
쾌룡선 고속정은 단시간에 달려가네

綠陰會

綠陰猶好花發城 녹음유호화발성
黃鳥綿蠻白日晴 황조면만백일청
酒兼山野幽香味 주겸산야유향미
詩得文章遠近情 시득문장원근정
岳迎賞客皆生色 악영상객개생색
鳥悅林心別有聲 조열림심별유성
勝友如雲行樂地 승우여운행락지
衣冠濟濟眼初明 의관제제안초명

짓 푸른 녹음시절 꽃 피는 정보다 좋아
피꼬리 노래 노래 날씨도 화창해라
술상에는 산과들에 유향한 맛 겸해 있고
詩 속에는 높은 문장 遠近 情이 담겨 있네
봉우리마다 상객을 맞이하니 모두다 빛이 나고
새들은 숲 속을 좋아하여 유별한소리를 내 네
좋은 벗들 구름같이 행락하는 이 곳에서
의관이 제제하니 눈이 처음 밝아지네

鄉校 儒林 雪岳山 觀光 戊辰 5月 15日

欣尋雪岳出鄉城	흔심설악출향성
水水山山摠佳名	수수산산총가명
峰峰奇怪疑仙界	봉봉기괴의선계
谷谷清幽遠俗塵	곡곡청유원속진
心潛乾坤微妙裡	심잠건곤미묘리
身遊天地自然中	신유천지자연중
此時此景詩難盡	차시차경시난진
與子同樽共吐情	여자동준공토정

설악산 관광하러 향성을 떠났는데
물마다 산마다 모두 다 아름답고 유명하다.
봉우리마다 기이하고 괴상하니 신선세계 온 듯하고
골짜기마다 맑고 그윽하니 속진을 멀리 했네
마음은 건곤의 미묘한 속에 잠겨 있고
자신은 천지에 자연 한가운데 노닐고 있네
이때 이러한 경치를 詩로 다 할 수 없어
그대와 술잔 함께 하며 진정을 토해본다.

觀光 後日 和西野先生 原韻 戊辰 五月 十七日

幸伴儒林高士輶 행반유림고사주
論今談古得清遊 논금담고득청유
關東月色夢中遠 관동월색몽중원
漢北山光襟裡收 한북산광금리수
酒或無羈豪意發 주혹무기호의발
詩能感物率心幽 시능감물솔심유
抄來白鹿講明際 초래백록강명제
添讀瓊章餘興留 첨독경장여흥유

다행이 유림의 고사들과 작반하여 동행했는데
고금을 담론하고 또 맑은 놀음 가져보았네
관동에 달빛은 꿈 속에 멀어지고
한양북쪽 산천경광 마음으로 담아왔도다.
술기운 구애 없이 호방한뜻 피워내고
詩는 능히 느낀 사물 마음 따라 그윽하리
등사해온 白鹿洞規 강명하면서
경장까지 첨독하니 여흥 더해라

洛江述懷

百川會合洛江生 백천회합낙강생
千里烟霞晚托情 천리연하만탁정
處己溫恭能守志 처기온공능수지
誨人忠孝益傾誠 회인충효익경성
武夷停棹觀風色 무이정도관풍색
學海泛舟聽雨聲 학해범주청우성
顛木培根枝葉茂 전목배근지엽무
將看他日大樑成 장간타일대량성

백천이 모여 들어 낙동강이 생겨나고
천리에 구름안개 이곳에 정이 가네
溫恭으로 처신하여 거뜩히 뜻을 지켰고
忠과 孝를 가르쳐서 더욱더 誠을 다했지
武夷川에 정도 하고 風色을 관찰하고
學海에 배 띄우고 비 소리 들었노라
顛木을培根하니 가지 잎새 무성하니
앞으로 오는날에 큰 동량 이루리라

七旬 感懷

好音里洞發梅辰 호음리동발매진
賢美多年崇廣新 현미다년승광신
學自切磨存養道 학자절마존양도
誨由誠篤率先身 회유성독솔선신
身藏智水仁山樂 신장지수인산요
家得芳蘭寶樹春 가득방란보수춘
當此稀筵深感古 당차희연심감고
欲傳日後性情伸 욕전일후성정신

호음리동에 매화꽃 피는 때에
賢美함이 많은 해에 德崇業廣 새로우리
절차탁마 배움으로 존양도를 이뤄가고
敬 誠 信 篤 가르쳐서 솔선하는 몸이로다.
자신은 지수 인산의 좋아함에 감춰있고
집안은 芳蘭 寶樹의 봄날을 얻은 듯하오
희수를 당한 오늘 감고함이 깊어 가는데
후일에 성과 情이 퍼지는 모습 전하고 싶네

輓 丹山 族從 溶世

平生本意善行身	평생본의선행신
崇祖多時誠力新	숭조다시성력신
未信斯賢遐逝去	미신사현하서거
還驚長德漸凋淪	환경장덕점조륜
敦宗會上虛前席	돈종회상허전석
謁廟拜筵缺一人	알묘배연결일인
鄉黨而今扶輓誄	향당이급부만뢰
黃原古道淚沾巾	황원고도루침건

평생에 본의는 선행뿐인데
崇祖하는 많은 세월 誠力이 새로워라
이러한 분 멀리 떠남 믿기지 않았는데
長德님이 漸凋함에 다시 놀랐네
돈종 하는 회의할 때 앞자리가 비어 있고
알묘하는 배연에는 한사람이 빠져 있도다.
향당에 여러 사람 만장을 붙들고
황천 가는 옛 길에서 눈물이 수건 적시네

餞春 음 3월 30일 봄을 보내며

雲覆雨翻忽復晴 운복우번홀부청
餞春會到問堂城 전춘회도문당성
少時遊觀渾如夢 소시유관혼여몽
今日登臨倍覺情 금일등임배각정
喬木尙含千古色 교목상함천고색
園禽猶有百年聲 원금유유백년성
歡心嘗得天機在 환심상득천기재
暫少焉間月出明 잠소언간월출명

구름 끼고 비가 오다 갑자기 다시 개니
전춘회에 도착하여 당성을 물어보노라
젊어서 유관할 때는 혼연이 꿈과 같더니
오늘에 등림하니 배나 정답네
고목들은 아직까지 옛날 빛을 머금어 있고
동산에 새들은 오히려 백년 소리를 지저귀누나
기쁜 마음 일찍이 천기를 얻고 있으니
어느새 인가 달도 나와 반기누나

德山 八景

龍峰雲散雨新晴	용봉운산우신청
玉水潺潺漁火明	옥수잔잔어화명
落照伽山方吐色	낙조가산방토색
鳴鍾修德遠來聲	명종수덕원래성
樵歌秀岫斜陽立	초가수수사양립
霽月插橋曉氣生	제월삽교효기생
汽笛一吹平野地	기적일취평야지
溫泉風物使人驚	온천풍물사인경

용봉산 구름 개고 날이 맑으니
옥계천 잔잔한데 고기 잡는 불이 밝아라
가야산에 낙조는 바야흐로 빛을 토하고
수덕사에 종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 오누나
수암산 나무꾼 노래 가락 사양에 섰고
삽교천 개인 달에 曉氣가 나네
기적 소리 크게 나는 평야 지대에
온천에 풍물들이 사람들 놀라게 한다.

餞春會

一碧乾坤兩眼睛	일벽건곤양안정
東君別我問何城	동군별아문하성
壯時遊觀渾如夢	장시유관혼여몽
今日登臨倍覺情	금일등임배각정
垂柳落花同失色	수유락화동실색
鳴鳩乳鷺摠離聲	명구유연총이성
靑旗巡狩橋南里	청기순수교남리
應有相逢更廡明	응유상봉갱궐명

金栗亭 先生

한결같이 푸른 건곤 두 눈도 밝아
동군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오
젊어서 유관할 땐 꿈과 같더니
오늘에 등림하니 배나 정다워
늘어진 버들 지는 꽃 다 같이 빛을 잃은 듯
우는 빠꾸기 어린 제비 모두 다 이별의 소리를 내네
푸른 깃발 들고 순수한 교남리에서
아마도 서로 만나 내일을 기약하리라

*東君-봄을 맡은 신

又

春到閏春喜日晴	춘도윤춘희일청
在湖依舊在堂城	재호의구재당성
面熟斯鄉俱合意	면숙사향구합의
襟靑客地益含情	금청객지익함정
牙調萬古峨洋曲	아조만고아양곡
唐律千年金石聲	당률천년금석성
餞別非今留後日	전별비금유후일
以詩心謝刻分明	이시심사각분명

朴蘭雲 永駿 先生

봄은 윤삼월 그믐인데 날씨가 화창하고
재호지는 옛과 같이 당재에 있네
낮에 익은 이 시골이 마음에 들고
그대들은 객지이나 더욱 정다워
伯牙의 琴調는 만고를 지났으나 높고 낮은 곡조이고
唐律은 천 년 동안 금석 같은 소리로다.
전별하며 지금 와서 후일을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詩로써 마음에 감사함을 분명하게 새깁니다.

又

九十東君閏復晴	구십동군윤부청
惜春騷客到堂城	석춘소객도당성
團會此筵何所樂	단회차연하소락
登臨斯日各隨情	등임사일각수정
酒後人多燕趙氣	주후인다연조기
詩中士誦漢唐聲	시중사송한당성
學友父兄談笑地	학우부형담소지
栗亭高榻禮分明	울정고탑례분명

具誠菴 健會 先生

90일의 봄날인데 윤달 더해 맑게 개이니
 惜春하는 詩客들이 당재로 도착하네
 둥글게 모인 이 자리에 무엇으로 즐겨할까
 등림 하는 이날만은 뜻에 따라 놀아보세
 술 취한 후 사람마다 燕趙에 영웅이 많고
 詩中에 선비들은 漢唐소리 외우노라
 학우와 부형들이 담화하며 웃는 곳에
 울정 선생 높은 탑에 예의가 분명하네

燕趙 : 연나라 조나라에는 지사와 영웅이 많았고
 漢唐 : 한나라 당나라에는 문장과 시인이 많았다 함

又

華蓋亭亭鼓角晴	화개정정고각청
衣冠濟濟壓堂城	의관제제압당성
光風霽月成詩力	광풍제월성시력
綠水靑山勸酒情	녹수청산권주정
百獸嶂中唯虎嘯	백수장중유호소
千禽園上只鶯聲	천금원상지앵성
如今幸得覽師友	여금행득람사우
淸掃塵心更昭明	청소진심갱소명

成梅軒

정정한 일산 위에 고각이 맑게 개니
많고 많은 의관들이 당재를 압도했네
광풍과 제월은 詩에 힘을 이루었고
녹수와 청산은 술에 정을 권하누나
백수가 사는 산중에선 虎嘯가 유일하고
온갖 새들 모인 동산 鶯聲이 제일이라
지금에 다행히 師友를 만나보니
청소한 티끌 마음 다시 밝아라

又

江上春色報新晴	강상춘색보신청
老少聯衿共向城	노소연금공향성
物感地靈皆得意	물감지령개득의
鳥隨天性各生聲	조수천성각생성
詩逢高士須眞味	시봉고사수진미
酒到名區更有情	주도명구갱유정
雅會斯筵非偶事	아회사연비우사
花遊風景自分明	화유풍경자분명

姜梧隱 信万

강 위에 봄빛이 새로 개임 보도하니
노소가 줄을 이어 당재로 나서노라
물건마다 지령에 감화되어 모두 다 뜻을 얻고
새들도 천성 따라 각자를 소리하네
詩가 높은 선비 만났으니 진실로 참맛이요
술이 명구에 다다르니 또다시 유정해라
맑게 모인 이 자리는 우연한 일 아니 어니
화류 하는 그 풍경이 스스로 분명하네

春遊韻 甲寅 2月 13日 開臺盃來才

山筇野屐一時開 산공야극일시개
翰墨緣尋登此臺 한묵연심등차대
竹馬交情長注海 죽마교정장주해
金蘭修契數傾盃 금란수계삭경배
東園漸美召吾起 동원점미소오기
春酒方濃有子來 춘주방농유자래
松菊梅梧同社席 송국매오동사석
詩歌相酬各言才 시가상수각언재

竹堂

산에 친구들에 벗들 함께 모여
한묵에 인연 찾아 이대에 올랐구려
죽마에 사귄 정은 장주한 바다 같고
금난에 계를 닦고 술잔을 자주하네
동원이 점미 하니 나를 불러 일으키고
봄술이 막 익을 때 유자가 찾아왔네
송국매오 한 자리에 모였으니
시가를 상수하며 재주도 말해보세

又

一天春意萬化開	일천춘의만화개
新服登臨學士臺	신안등임학사대
第會偷閒詩覓句	제회투한시먹구
聊遊行樂酒巡盃	료유행악주순배
年年花事紅塵起	년년화사홍진기
個個人生白髮來	개개인생백발래
綠樹山村多宰相	록수산촌다재상
南方明氣出群才	남방명기출군재

梅軒 成瑛濟

천지에 봄이 드니 만화가 열렸도다
새 옷을 갈아입고 학사 대를 등림하네
한가한 틈을 내서 詩句도 찾아보고
행락을 즐기면서 순배로 술 마시네
해마다 꽃이 필 때 흥진이 일어나고
하나하나 인생마다 백발은 찾아 온다네
푸른 나무 산촌에는 재상도 많다지만
남방에 밝은 기운 군재가 나오려나

又

二月東風雅會開 이월동풍아회개
良朋携手上春臺 량봉휴수상춘대
靑天氣活佳詩句 청천기활가시구
白日光明旨酒盃 백일광명지주배
萬事哀生其樂去 만사애생기락거
一時興盡却悲來 일시흥진각비래
烟霞長在邀遊客 연하장재요유객
多少江南隱逸才 다소강남은일재

松岩

2월이라 봄바람에 아회 열리니
좋은 친구 손을 잡고 춘대로 올라오네
푸른 하늘 기운차니 시 귀가 아름답고
날씨도 광명하니 술 맛이 절로 난다.
모든 일에 애가 생하면 樂은 가는 것이고
한때에 흥이 다하면 悲가 온다네
구름안개 자욱한 곳 유객을 맞이하니
강남에 은일한 재사 얼마나 될까

又

陽春消息或花開	양춘소식혹화개
和氣如生暖入臺	화기여생난입대
日下柳眠多夜夢	일하유면다야몽
烟中草醉若時盃	연중초취약시배
飄風轉葉飛還墜	표풍전엽비환추
詠雪寒鴉去復來	영설한아거복래
年尾歲頭催與際	년미세두최여제
於焉當到四三才	어언당도사삼재

石汀

따뜻한 봄소식에 꽃이 피는데
화한 기운 생생하게 집에 드누나
햇볕아래 조는 버들 밤 꿈도 많고
연기 속에 취한 풀들 술을 마신 듯
표풍은 낙엽 굴러 날랐다 떨어지고
영설하는 까마귀 갔다가 다시 오네
가는 해 오는 해 재촉하는 세월 속에
어 언간 당도했네 나이 마흔 셋

又

雅會隔年今又開	아회격년금우개
輕車肥馬向斯臺	경차비마향사대
雁飛伊日先傳韻	안비이일선전운
面接此筵更勸盃	면접차연갱권배
膾肉登盤知祭罷	번육등반지제파
菜羹悅口認春來	채갱열구인춘래
題詩各自言其志	제시각자언기志
臨軸何論才不才	임축하논재불재

松波

작년의 아회가 지금 또 열렸으니
가벼운 수레 살찐 말이 이집으로 향해오네
우편이 가던 그날 먼저 운자를 전하더니
서로 만난 이 자리에 다시 술잔을 권하는군
번육이 상에 오르니 제사한줄 알만하고
나물국이 입에 맞아 봄이 온줄 알겠노라
각자마다 시를 써서 자기 뜻을 말하는데
시축임해 어이하여 재 부재를 논하리오

又

願之願願此遊開 원지원원차유개
期與吾心上士臺 기여오심상사대
己被春風無限興 기피춘풍무한흥
諸君共醉萬年盃 제군공취만년배

誠庵

원하고 원하던 이 놀이가 열렸는데
기어이 나의마음도 선비 집에 올라왔네
벌써부터 봄바람 무한한 흥을 입었으니
제군들과 다 함께 만년 배에 취해보세

又

東風細柳鬱金開 동풍세유울금개
騷屐乘間共向臺 소극승간공향대
座中詞賦驚人句 좌중사부경인구
盤上酒肴勸友盃 반상주효권우배
惠書去處韻隨去 혜서거처운수거
華蓋來時春又來 화개래시춘우래
此席何論優与拙 차석하논우여졸
一吟一笑各言才 일음일소각언재

梧隱

봄바람 가는 버들 울 금 같은데
문사들 틈을 내어 이집에 오네
좌중에 사부는 경인구 이고
반상에 주효는 권우배로다.
편지가 가는 곳에 운자도 따라가고
귀한 손님 오실 때는 봄 또한 오는도다.
이 자리에 어이하여 우와 졸을 논할소냐
한번 읊고 또 한 번 웃으면서 각기 재주 말해보세

又

外內歡迎賀主翁	외내환영하주옹
無窮詩意帶和同	무궁시의대화동
開花故國青春氣	개화고국청춘기
結實他鄉白髮功	결실타향백발공
知達古今人物博	지달고금인물박
學遊天地鬼神通	학유천지귀신통
風流閱世身全老	풍류열세신전노
一念朝朝向海東	일념조조향해동

拏雲

안과 밖이 환영하며 주옹을 축하하며
무궁한 시의 뜻이 화동을 함께 하네
꽃이 핀 고국에는 청춘에 기운이요
열매 맺은 타향에선 백발의 공이로다.
지혜가 고금을 통달하니 인물이 해박하고
학문이 천지를 주유하니 귀신도 통하도다.
풍류로 열세하며 몸은 온전히 늙어가니
일념으로 아침마다 동을 향해 절하노라

卽日 落韻成詩韻 - 陽, 鄉, 場

一日清遊已夕陽 일일청유이석양
醉心騎馬好還鄉 취심기마호환향
名家子弟多論會 명가자제다논회
坐席文章誇藝場 좌석문장과예장

誠庵

하루 종일 맑은 노름 석양이 닦아오니
취한 흥에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네
명가의 자제들이 강론회를 많이 하며
앉은자리 문장으로 재주를 자랑하네

又

遊興不知己夕陽 유흥불지이석양
更期後約各歸鄉 갱기후약각귀향
恩師好友分襟地 은사호우분금지
不妨進觴咏一場 불방진상영일장

竹堂

노는 흥에 즐거워 석양도 몰랐구려
후약을 기약하고 각기 집으로 가려 하네
은사와 좋은 벗들 헤어지려니
술상을 다시 내고 다시 한 수 읊어 보세

又

簷影漸移已夕陽 침영점이이석양
優遊心事在於鄉 우유심사재어향
高師益友相分路 고사익우상분로
更約後天如此場 갱약후천여차장

梧隱

집 그림자 점점 옮겨 석양이 저무는데
즐겁게 놀다가도 마음은 집에 있다네
고사와 익우들과 분로 할 적에
후일에 또다시 이런 자리 약속해보자

又

今日於焉已夕陽 금일어언이석양
醉筇倦步各歸鄉 취공권보각귀향
離筵相贈觀光約 이연상증관광약
莫作他時夢一場 막작타시몽일장

松波

오늘도 어언간 저녁 때 되니
취한 걸음 비틀비틀 각각 집으로 가네
떠나는 자리 서로 주는 관광의 약속
다른 때 꿈 한마당 만들지 마오

又

吉士風流坐夕陽 길사풍류좌석양
淸遊半日白雲鄉 청유반일백운향
江南豪傑相逢地 강남호걸상봉지
多述文章戰一場 다술문장전일장

梅軒

길한 선비 풍류 속에 저녁 때까지
종일토록 맑은 노름 백운향 일세
강남에 호걸들이 서로 모인 곳
문장을 많이 지어 한마당 싸워보세

又

來卽朝陽去夕陽 래즉조양거석양
淸遊半日梅湖鄉 청유반일매호향
雲收霧罷風千里 운수무파풍천리
客散臺空月一場 객산대공월일장

菊堂

올 때는 조양인데 갈 때는 석양
매호향에 반일토록 맑게 놀았소
구름 개고 안개 파해 바람은 천리
객은 가고 텅 빈 집에 달빛 한마당

又

醉興遲遲帶夕陽 취흥지지대석양
文兄酒伯各歸鄉 문형주백각귀향
他日更期惜別事 타일갱기석별사
奈何已矣若斯場 내하기의약사장

石汀

취한 흥치 지지한데 해는 저물고
문형과 주백이 각각 집으로 가려 하네
후일을 기약하며 석별의 인사
어찌하오 끝났으니 이러한 장소

又

月下庭梧盡 월하정오진
霜中野菊黃 상중야국황
樓高天一尺 루고천일척
人醉酒千觴 인취주천상
流水和琴冷 류수화금냉
梅花入笛香 매화입적향
明朝相別後 명조상별후
情与碧波長 정여벽파장

楊岩 金重植

달빛 아래 뜰에 오동잎 다 지고
서리 가운데 들국화 피었도다
다락이 높으니 하늘이 한 자쯤 보이고
사람이 취하니 술이 천잔 이로다.
유수 곡을 타니 화답하는 거문고 냉랭하고
매화 곡을 부르니 피리에 들어 향기롭구나
내일 아침 서로 이별을 하더라도
그 정은 푸른 물결과 함께 길어지리라

忠武公

憂國衷情貫出天 우국충정관출천
盟山誓海一如然 맹산서해일여연
龜船依舊抗倭氣 구선의구항왜기
閒島至今籠火烟 한도지금룡화연
忠武功成身死後 충무공성신사후
智仁勇大命生前 지인용대명생전
丹心昭昭千秋月 단심소소천추월
長照槿林亨万年 장조근림형만년

우국충정은 하늘을 뚫고 나왔고
맹산서해는 한결 같아라
거북선은 옛과 같이 왜놈기운 꺾어내고
한산도엔 지금까지 화연이 서렸도다.
충무의 훈공은 사후에 이루었고
지와 인에 높은 용기 생전에 위대했네
붉은 마음 밝고 밝아 천추에 달이 되어
언제나 무궁화 숲에 비쳐 만만세로 이어가리

又

舉義堂堂出於天 거의堂堂출어천
至今靑史尙輝然 지금靑사상휘연
一聲詩調閒山月 일성시조한산월
何處胡歌絕塞烟 하처호가절색연
名與孫吳同作列 명여손오동작열
功垂竹帛更無前 공수죽백갱무전
須知誓海盟山日 수지서해맹산일
直是挽河洗甲年 직시만하세갑년

당당하신 그 의리 하늘이 내었으니
지금까지 그 역사가 아직도 빛이 나네
큰 한소리 그 시조는 한산섬에 달이 되고
어느 곳에 나는 호가 절새에 연기로다
명성은 손자 오기와 함께 같은 반열 이루었고
공훈은 역사 속에 전에도 후에도 없네
모름지기 맹산과 서해를 알아
곧바로 은하수 끌어 병갑을 세척하는 해가 되어라

祝 孝友之篤

孝友仁門德又崇	효우인문덕우승
儒林稱頌共雷同	유림칭송공뢰동
心心常思欣親事	심심상사흔친사
念念無違報本誠	념념무위보본성
玉蘊深山先彩照	옥은심산선채조
蘭生幽谷自香通	란생유곡자향통
嗟今世態皆塵穢	차금세태개진예
更看翁家住道風	갱간옹가주도풍

효도하고 우애하는 어진 집안에 덕 또한 높으시니
유림들 칭송함이 우뢰와 같네
마음마다 항상 부모님 기쁘게 할 일 생각하고
생각마다 어김없이 보본정성 다 한다오
옥은 깊은 산에 쌓였어도 빛이 먼저 나타나고
난초는 유곡에 낳았지만 향기멀리 퍼지나니
아~ 지금 세상 모두다 진예인데
옹의 집안 도의 바람 가득하구료

贈 金蘭會

金號蘭稱創造年	금호난칭창조년
風流能使萬人傳	풍류능사만인전
閒遊餘暇多情友	한유여가다정우
大會良辰卽興仙	대회량진즉흥선
胸披江山神秘裡	흉피강산신비리
身舒天地物華前	신서천지물화전
諸君勿失同期好	제군물실동기호
舍矢光陰不自然	사시광음부자연

금이라 호를 하고 난이라 칭하는 창조의 해
유능한 좋은 풍류 만 사람에게 전해진다
한유하는 여가에는 정다운 벗이 많고
좋은 명절 대회 여니 즉흥 한 선인이라
가슴을 강산 신비한 속까지 열어놓고
자신은 천지문화의 앞에서 펼쳐보세
제군들은 동기의 좋은 기회 잃지 마시오
쏟살같은 세월은 부자연하리

止岩 李公相泰 頌德 1987. 3. 丁卯

古家忠孝煥然東 고가충효환연동
水色山光共和中 수색산광공화중
籬竹多情鼓瑟態 리죽다정고슬태
庭松長奏咏詩風 정송장주영시풍
羹墻寓慕深誠合 갱장우모심성합
苗裔尋眞懿躅同 묘예심진의족동
也識岩翁文行至 야식암옹문행지
綿綿餘慶永無窮 면면여경영무궁

고가의 충효가 빛나는 동방
수색과 산광이 함께 어울려
이죽은 다정하게 비파 치는 형태이고
정송은 언제나 영시하는 바람이 분다
선조를 사모하는 깊은 정성 다 모였고
후손들 참을 찾는 아름다운 자취가 있네
알겠도다 지암 옹의 문행이 지극하기에
면면한 남은 경사 영원히 무궁하리라

雪岳山 蓮花半開峯 頂上 일명 울산바위

蓮花半啓頂頭上 연화반계정두상
一望四邊意不窮 일망사변의불궁
滿目烟霞皆活畫 만목연하개활화
蘊胸浩氣自清風 온흉호기자청풍
前臨海水連天碧 전임해수연천벽
後列峰巒向日紅 후열봉만향일홍
高坐澄心無俗事 고좌징심무속사
蓬萊仙境暗相通 봉래선경암상통

연화 반계봉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니 마음이 무궁하여라
만목한 구름과 안개는 모두 살아있는 그림 같고
가슴에 쌓인 회포는 스스로 맑은 바람이라네
앞에 있는 바닷물은 하늘 달아 푸르르고
뒤를 향한 산봉우리 해를 향해 붉어진다.
높이 앉아 마음을 맑게 하니 속된 일 없어지고
봉래산 신선경과 은근히 통하는 듯

春興 1993. 3. 癸酉

春城万化摠圓圓 춘성만화총원원
物物生成廣大邊 물물생성광대변
正愛芳華因上岵 정애방화인상수
欲聽流水更臨淵 욕청류수갱임연
賞心宛若紅顏日 상심완약홍안일
樂事渾忘白髮年 락사혼망백발년
寄語林間多少士 기어림간다소사
莫辭翰墨起幡然 막사한묵기번연

봄 성에 만화가 모두 다 원만한데
물건마다 광대한중 생성하는군
정 히 방화를 사랑하여 인하여 산에 올랐고
물소리 들으려고 다시연못도 찾았노라
봄을 즐기는 마음은 완연히 젊은 사람과 똑같고
일을 즐기다가 혼연히 백발 됨을 잊었노라
숲 사이에 얼마만의 선비님께 한 말을 붙이노니
한묵으로 번연이 일어남을 사양치 마오

又 1993. 3. 癸酉

烟景正佳圓 연경정가원

逍遙山水邊 소요산수변

鳶飛雲霽路 연비운제로

魚躍柳垂淵 어약유수연

點也浴沂日 점야욕기일

羲之修稷年 희지수계년

酒兼詩又得 주겸시우득

心与氣浩然 심여기호연

연경이 정히 아름답고 또 원만한데
산과 물가에서 즐거워하노라
솔개는 구름 개인 하늘 길에서 날고
고기는 버들 드린 깊은 연못 속에서 뿔다.
증점은 기수에서 목욕하는 날이요
왕희지는 난정에서 수계하는 해이로다.
술에다 또 詩까지 얻었으니
마음은 氣와 함께 넓고도 넓네

民俗 工藝品 展視會 1987. 4. 丁卯

藝品眞多展視開	예품진다전시개
形形色色盡誠來	형형색색진성래
仙遊鶴舞雲飛席	선유학무운비석
春滿桃紅柳綠盃	춘만도홍류록배
親賞暫忘新世界	친상잠망신세계
悅看堪笑舊樓臺	열간감소구루대
循環天理誰能識	순환천리수능식
於昔於今一致廻	어석어금일치회

참으로 많고 많은 공예품을 전시해 여니
형형과 색색으로 모두다 성의껏 왔네
학이 춤추고 구름이 나르니 신선이 노는 곳이요
붉은 도화 푸른 버들 술잔에 봄이 가득
친절하게 감상하니 신세계를 잇은 듯
즐겁게 살펴보니 옛날 누대 우습네
돌고 도는 하늘이치 그 누가 알았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걸 같이 돌아간다오

又

積年藝展始今開	적년예전시금개
各盡其誠逸品來	각진기성일품래
莞織鮮紋花草席	완직선문화초석
土窯生動鳳凰盃	토요생동봉황배
心神到處透金石	심신도처투금석
功熱倍時堅塔臺	공열배시견탑대
精一工夫君識否	정일공부군식부
於千萬事此中廻	어천만사차중회

오래 만의 공예전시 이제야 열리니
모두들 정성 다한 일품이 찾아왔도다.
왕골로 짠 무늬는 화초자리요
흙 가마에 생동하는 봉황배로다.
심신을 다 한곳에 금과 돌도 투명하고
공과 열을 배로 할 때 탑과 대가 굳어진다.
정일한 공부를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어천만사가 이곳에서 돌고 돈다네

忠義祠 前 覽物 1988. 4. 29

龍岫鳳巒聚環幽 용수봉만취환유
祠成柿洞歲華流 사성시동세화류
柳垂館上鶯兒喚 유수관상앵아환
草綠溪邊鷺子遊 초록계변연자유
往跡昭昭開畫面 왕적소소개화면
毅魂歷歷展碑頭 의혼력력전비두
曉峯霽月長臨照 효봉제월장임조
報國偉勳豈盡收 보국위훈기진수

용수와 봉만이 취환하여 그윽한 곳
시량리에 세운 사당 세월이 흐르누나
버들 드린 집 위에는 피꼬리 벗 부르고
풀 푸른 시냇가엔 제비들 노니누나
밝고 밝은 지난자취 화면으로 열어놓고
역역한 곳 선 흰백 비석 위에 펼쳐있네
원효봉에 개인 달빛 언제나 조림하듯
나라 위한 큰 공훈을 어찌 다 거두리요

秋分 93. 9. 19

爽氣山河雨過初 상기산하우과초
平分秋色未全疎 평분추색미전소
雁行長碧月無盡 안행장벽월무진
梧葉空庭風有餘 오엽공정풍유여
燈耿深霄思董榻 등경심소사동탁
虫鳴四壁憶歐廬 충명사벽억구려
此心一片終難制 차심일편종난제
自怡琴書菊竹居 자이금서국죽거

시원한 가을 산에 처음으로 비 내리니
고르게 물든 가을 색 성긴 곳이 없구나
기러기 나는 하늘 달빛은 무궁하고
오동잎 빈 뜰에는 바람소리 유여하다.
깊은 밤 등불 깜빡이니 동중서의 책상이 생각나고
네 벽에 벌레 소리 귀를 흔드니 구양수의 살던 집을 추억하네
한 조각 이런 마음 끝내 억제 못하여
금서로 자위하며 국화와 대나무로 살아 보련다.

又 93. 9. 19

秋懷搖落十分初	추회요락십분초
來教盈城情不疎	래교영성정불소
四野黃金波浪溢	사야황금파랑일
一山爽氣夕陽餘	일산상기석양여
長天見雁分明陣	장천견안분명진
的歷聞蛩夜靜廬	적역문공야정려
滿眼風光時有適	만안풍광시유적
遠朋有意訪斯居	원봉유의방사거

가을 회포 요락하는 십 분 초인데
영성에서 오란 편지 받아보니 정의가 소원치 않아
사야에 황금 같은 물결 넘치고
한산이 시원하니 석양이 여유롭네
장천에 기러기 떼 분명한 진을 이루고
역역한 벌레 소리 고요한 밤 집에 잘도 들린다.
풍광이 눈에 가득 때도 맞으니
먼 벗들 뜻이 있어 이 집을 찾네

憶 梅軒 丈夫 出家 生不還之句 1991. 4. 29

忠義祠堂何處尋 충의사당하처심
島中島外柏森森 도중도외백삼삼
鶯來畫閣自飛舞 연래화각자비무
鶯在幽林空好音 앵재유림공호음
爲國能傳千世範 위국능전천세범
殺身自得一丹心 살신자득일단심
至今遙憶當年事 지금요억당년사
拱手回頭淚滿襟 공수회두루만금

충의사 사당을 어디서 찾을고
도중도 밖에는 잣나무만 뻗뻗하도다.
그림 집에 오는 제비 스스로 춤추며 날아들고
그윽한 숲속 피꼬리는 부질없이 좋은 소리 내는구나
나라위해 능히 천세의 모범을 전해주고
몸을 죽여 스스로 일편단심 얻었도다.
지금 와서 저 멀리 당년 일을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손 모으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又

撥反功高居万尋	발반공고거만심
出家遺句氣蕭森	출가유구기소삼
烟沉故國遠鄉信	연침고국원향신
風急龍灣驚棹音	풍급용만경도음
壯節成虹千古影	장절성홍천고영
忠魂貫日九天心	충혼관일구천심
精靈昭昭今如在	정영소소금여재
還愧北南未共襟	환괴북남미공금

발반의 공에 높이 만 길에 거하였고
출가라고 남긴 글귀 기상이 소삼해라
연기 낀 고국에는 고향 소식 멀어가고
바람 급한 압록강엔 놀라운 노소리라
장절은 무지개 되어 천고의 그림자를 이루우고
충혼은 해를 뚫고 구천 심에 떠 있도다.
소소한 그 정령이 지금도 살아 계신 듯한데
남과 북이 함께 못함 부끄럽네요

* 撥反: 撥亂反正의 준말인데 즉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있는 세상으로 회복함을 말함

又

生不還家大義尋	생불환가대의심
丈夫一語果嚴森	장부일어과엄삼
風殊異域立天誓	풍수이역립천서
春滿虹園轟砲音	춘만홍원굉포음
世界人民皆括目	세계인민개괄목
中原士女摠驚心	중원사녀총경심
靑丘唯有豪男子	청구유유호남자
長拂靑靑萬世襟	장불청청만세금

살아서는 오지 않는다는 대의를 찾아
장부의 말 한마디 과연 장엄 하도다.
바람 다른 이역에서 하늘 두고 맹서하였고
봄 가득한 홍구공원 포탄소리 크기도 하다.
세계의 인민들은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중국에 사녀들도 모두 다 놀란 가슴이로다
대한에 오직 한 호걸남자가 있어
언제나 靑靑한 만세 옷을 떨치리로다.

又

大明忠義一言尋	대명충의일언심
氣似寒松凌雪森	기사한송능설삼
鳳闕崩時垂血淚	봉궐붕시수혈루
龍灣渡日斷書音	용만도일단서음
諷吟萬古傑雄志	풍음만고걸웅지
感發千秋臣子心	감발천추신자심
生不還家無限意	생불환가무한의
慕情長襲後人襟	모정장습후인금

대명한 충의의 한 말을 찾아
기상은 눈 덮인 언덕에 차가운 송백과 같네
봉궐이 무너질 때 피눈물 나고
압록강 거닐던 날 소식도 끊겨
만고에 영웅호걸 큰 뜻을 품음하였고
천추의 신자들에 마음을 감발했도다.
살아서는 오지 않겠다는 무한한 뜻은
사모하는 그 심정이 언제나 후인 가슴에 젖어 있도다.

又

泰山重誓屹千尋	태산중서흘천심
決意丈夫氣爽森	결의장부기상삼
關塞簫條寒月色	관색소조한월색
風塵荏苒絕鄉音	풍진임염절향음
一言感發千人淚	일언감발천인루
半句能牽萬士心	반구능견만사심
早歲忘生行義路	조세망생행의로
唯公竹史獨青襟	유공죽사독청금

태산 같은 중한맹서 높이가 천길 인데
결의한 장부 기상 시원하고 삼엄하다.
관새가 쓸쓸하니 차가운 달빛이요
풍진이 재빠르니 고향 소식 끊겼구나
한마디 말이 천인의 눈물을 감발했고
반 귀절 시 한귀가 만사의 마음 이끌었네
젊은 나의 삶을 잊고 의로운 길 행했으니
오직 공만이 역사상에 독야청청한 옷깃이라

輓 忍軒 李東翼 先生

平生襟抱去畦畛 평생금포거휴진
好學愛詩樂天真 호학애시락천진
最哀仁翁遐永逝 최애인옹하영서
却驚長德漸凋淪 각경장덕점조륜
明倫勝會虛前座 명륜승회허전좌
聖廟誠筵缺一人 성묘성연결일인
多士卽今扶輓誄 다사즉금부만뢰
黃原故道淚沾巾 황원고도루침건

평생 동안 마음속에 거리를 제거하니
호학하고 애시하며 천진을 즐겼도다.
최고로 슬픈 것은 어진옹이 영원히 떠남이요
놀라운 건 장덕이 점점 적어짐이라
명륜당에 성한모임 앞자리가 비어 있고
성묘에 제전에는 큰 한사람 결석이라
많은 선비 지금에야 만장을 붙잡으며
황원의 고도 위에 눈물이 수건 적시네

又

先生才德出於天	선생재덕출어천
卓立儒林九五年	탁립유림구오년
晦塞斯文扶一脉	회색사문부일맥
淵源正學繼群賢	연원정학계군현
泰山頹矣將安在	태산퇴의장안재
師道嗚呼久不傳	사도오호구불전
自此湖鄉無肯式	자차호향무공식
四隣哀沒淚連漣	사린애몰루연연

선생님의 재덕은 하늘이 냈었는데
유림에 높이 선지 95년이라
회색했던 사문의 일맥을 부지했고
연원 깊은 정학은 군현을 이어서 갔네
태산이 무너졌다 장차어디에 있을까
아~ 사도의 길 오래도록 전하지 못하였군
이로부터 호향에 자랑할 것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사린이 돌아가심 서러워하며 눈물짓노라

又

拜筵不覺淚盈巾	배연불각루영건
惟見殯前畫寫眞	유견빈전화사진
湖右德山曾作主	호우덕산증작주
鄉中詩社更無人	향중시사갱무인
繁華富貴渾如夢	번화부귀혼여몽
窈窕林園謾自春	요조림원만자춘
素紉丹旌西郭外	소불단정서곽외
生平行善輓中新	생평행선만중신

영전에 절 올리며 눈물 남을 몰랐는데
빈소 앞에 오직 사진만 보이누나
호서지방 덕산 땅에 일찍이 주인이었고
향중의 시사에는 이만 한 분 다시 없었지
번화했던 부와 귀는 모두 다 꿈과 같고
아름다운 임원 스스로 봄이로다.
소불단정 서녘 들 밖에
평생토록 행선한 일 만장 위에 담겨 있네요

又

世敦隣侍己多時	세돈린시기다시
孰不悲翁我最悲	숙불비옹아최비
廟任行時全校土	묘임행시전교토
明倫講日悅人知	명륜강일열인지
平生藥業成仁術	평생약업성인술
百歲詩工莫可追	백세시공막가추
膝下子孫皆極肖	슬하자손개극초
家聲不墜繼承之	가성불추계승지

세의로 이웃에서 여러 해를 모셨는데
누구인들 서러우나 내가 가장 서러워라
향교전교 재임 시에 교토를 보존했고
명윤당 강학 할 때 알아감을 기뻐하였네
평생 동안 약업으로 仁術을 이루었고
백세토록 시를 지어 따라갈 자 없었다오
슬하에 자손들이 모두 다 현명하니
가성이 뒤짐 없이 계속하여 이어가리

又

遠近公言忍軒師	원근공언인헌사
溫良恭儉好風姿	온량공검호풍자
仁而長壽天其報	인이장수천기보
詩以驚人妙且奇	시이경인묘차기
孝子賢孫家業繼	효자현손가업계
草童牧豎善行知	초동목수선행지
今來一訣成千古	금래일결성천고
灑淚哭翁豈獨私	쇄루곡옹기독사

원근에서 공언하길 인헌 선생께서는
따뜻하고 인지하고 공검한 좋은 풍자라 하네
인하여 장수하니 하늘이 그에게 보답함이요
시로써 경인하니 묘하고 또 기이 하도다.
효자와 현손이 가업을 이어가고
초동과 목동도 선행을 다 알아준다오
지금 와서 한번 영결하면 옛사람이 될 것이니
눈물지며 옹을 곡하는 이 어찌 나뿐이겠는가

又

九五年光逝水同	구오년광서수동
人生虛渡世功名	인생허도세공명
而今哀送賢良士	이금애송현량사
於此皆稱好命翁	어차개칭호명옹
多客整衿愁落日	다객정금수락일
一鄉執紼淚春風	일향집블루춘풍
師門出入深知德	사문출입심지덕
誄不盡言意不窮	뢰불진언의불궁

95년 세월이 가는 물과 똑 같아라
인생이 헛되이 세상공명 다 보냈구려
지금은 슬프게 현량사를 멀리 보냈고
이 자리에 모두들 호명옹이라 칭찬들 하네
많은 손님 정금하고 지는 해를 서러워하고
한 시골이 다 모여서 눈물짓는 봄바람이라
선생님 문하를 출입하며 깊은 덕을 알았으나
만장으론 다 말 할 수 없어 뜻만 한이 없어라

又

京鄉弔客滿佳城	경향조객만가성
聞訃人人皆哭驚	문부인인개곡경
本以厚淳多積善	본이후순다적선
工於詩賦見刊工	공어시부견간공
功名已了人間債	공명이료인간채
仙魄依然天上翁	선백의연천상옹
一曲薤歌荒草路	일곡해가황초로
夕陽鷺語倍傷情	석양연어배상정

경향에 조객들이 가성에 가득하니
부고 받은 사람마다 놀라며 울지 않는 사람 없네
본성이 후순하니 많은 선행 쌓아가고
시부에 재주 있어 간행의 공 보았도다.
공명은 이미 인간 말은 바를 다하였고
신선영혼 의연하게 천상옹이 되었도다.
한 곡조 상여소리 거친 풀길에
석양에 제비 소리 더욱 속상해

輓 玉田 申公 91. 5. 15(申漲秀 先考丈)

吊翁故宅玉田鄉 조용고택옥전향
密密後承蕃又昌 밀밀후승번우창
農圃漁樵隨本分 농포어초수본분
琴書詩禮樂平生 금서시예락평생
出乎天性全仁孝 출호천성전인효
遵兮家規極慈良 준혜가규극자량
聞訃四隣皆失色 문부사린개실색
靈輻旣駕淚垂滂 영이기가루수방

옥전리 고택에서 응을 조문하니
빳빳한 후손들 번창 하도다.
농포와 어초로 본분 지키고
금서와 시예로 평생 즐겼네
천성에서 나온 인효 언제나 온전했고
가규를 준행함에 慈良을 다 하였네
부고들은 이웃들은 모두 다 실색하니
상여가 떠나갈 때 사람마다 눈물 짓네

又

如公壽德復誰存	여공수덕부수존
遠近人人親睦敦	원근인인친목돈
虛老窮途文雅士	허노궁도문아사
皆知當世孝仁門	개지당세효인문
將何問業嗟鄉里	장하문업차향리
別有繼家肖子孫	별유계가초자손
自顧所關違執紼	자고소관위집불
東風灑淚九泉原	동풍쇄루구천원

贈 石亭

공과 같은 수복이 다시 누가 있겠나
원근의 사람마다 친절하고 화목했지
문장의 아사인데 궁도에서 허로했고
효와 인의 가문임을 당세에 누구나 다 알았다고
앞으로 무슨 업을 물어본다면 향리가 다 슬퍼했고
특별히 가업 이을 어진 자손 있답니다.
나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문을 못하지만
구천 원에 눈물지며 봄바람에 보냅니다

又

於昨聞翁訃 어작문옹부
拜尋未過旬 배심미과순
初來疑不信 초래의불신
再確認為眞 재확인위진
往事渾如夢 왕사혼여몽
追思淚濕巾 추사루습건
我門最長德 아문최장덕
哀逝玉京人 애서옥경인

贈 申泰億

어제 옹의 부음을 듣고
찾아 뵈지 십일도 못 되었는데
처음 와서는 의심하고 믿기지 않아
다시 확인하고야 참임을 알았답니다.
지난일은 모두가 꿈만 같으니
생각할수록 저절로 눈물만 난다.
우리문중 최고의 장덕이신데
옥경으로 떠나가심 서러워하노라

又

公棄人間何處去 공기인간하처거
應歸天上玉京仙 응귀천상옥경선
崇祖睦宗平生事 승조목종평생사
到今哀逝淚連漣 도금애서루연연

贈 申氏宗中

공께서는 인간을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요
응당 천상에 옥경신선으로 돌아가겠지
조상을 숭배하고 일가 간에 화목으로 평생 보내었고
지금 와서 영서하니 눈물이 났네

輓 前 典 校 延 安 金 公 玄 基 癸 酉 . 4

自我知翁十有年 자아지옹십유년
聞來凶報夢依然 문래흉보몽의연
丹旌素紉靑山路 단정소불청산로
孝子哀孫號哭阡 효자애손호곡천
故陌春回梅欲放 고맥춘회매욕방
歸途風暖柳舒眠 귀도풍난류서면
薤歌一曲悲涼恨 해가일곡비량한
淚洒沐川夕照邊 루쇄목천석조변

내가 옹을 안지 십여 년 인데
부음을 듣고 보니 꿈과 같구려
붉은 깃발과 흰 밧줄로 청산 길은
효자와 애손들 호곡 하는 길
고맥에 봄이 드니 매화는 피려하고
가시는 길 따뜻하니 버들은 잠을 깨는 듯
상여소리 한 곡조에 슬픔의 한은
눈물짓는 목리 천에서 석양이 지네

又

倏然淸福享高年 소연청복향고년
白髮閒居沐里川 백발한거목리천
咸道巷間讓德士 함도항간양덕사
爭稱地上有神仙 쟁칭지상유신선
悲歡終世如孤鶴 비환종세여고학
安順歸眞似化蟬 안순귀진사화선
五孝子存苦下哭 오효자존점하곡
淚沾龍岫暮雲邊 루침룡수모운변

代 石亭

소연한 맑은 복에 수도 높았고
목리에서 백발토록 한거 하셨네
항간에서 양덕사라 칭찬들 했고
지상에 신선이라 다들 말했지
비환으로 종세하니 고학과 같고
안순으로 귀진하니 화선과 같네
다섯 효자 점석에서 우는 정경은
구름마저 눈물 젖어 용봉산에 어리네

又

哭翁仁慈堪傾許	곡옹인자감경허
道骨仙風白髮侵	도골선풍백발침
慕聖育英儒士行	모성육영유사행
繼家忠孝丈夫心	계가충효장부심
老身寂寞埋泉壤	노신적막매천양
往跡分明隔古今	왕적분명격고금
沐里夕陽荒草路	목리석양황초로
薤歌聲裡水雲深	해가성리수운심

代 德亭 申泰億

인자하신 옹이였다 조문하면서
도골 에다 선풍인데 백발이 왔네
성인을 사모하고 후사를 육영하는 유사이었고
집을 잇는 충과 효는 장부심이라
몸은 늙어 적막함을 천양에 묻고
지난 자취 분명하게 고금이로다.
목리에 해 저물고 거친 풀길에
상여 노래 한소리에 수운이 깊네

又

唯公卓義重如山 유공탁의중여산
言慎行宜久世間 언신행의구세간
芳草落花醒且醉 방초낙화성차취
夕陽新月去而還 석양신월거이환
身離累穢渾如脫 신이누예혼여탈
魂到玉京應有歡 혼도옥경응유환
占得佳阡連舊壟 점득가천연구릉
千秋萬歲永便安 천추만세영편안

贈 趙乙行

오직 공의 높은 의는 장중하기 태산 같으니
언신행의로 오래도록 세상을 살아 오시였네
방초와 낙화에서 깨었다 또 취했고
해가가고 달이 뜨며 가고 오는 세월이 라오
몸이 더러움을 떠나니 혼연이 탈을 벗은 것 같고
영혼이 옥경에 도착하니 마땅히 기쁨이 있네
점득한 묘 터에 옛무덤 연했으니
천추만세토록 오래오래 편안하리

山林進士 敬庵 方孝俊 先生 追慕碑銘

聰明俊才-智慧拔群	총명준재 지혜발군
智圓行方-物我無間	지원행방 물아무간
衛道崇學-好德喜施	위도숭학 호덕희시
捐財振學-訓導恢宏	연재진학 훈도회굉
医俱四術-方藥更蘇	의구사술 방약갱소
意在明德-志有活人	의재명덕 지유활인
儒林詩會-二回褒賞	유림시회 이회포상
藥與教化-農且風月	약여교화 농차풍월
欲贊其德-儒門表象	욕찬기덕 유문표상
門人供誠-立碣留芳	문인공성 입갈류방

총명한 준재요 지혜는 무리에서 빼어나셨고

슬기는 둥글고 행동은 방정하며 상대와 나는 사이가 없네

斯道를 보위하고 학문은 높으시며, 덕행 좋아하고 베풀기를 기뻐하며
재물을 내어 학교를 진흥하시니 훈도함이 넓고 크도다.

의업에 四術을 함께하고 방약을 처방하면 다시 소생하다.

뜻은 明德에 두고 의지는 사람을 살리는데 있었다.

유림의 시회에서 두 번이나 포상 받으시다.

약업과 교화이며 농사와 또 음풍롱월도 하시다.

그 덕을 찬양하고자 하면 유문에 표상이로다.

문인들이 정성을 받쳐 비갈을 세우고 芳名을 남겼도다.

敬庵 方孝俊 先生 墓碑銘文

溫水舊闕	世著令名	온수구별	세저령명
儒雅天姿	鄉党共悉	유아천자	향당공실
篤信好學	孝友躬行	독신호학	효우궁행
芥視榮利	終老林壑	개시영리	종노림학
山林進士	有狀可據	산림진사	유장가거
善慶之報	子孫厥昌	선경지보	자손궐창
門人子孫	供誠立碣	문인자손	공성립갈
用表公阡	敬式千秋	용표공천	경식천추

온양의 구별이요 세로 영명이 현저하다.
청아하신 선비의 자품이요. 향당에서 다 아시는 바이로다.
믿음이 돈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효도와 우애를 몸소 실천하시었네
영리를 초개와 같이 보고 끝내 임학에서 평생을 보내시었네
산림진사라는 칭호는 장이 있어 증거하네
복연선경의 보답은 자손들이 다 창성하네
문인과 자손이 정성을 다해 비를 세우고
선생의 묘 앞에 표를 하고 천추토록 공경하리로다.

敎學相長

雖有甘旨나 不食이면 不知其味也요

雖有至道나 不學이면 不知其善也라

是故로 學然後에 知 不足하고

敎然後에 知其困이니

知困 則 能自強하고

知不足 則 能自反也니

故로 敎學이 相長也니라

비록 단맛이 있으나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지극한 道가 있으나 배워 보지 않으면 그 선한 점을 알 수 없는 것

이러 하므로 배워본 후에 그 부족함을 알 수 있고

가르쳐 본 후에 그 困한 점을 알 수 있나니

困한 점을 알 수 있으면 능히 스스로 힘써 나가게 되고

부족함을 알면 능히 스스로 반성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烏山 李起鳳 先生 百壽 頌詩 辭

受天命賦之理하여 以爲性하고 得地鍾育之氣하여 以爲形하나니 性本乎天而天爲命之하고 形本乎心而心 爲主之者也라.

然則君子는 不求富貴長生之術하고 先修爲人之道하여 以待天命者也라 故로 曰 壽命은 天之福人也요. 享福은 人之樂天也라 亞聖公 所云 樂天知命이 不其信歟아 今余拜見 烏山 李起鳳 先生 之一生所執 則 孝于先世 而 竭其力하고 政于一家而穆其族하고 教其子孫而各其成하고 責于法務而 明其職하고 慕于先聖而 篤其信하며 壽考越百而 氣力强康하여 凡百履職과 動容周旋이 無不中禮하여 猶優乎有學少壯하니 若非樂天知命之翁이면 其可能之乎也哉아 余於先生에 居地相遠하여 雖不頻拜나 一片靈垠는 兩地相照하여 常思高風而 暫不移於心目 之間之際에 忽被以電言으로 來汝之教하시니 卽知先生之穩討閒雅之情으로 猥蒙下逮之尊意也로다.

昔者에 東坡 蘇先生之生朝에 劉貢父被速而以松鶴圖祝賀矣 러니 余敢以蕪辭拙詩로 謹拜謝禮하오니 幸恕諒下則得之矣로다.

하늘이 명부한 이치를 받아 그것으로 性을 삼고 땅에 종육한 기운을 얻어 형체가 되나니 본성은 하늘에 근본 하여 하늘이 그에게 명하고 형체는 마음에 근본 하여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는 부귀와 장생의 술법을 구하지 않고 먼저 사람 되는 도리를 닦아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다. 고로 알 수명은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요. 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이 천지자연을 즐기는 것이다. 아성 공 맹자께서 말씀하신바 樂天知命 이라 하시니 그 믿음직하지 않은가. 오산 이기봉 선생님을 뵈고 그 분의 일생 所執한 바를 살펴보면 先世에 효도하여 그 힘을 다 하였고, 한집안을 잘 제가하여 그 一家에 친목 하였으며 자손들을 잘 교육하여 다 성공 시켰으며 법무사에 취직하여 그 직분을 명백하게 하였으며, 선성을 사모하여 그 믿음과 정성을 돈독히 하였으며 수는 백세가 넘으셨어도 기력이 건강하여 모든 직분을 이행함과 동용 주선함이 예에 맞지 않음이 없어서 오히려 많이 배웠다는 젊은 소 장년보다 우월하시니, 만약 樂天知命이 翁이 아니면 가능이나 하겠는가. 내가 선생에 대하여 서로 사는 거리가 멀고 하여 비록 자주 뵈지는 못하지만 한 편이 마음은 두 곳을 함께 비추어서 항상 높으신 풍의를 생각함이 마음과 눈에서 떠나지 않던 즈음에, 갑자기 전화로 잠깐 서로 만나 담론하자고 하시니 즉 선생의 온토 한아하신 정분으로 외람되이 불러주신 존의를 입어 알게 되었다. 옛날에 소동파선생의 생일 아침에 유공보가 부름을 받고 송학도로서 축하했다 하더니 나는 감히 거친 축하졸한 시로써 삼가 절하고 사례하노니, 다행히 용서하시고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雲谷 孟天述先生 壽詞

古人云 壽爲五福之一而 非人人可得者也라 故로 以攸好德으로 爲綱領하고 又曰 大德은 必得壽라하니 壽固德之報而有德則 必有壽라 雖然이나 古今之壽 不稱於其德者 其爲限界 如何哉아 顔子之壽는 僅三十二也오 周濂溪 程明道 張橫渠先生이 舉未滿 六十而沒하시니 此四賢者는 其德이 俱亞於聖而皆不得其壽는 何也오 以身壽者는 其期以百壽也오 以名壽者는 亘万世而長存이니 盖人生於斯世에 如物之盛衰하여 與草木 同腐하고 名遂湮沒而無傳者는 雖爲長壽나 奚足稱哉아 吾는 寧嗇於年而富於德하여 將以壽其名矣로다 又 壽其身而壽其名者는 尤可貴而不廢者也로다 今吾友 雲谷孟天述은 讀聖賢書하고 悅聖賢道하며 欲學聖賢之爲하니 其剛直之性和 堅貞之操로 修身飾行하여 安貧樂善하여 遠近親疎가 皆望想而愛慕之하니 其賢을 可知而壽其名者歟인저 今當旧甲하여 韶顏華髮은 可期百歲之壽니 德之所報信不誣也로다 更爲之祝曰 壽其身而又壽名을 將於子에 見之矣로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수는 5복에 제1이라 하여 사람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로 유호덕으로 강령을 삼으라 하고 또 말하기를 큰 덕은 반드시 수를 얻는다 하였으니, 수는 진실로 덕의 보답이라 덕이 있으면 반드시 수가 있다 한 것이다.

그러나 고금의 수가 그 덕에 맞지 않은 자 그 한계가 얼마나 될까 안자의 수는 겨우 32세였고 주염계 정명도 장횡거 선생들도 모두 60미만에 몰하였으니 이 4현인들은 그 덕이 모두다 성현에 버금갔지만 그 수를 얻지 못함은 어째서 일까.

몸으로 수를 하는 것은 그 기한을 백수로 하지만 이름으로 수를 하는 자는 만세에 뻗쳐 길이길이 얻는 것이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물건의 성쇠와 같아서 초목과 더불어 함께 썩고 이름도 함께 없어져서 전해지지 않는 자는 비록 장수하나 그 무엇을足以 칭찬 했겠는가.

나는 차라리 나이는 인식해도 덕은 풍부하곤 하여 장차 그 이름이 장수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또 그 몸도 장수하고 그 이름도 장수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귀하여 폐할 수 없는 것이니라.

지금 나의친구 운곡 맹천술 은 성현의 책을 읽고 성현의 도를 기뻐하여 성현의 행실을 배우고자 하니 그 강직한 성품과 경건한 지조로 수신 식 행하며 안빈낙도하니 원근의 친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사모하니 그 현철함을 가히 알 만하고 따라서 그 이름도 장수하리로다.

지금 그 환갑을 당하여 소안과 화발은 백세의수를 할 것 이며 그 덕의 보답으로 주어졌음이 참으로 거짓말 아님을 알겠도다.

다시 축하하여 말하기를 몸도 수하고 이름도수 할 수 있는 분을 내 장차 그대에게서 볼 것이로다.

廷圃 吳道泳先生 米壽 辭

夫 人之壽는 仁之驗也요 福之綏也오 德之符也라 今 廷圃 吳先生이 實有之하니 猗歟盛矣로다. 翁 孝仁德을 飽聞於 忍軒 栗坡 兩先生之傳而一不面拜하니 實愚之淺陋而致此者는 眞是恨事也로다. 意外에 令胤城根甫 馳書于余曰 今丙寅 某月日은賢翁 八八晬辰而 要余拙辭 故余於翁之間에 雖無一日之雅나然이나 一片心犀는 兩地相照 故로 豈可以不面으로 謂不知云乎아 夫在天之富와 在命之壽는 貪欲者 雖多나 天不輕許而唯是吉人而後에 可得이요. 非人人可得也라 故로 古人이云 人間五福壽爲先라 하였으니 然이나壽必有令德以後에 可謂貴矣라. 今廷圃 賢翁 則 自少事親至孝하고 接人以敬하며 篤誠於爲先 事業하고 專攻於仁術하여 存心濟衆而 隨手春光 故로 一鄉이 慕其孝悌而褒其善行하니 翁之壽는 可謂稀世之可貴而可慶者也로다. 余雖不文이나 感於中而言志如左 하고 質諸章甫頌賀不已

사람의 수는 인에 징험이요 복에 끈이며 덕의 부절이다. 지금 정포 오 선생이 실제로 소유하였으니 아름답고 성 하도다.

옹의 효와 인과 덕을 인헌과 율파 양 선생에게 전언으로 포문한바 있으나 한 번도 면배한적은 없으니 실로 나의 천 누 함이 이에 이르렀음은 참으로 한 되는 일이다. 뜻밖에 영운 성근 씨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병인 某月某日 賢翁 八八 수신 이라며 나에게 졸사를 요청 하였다. 나와 옹 사이에는 비록 일일지아도 없지만 일편의 마음 만은 두 곳이 서로 통하는 고로 면배하지 않았다하여 不知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 있는 부와 命에 있는 수는 탐욕 하는 사람 아무리 많다 해도 하늘이 가볍게 허락해 주지 않고 오직 吉人에게만 가히 얻을 수 있고 사람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고인이 말하기를 인간 오복의 수가 첫째가 된다 하였으니, 그러나 수는 반드시 좋은 덕행이 있는 후에 가히 귀하다 할 것이다. 지금 현옹 정포께서는 젊어서부터 부모 섬기기를 지극한 효를 다하고 사람 접대하기를 공경으로 하였으며 위선사업에 정성을 돈독히 하였고 인술인 의업에 전공하여 제 중 하는데 마음을 두어 손이 가는 데는 봄빛과 같았으므로 한 향내가 그의 효제로움을 사모하여 그 선행을 표창하였으니 翁의 수는 가히 희세의 귀하고 경사스러운 米壽라 하겠습니다.

내 비록 글은 할 줄 모르나 中心에 감동되어 이상과 같이 뜻을 말하고 여러 장보님께 질정하고 송하를 마지 않습니다.

寄別後菩提茶主人 丙寅 一十二月

床頭一片紙는	상두일편지
知自故人來라	지자고인래
我看君書日이요	아간군서일
君觀我詩時라	군관아시시
情友今何事오	정우금하사
書固無心開라	서고무심개
義超乾坤道하고	의초건곤도
情如山與河라	정여산여하
相交雖日淺이나	상교수일천
心意相傳多라	심의상전다
久離心自亂이오	구리심자란
對面小言何오	대면소언하
如此好箇人을	여차호개인
何處更相逢가	하처경상봉
英雄一時物이요	영웅일시물
豪傑當世風이요	호걸당세풍
昭君胡地土요	소군호지토
貴妣馬巍塵이라	귀비마외진
人生雖百歲나	인생수백세

難見百歲人이라 난견백세인
 松得千年月이요 송득천년월
 竹遇萬世風이라 죽우만세풍
 竹脩松茂地여 죽수송무지
 長發一心情하라 장발일심정

책상 위에 한 장 편지는
 고인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노라
 내가 그대의 서신을 보고 있는 날
 그대는 나의 詩를 보고 있을 때
 정든 친구여 지금 무엇을 하나
 편지만 무심코 열어 본다오
 의는 건곤의도를 뛰어 넘었고
 정은 산과 강과 같네
 서로 사권지 비록 일천하지만
 마음과 뜻은 서로 전함이 많네
 오래 떠나 있으면 마음이 스스로 심란해지고
 얼굴을 대하면 왜 그런지 말수가 적네
 이와 같이 좋은 사람을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날까
 세상에 영웅들도 한때뿐이요
 호걸들도 당세의 바람이라
 왕소군도 호지의 진토되었고
 양귀비도 마외에 한줌 흙이라
 인생이 비록 백세이나
 백세 사는 사람 보기 어려운 것

松은 千年의 달을 얻었고
竹은 萬世의 바람을 맞아
대가 길고 솔이 무성한 땅에
언제나 한결 같은 심정을 펴세

事親

父兮乾道 부혜건도

母兮坤儀 모혜곤의

生我養我 생아양아

愛我教我 애아교아

恩大如天 은대여천

報德無極 보덕무극

아버지이시여! 하늘에 도이고
어머니이시여! 땅에 위의 일세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 주시었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셨네
그 은혜 하늘과 같으시니
은덕을 갚고자 하니 한이 없고 끝이 없도다.

續金蘭契序

夫友也者는 以文相交者也요 朋也者는 以德相結者也요 黨也者는 以志相合者也니 然則今此吾儕 金蘭之會는 必也使文德志三者通合以結成者歟인저 然而其會友는 總是當世之好德清士也라

雖居濁亂之時나 却不染塵世之風하여 或遯世隱居以 種嘉禾爲樂天하고 或投身市井以窺時勢爲修身하고 或浮筏學海以窮經典爲進德하고 或招進狂狷以誨不倦爲進道하여 各隨天分而存心하고 亦行人職而待命하나니 如此篤行之士를 孰敢侮之也哉아

不啻라 歲時伏臘에 相與會同하여 賞時物之好惡하고 論世態之清濁하며 誦前聖之德言하고 吟風月之閒情하며 以養其浩然之氣하나니 此所謂心中無餒而集義所生者也라 伐羔烹犬하고 釃酒相勸하며 既飽既醉以耳熱則咏歌舞蹈하나니

嗚呼라 曰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而不怨天 而不尤人而不遷怒 而不貳過하여

謹自修飭하며 好賢如緇衣하고 惡奸如巷伯하면 自古及今히 雖有他美契賢黨이나 其趣其意가 豈有過於吾黨 金蘭之清高雅趣者也哉아

此會發源於禮唐之間하여 至今日延及洛城하니 可謂

不息之功矣로다 吁라 轉眄之間에 滄桑世變하여는 又安得不
悲리오 今乃知右軍之樂極而悲者는 眞明理達觀之至論也로다
我輩今日之會는 誠不易之一勝事而亦將使後之視今이 猶今之
視昔이로다 歲庚寅 暮春之初 金蘭續會而序하노라

蘭亭六槐亭序

무릇 벗이라 함은 文으로써 사귀는 것이요 朋이라함은 덕으로써 습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들의 금란 회라 함은 文과 德과 志 세 가지를 합하여 결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들이 비록 濁亂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바람에 물들지 않고 혹은 세상을 등지고 농사에 숨어 畊讀으로 자연을 즐기기도 하며 혹은 市井에 투신하여 시세를 엿보면서 修身하기도 하며 혹은 狂 狷의 學徒를 모아 學不厭 教不倦의 사명으로 진도를 삼아서 각자 天分의 성심을 두고 또한 수인사 대천명하나니 지금 이와 같은 독행지사를 뉘 감히 업신여기겠는가

뿐만아니라 歲時伏臘에는 잊지 않고 언제나 회동하여 時物의 好와 惡를 감상하고 세태의 청탁을 논박하며 전 성현의 덕언을 강학하며 또 따라서 풍월의 한정을 吟咏하면서 천지 자연의 호연지기를 배양 하나니 이것이 곧 이른바 마음을 주리지 않고 義가 집중되어 生生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또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서로 권하고 작하며 기포 기취한 후 귀가 뜨거워지면 영가 무도 하나니.

아~~ 그럼도다. 벗이 있어 먼 방위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더냐.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허물하지 않고 노함을 옮기지 아니하며 잘못을 두 번하지 아니하여 근신으로 자기를 수칙하고 어진사람 좋아하기를 緇衣와 같이하며 간악함을 싫어하길 巷伯과 같이 하였으니 아~~ 예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록 다른 아름답다는 契와 현명한 당이 있다 해도 其취지와 그 뜻이 어찌 우리당의 金蘭會와 같은 淸高한 雅趣가 있을 수 있을까

이회는 예·당 사이에서 발원하여 지금에는 서울까지 언급 하였으니 가위 불식지공이라 할 수 있도다.

아~~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창상으로 변하였으니 또한 어찌 감회가 슬프지 않으리요. 이제 서야 왕우군의 樂極悲生이란 뜻을 알만하고 또 따라서 先賢의 明理達觀의 至論임을 깨달았도다.

우리들의 오늘 이 회는 참으로 바꿀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며 또 장차 훗 사람이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사람이 옛일을 보는 것과 같다 하겠도다.

해는 庚寅年(2010) 三月初旬에 續金蘭會에서 序하노라.

난정 수덕 육괴정에서

竹堂記

黃梅之東에 築一室하고 命之曰 竹堂精舍라하니 其義居何焉
고 夫水陸之間에 叢林衆草는 皆生於春 長於夏而 及其秋風
이 怒號하고 霜威嚴酷이면 則百草는 色腓하고 衆木은 葉脫
하여 滿目蕭條하니 而菊於庭畔에 金葩垂垂하니 晉陶淵明이
愛之하고 蓮於淤泥에 花葉이 亭亭하니 宋周濂溪愛之나 竹於
邱園에 猗猗青節이 不讓於 菊之黃 蓮之紅이나 而尙無愛者
於千載之下者는 亦何哉오 噫라 余居於好音黃梅洞에 巷窮地
僻하여 旣無士友而論襟托契也로다 欲友江山則 大江名山은
旣非園中之物也오 欲友風月則 清風明月은 亦非恒有之物이
니 而常目友者는 莫如竹也라

於是乎 種竹一畝하니 蔚然成林이라 清風이 吹來則其聲이 瑟瑟
하고 明月이 時照則其影이 婆娑하니 瑟瑟之聲과 婆娑之影
을 耳得之而爲友하고 目寓之而爲朋이면 則四時長對而無厭
矣리니 可謂良朋芳隣也로다 然則其之主人이 宜乎余也否哉아
竹堂主人

歲 辛卯 月 日 田溶國 書

황매동 동편에 집 한 채를 짓고 명하여 말하기를 竹堂 정자라 하니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릇 물과 육지 사이 여러 나무와 풀들은 모두 봄에 나서 여름까지 자라다가 가을에 이르러 찬바람이 불어오고 찬 서리가 내리면 모든 풀들은 색깔이 변하고

모든 나무들은 잎새가 떨어지며 눈에 가득 소조해지나니 그때 국화는 뜰가에 황금색 꽃송이가 늘어지고 늘어지니

썸나라 때 도연명이 사랑하였고 연꽃은 진흙 연못에 솟아오르며 꽃송이와 잎새가 정정하니 송나라 때 주염계가 사랑하였다.

그러나 대는 동산언덕에 야들야들한 짓푸른 마디가 국화의 황금색과 연꽃의 붉은빛에 뒤지지 않건만 아직까지 천여년 지간에 사랑했다는 사람이 없었으니 또한 왜 그러할까.

아~~아쉽도다. 나는 호음황매동 궁항 벽지에 살면서 임이 士友와 論衿托契할 처지가 되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江과山을 벗하고자 하면 大江名山은 본래부터 園中에 물건이 아니요.

淸風明月을 벗하고자 하면 청풍명월도 또한 항상 있는 물건이 아니니 그래도 항상 보고 벗할만한 것은 竹과 같은 것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에 竹一畝를 심어 무성한 숲을 이루니 그 곳에는 청풍이 불어오면 그 소리가 瑟瑟하고

밝은 달이 때로 비쳐오면 그 그림자가 婆娑하니 슬슬한 그 소리와 파사한 그 그림자를 귀에 얻어 벗을 삼고 눈에 붙혀 벗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四時를 長對하며 싫음이 없으리니 참으로 가히 좋은 친구요 꽃다운 이웃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이 마땅히 내가 아닐까 아마도 알 수 없네요.

1951年 辛卯 月 日

竹堂 田溶國 記

金蘭會 創立 趣旨書

金本貴重之寶也오 蘭本香美之草也니 二字之名을 摘我會稱者는 必有其意也라 初有海外近代化新風이 能動天地하여 以實力鼓吹에 世界注目하여 無數學者가 競爭熾烈하여 心血傾注於現代文學史 研究하니 其學이 神出鬼沒하여 實蹟無窮也라 以故로 科學文明이 達於高度以征服宇宙하고 人類生活이 至於極侈以剗造歷史하니 於是에 西歐文明이 最初入國하여 人權解放而教育一新하니 五百年 傳統儒林이 一朝受難하여 各鄉校絃誦이 斷絶하고 道學者 隱退鄉里하여 既爲世之無用之物이 業已久矣라 雖制度文物이 粲然備具하고 民生侈富一目瞭然하여 男女老小共唱權利하고 滿喫自由나 然이나 蓋其學校教育指針이 備重於技巧而蔑視道學하여 前進世代의 億兆蒼生이 注目於物質萬能而外面於禮義道德하여 三綱五倫은 失機已久하고 異端邪教는 乘時亂舞하여 不純風潮가 逐日盛行하고 尤爲慨嘆者는 其靑少年犯罪行爲例事라 是皆爲誰之咎오 嗚呼惜哉라 既往道學君子는 皆遺棄巷間하여 一生杜門不出而安貧樂道라가 不見其色而坎坷終身하고 今儒學者或生存江湖나 然이나 極少數而隱居埋名하고 無關世俗而閒遊歲月하니 五百年遺來之古風行習이 吸收泡沫하여 美風良俗이 蘇生無期하고 我民族傳統之倫理道德이 耻辱受侮하여 後之學者 已至根絶也라 吾亦年少에 能吞靑雲之志하고 與其等輩로 週遊漢文私塾하여 高名師導之下에 多年切磋琢磨하여 其螢雪之功으

로 多少涵畜知識이러니 時運不幸하야 至今四海新人得勢而撤廢漢字 故로 十年抱負가 一朝飛灰하고 負耒南畝 畊稼篤農하더니 爲其餘暇善用하여 與 同志門生五六人과 同知學者三四人으로 構想雅契하고 協贊發起하여 以文會友하고 以友輔仁하니 其人物이 如金斯貴하고 其文德이 如蘭斯香 故로 號稱曰 金蘭會니 自此以後로 往往會同하여 討論文章詩句而鼓吹知識하여 解得條理奧妙하고 貶評古今人物而 鑑定運命하야 識別時勢得失하여 愛吟江山風月而高尚趣味하야 涵畜氣像活潑하고 湛樂琴書棋酒而怡養精神하야 認知生涯足安하니 榮達이 無關하고 是非不聞이라 以誠實輔翼之하고 以忠信交遇之하야 少無動搖於波瀾時局하고 健旺暢達하여 以至於年輪二十五矣라 基盤造成하고 資源調達하여 搖之不動하고 破之不能하여 於是에 烟霞之癖이 漸益強盛하야 歲時伏臘에 烹鷄蒸豚하고 景物巡訪而設詩酒筵하야 一吟一醉而散策消日하나니 方春和時에 花柳東風은 有探訪觀光之滋味요. 長夏盛時에 綠陰繁樹는 有灑風避暑之滋味요 三秋晚節에 黃菊丹楓은 有坐愛題詩之滋味요 隆冬臘天에 白雪寒風은 有定期總會之滋味라 將以遍踏江山形勝而散慮逍遙하여 與其自然으로 造化呼吸하고 閱盡壯觀古跡而博學見聞하여 與其景觀으로 精神滌潔하고 週遊天下以後에 歸述文章하고 綜合詩句하여 發刊冊子하고 傳之來后하여 欲使永保玉簫爲計하노니 嗟我同志學者는 一躍興起哉인저

歲 庚申 正月 大望 書

每束筆必在圓正氣力縱橫主輕凝神勢當審字勢四面停
均一邊具備短長与度蒸細折中心眼準程疎密款斜眾不可
忙、則失勢次不可緩、則音癢又不可瘦、當亦枯復不可
肥凡則實渴細詳緩臨自然備體此是最要處

右歐陽詢傳授訣
李松泰全錄



唐歐陽詢傳授訣

每秉筆必在圓正氣力縱橫重輕凝神靜
慮當番字勢四面停均八邊具備短長合
度麤細折中心眼準程疎密欹斜最不可
忙忙則失勢次不可緩緩則骨癡又不
可瘦瘦當形枯復不可肥肥則質濁細
詳緩臨自然備體此是最要妙處
貞觀六年七月十二日詢付善奴授訣

每番 붓을 잡으면 반드시 氣力을 圓正하게 하여 自由로이 輕重을 하며 神이 어리도록 조용히 생각하여 글자 形勢를 살펴 四面이 均一하고 八邊을 具備하며 短과 長이 法度에 適合하며 거칠고 纖細함을 折中하고 마음과 눈이 法을 準字하고 드물고 調密하고 기울어지고 비스듬하게 하되 아주 바쁜 것은 不可하다.

바쁘게 되면 字勢를 잃게 되고 다음은 느린 것도 不可하다.

너무 느리게 되면 筆力에 病이 들게 된다.

또 너무 가는 것도 不可하다.

가늘게 되면 形이 枯渴하고 또 뚱뚱한 것도 不可하다.

뚱뚱하면 質이 昏濁한 것이다.

상세하게 천천히 臨摹하면 自然히 體가 具備되리니 이것으로 가장 重要的 妙處를 삼아라.

貞觀 六年七月十二日에 詢이는 善奴에게 授訣로 付한다.

편집위원 명단

강 우 형

최 준 모

정 상 희

방 옥 자

유 옥 순

竹堂 閒錄

<비매품>

지은이 전용국

발행인 김시운

발행처 예산문화원

발행일 2014년 8월 29일

기획 박세진

편집 탁마희

행정지원 김상희, 박지혜

인쇄 미래인쇄사(041-332-6107)

ISBN 978-89-968223-8-7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혹은 전재 할 경우에는 저자와 예산문화원 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서적은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 되었습니다.

